

# 北韓勞動黨肅清史

1989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 이 資料에 대하여

本 資料는 日本의 시바타 미노루(柴田穗)氏의 「金日成의野望(中)卷 肅淸의歷史」(1984年版)를 抜萃·翻譯한 것입니다.

著者는 韓·中問題 專門家로서 日本의 産經新聞 서울特派員 및 北京支局長등을 歷任하면서 韓半島와 中國에 관한 著書와 論文을 多數 發表한 바 있습니다.

同 翻譯資料, 「北韓勞動黨肅淸史」는 北韓 金日成이 解放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權力의 正統性을 確立하기 위해 曹晩植을 비롯한 民族主義者들, 그리고 國內土着 共產主義派, 延安派, 蘇聯派, 심지어 自派(甲山派)까지를 차례차례 肅淸하고, 그 延長線上에서 “金正日 權力世襲體制”를 構築하는 過程을 時代와 事件을 背景으로 綿密하게 分析·整理하였습니다.

本書가 讀者 여러분이 北韓共產主義 批判, 研究에 一助가 되기를 바랍니다.

1989 年 5 月

調 査 研 究 室



# 目 次

## 肅清의 歷史 (上)

民族陳營의 巨頭 曹晚植 殺害 3 / 눈위의 흑, 玄俊赫을 暗殺 5  
/ “分派” “右傾”으로 投獄 8 / “쓸모없게 된” 朱寧河도 追  
放 10 / 巧妙한 金日成의 護身術 13 / 蘇聯派 許哥而도 對象으  
로 15 / 毛澤東에게 팔리운 朴一禹 18 / 金策 司令官의 이상한  
事故死 21 / 棺속에 숨어서 北으로 脫出 23 / 初代 黨政治委  
員 모두 暗殺 26 / 韓國戰爭勃發後 黨規 強化 29 / 弱化되는 金  
日成의 影響力 31 / 復權을 노린 金日成 34 / 政敵의 排除에  
利用 37 / 게릴라要員 養成을 두려워하다 40 / 百萬 黨員으로  
南勞黨派사냥 42 / 越北 文學家를 하나 하나 彈壓 45 / “南勞  
黨派”의 檢舉旋風 47 / 李承燁등 12人을 軍事裁判에 50 / 술  
직히 美帝스파이를 是認 53 / 李承燁등 10人에게 死刑判決 55  
/ 2年4個月後 朴憲永 10時間 秘密裁判 58 / 朴憲永의 處刑  
을 強行 60 / 南勞黨員의 殘黨사냥 始作 63 / 家族 親族에 대  
한 苛酷한 虐待 65 / 肅清 犧牲者는 約 5萬名 68

## 肅清의 歷史 (中)

스탈린批判으로 衝擊 72 / 延安派로부터의 批判의 화살 75 /

自派에서도 個人崇拜批判 78 / 中央委人事로 妥協企圖 80 / 主席의 海外旅行中에 攻撃 84 / 尹公欽이 金日成批判 演說 87 / 8月宗派事件의 處罰을 撤回 90 / 金日成, 反擊으로 나오다 93 / 反革命陰謀參加의 證據는 없다 96 / 黨·行政·地方의 幹部까지 肅清 98 / 大肅清, 將軍에서 兵士에 이르기까지 101 / “集中指導”를 全國으로 擴大 104 / 恐怖의 “붉은 都市化計劃” 107 / 文藝界에도 肅清바람 110 / 춤출 수 없게 된 舞姬 崔承喜 112 / 蔣介石의 間諜으로 된 拉北 要人 115 / 延安·蘇聯派는 美帝 間諜 118 / 黨內反對派는 右翼 投降主義 121 / 헝가리事件으로 活路 123 / 소련의 “混亂”을 利用하다 126 / 司法·檢察 首腦를 一掃 129 / 蘇聯과는 反對되는 彈壓部門強化 132 / 바람직스러운 革命傳統 134 / “非스탈린化”를 利用 137

### 肅清의 歷史 (下)

金日成派 人脈에 肅清 第3波 141 / 階級鬭爭繼續論을 들고 나오다 143 / 實弟 金英柱를 黨中央指導部에 大拔擢 147 / 朴金喆, 드디어 李孝淳을 攻撃 149 / 淒慘하게 甲山派 一掃 152 / 失敗한 特殊게릴라 侵攻 155 / 金昌鳳등 軍首腦도 肅清 158 / 指揮官과 政治部員이 對立 161 / 軍事와 政治 어느쪽이 優先인가 164 / 黨의 軍指導 強化와 게릴라戰 重視 166 / 68年 南朝鮮解放이 目標 169 / 軍肅清 다음에는 民衆彈壓 171 / 彈壓에 民衆의 不滿 噴出 174

## 肅淸의 歷史 (上)

### 民族陣營의 巨頭 曹晩植 殺害

北韓의 “肅淸의 歷史”는 1945年 10月 14日 金日成이 平壤市營 運動場에서 열린 소련占領軍 歡迎群衆大會에 모습을 나타내고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登場한 直後부터 시작되었다.

西方側의 北韓專門家は 모두가 肅淸史의 第1段階로서는 “民族陣營 및 國內 共產派”의 肅淸期를 들고 있다. 그 期間은 1940年代의 後半期에 該當되며 “民族陣營”의 指導者로서 肅淸史의 最初의 犧牲者가 된 것은 曹晩植이었다.

1945年 8月 15日 日本의 降伏은 36年에 걸친 植民地統治가 끝을 맺게 되자 韓半島北部에서는 基督教의 長老이며 한때 「朝鮮日報」의 社長을 歷任한 바도 있는 曹晩植이 가장 人氣와 人望이 있는 指導者로서 民衆의 注目を 끌었다.

曹晩植 등 民族主義者들은 解放 2日後인 8月 17日 「平安南道建國準備委員會」를 結成하고 曹晩植을 委員長으로 選出하였다. 그것은 소련占領軍이 平壤에 入城하기 바로 전이었다. 그 후 委員會는 소련占領軍當局의 命令으로 「平安南道人民政治委員會」로 改稱되었으나 北韓의 民主·民族運動의 “總本山”으로서의 役割을 하게 됨으로써 國內派 共產主義者들까지도 曹晩植을 指導者로서 尊敬하게 되었다.

10月 8日 北韓 5道(咸鏡北道, 咸鏡南道, 平安北道, 平安南道, 黃海道)의 代表가 平壤에 모여 「5道行政當局委員會」를 組織하고 曹晩植을 委員長으로 選出하였다. 金日成이 平壤運動場의 歡迎集會에 모습을 나타내기 6日만의 일이었다.

同委員會는 그의 傘下에 「5道行政局」을 設置하고, 46年

#### 4 肅淸의 歷史(上)

2月8日 소련占領軍의 指示에 의해서 操作된 事實上의 北韓政權이라 할 수 있는 「北朝鮮人民委員會」가 出現하기까지는 「5道行政局」이 中央行政機構로서의 機能을 遂行하고 있었다. 그 후 曹晩植은 45年 11月 3日 「北朝鮮民主黨」을 結成하였다.

이와같은 過程을 볼 때 소련軍當局은 어느 時期까지는 曹晩植을 北韓地域의 指導者로서 擁立하려고 模索하였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見解도 成立된다. 「北朝鮮王朝成立秘史」의 著者인 林隱氏는 이에 대해서 “소련軍當局은 曹晩植을 補佐할 目的에서 金日成, 金策 등을 民主黨에 派遣하려고 하였던 일도 있었다.”고 하여, 當時 소련軍當局이 曹晩植을 北韓의 指導者로서 注目하고 있었던 것은 分明하다.

그리고 “萬一 曹晩植이 ‘信託統治’를 것처럼 頑固한 態度로 拒否하지 아니하고, 소련軍當局의 說明을 若干이라도 理解하려고 努力만 하였다면 事態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45年 12月 26日 모스크바에서 열린 美·英·蘇 3國外相會議가 韓半島의 信託統治案을 決定 發表하게 되자, 曹晩植 등 民主·民族陣營은 信託統治反對鬪爭에 全力을 기울였다. 共產主義者들도 처음에는 信託統治에 反對하는 民族陣營에 加擔하였으나, 信託統治에 贊成하라고 強要하는 소련占領軍當局의 指令을 받고 하루 밤사이에 態度를 突變시켰다.

46年 1月 1日 소련占領軍政治司令官 로마넵코少將은 曹晩植을 불러내어 信託統治에 贊成하도록 說導함과 同時에 끝까지 反對한다면 生命을 保障할 수가 없다고 脅迫까지 하였다. 그러나 曹晩植은 자기의 信念을 굽히지 않았다.

1月 4日 平壤에서는 信託統治問題에 대한 決定을 내리기

위해서 「5道行政局委員會」가 열렸다. 參加者는 共產黨側이 16人 全員出席한 反面 民族陣營으로부터는 不過 6人이 參席하는 程度였다. 이것은 共產黨으로 하여금 有利하게 會議를 進行시키기 위해서 소련軍政當局이 미리 손을 썼기 때문이었다.

席上에서 共產黨이 信託統治案에 대해서 贊反을 表決로 決定하자고 主張하는데 대해서 曹晚植 등 民族陣營은 頑強히 拒否하였다. 그러나 表決은 強行되어 信託統治案 贊成이 可決된 것이다. 曹晚植은 當場 「5道行政局」의 委員長을 辭任할 것을 宣言하게 된 것이다.

最後의 演說을 끝내고 會議室을 나오는 순간 曹晚植은 待機하고 있던 소련軍警備隊에 의해서 連行되어 平壤市內의 호텔에 監禁되었다. 그 후 市內 寺洞區의 某處로 옮겨진 후로는 韓國戰爭勃發後인 50年 10月 中旬, UN軍에 의해서 平壤이 占領되기 直前に 北韓의 政治保衛部의 손에 의해서 曹晚植은 殺害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 눈위의 흑, 玄俊赫을 暗殺

“民族派” 曹晚植이 소련占領軍의 손에 의해서 軟禁되자 非 共產엘리트의 太半은 北韓을 脫出하여 南韓으로 亡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曹晚植을 強力히 支持하고 있던 土着 共產主義者들은 北韓에 그대로 남았다. 共產主義運動을 하였기 때문에 日本官憲에 의해서 投獄되어 解放과 더불어 出獄한 土着 共產主義者들은 北韓內部에서 “海外歸還派”인 金日成派보다는 강한 影響力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金日成에게 있어서는 “눈위의 흑”이었다.

解放直後 北韓地域에는 “國內派”라고 불리우는 土着共產主

義者들이 群雄割據의 樣相을 나타내고 있었다. 咸鏡北道에는 金采龍, 咸鏡南道에는 吳琪燮, 鄭達憲, 李舟河, 李鳳洙, 平安北道에는 金台俊, 金載甲, 白容龜, 平安南道에는 玄俊赫등이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玄俊赫은 平壤에 살고 있다는 有利한 條件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過去의 鬪爭經歷이나 共產主義理論의 水準 등에 있어서 훌륭하였다. 그 때문에 左翼인테리와 進歩的인 民族主義者間에 人氣가 높았다.

日本이 降伏하고난 후에 南쪽의 서울에서는 刑務所에서 曠釋放된 共產主義者나 地下組織으로부터 모습을 나타낸 共產主義者에 의해서 黨再建이 始作되어 1945年 9月 11日에 朝鮮共產黨이 創建되었다. 이들 共產主義者가 指導者로 推戴한 것은 朴憲永이었다. 45年 10月 13日 北韓共產組織代表의 最初의 會合인 “5道黨員・熱誠者聯合大會”가 平壤에서 열렸을 때에 金日成은 鄭重하게 朴憲永의 權威에 敬意를 表明하였다.

이 會議에서 北朝鮮分局이 設置가 決定되고, 12月 10日에 朝鮮共產黨北朝鮮分局 第3次擴大執行委員會에서 金日成이 北朝鮮分局의 第一書記로 選出되었다. 그러나 朝鮮共產黨書記의 포스트를 둘러싸고 玄俊赫은 金日成의 라이벌이 될 可能性이 濃厚하게 되었다.

兩者는 政治路線에서도 對立하고 있었다. 金日成은 北韓은 社會主義段階에로의 移行을 準備하는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을 達成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해서 玄俊赫은 民族派의 曠晚植을 支持하여 民族陣營과 聯合하여 “부르조아革命”을 遂行하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玄俊赫은 金日成에게 있어서 “눈위의 흑”이 되어 時急히 除去해야할 對象으로 된 것이다. 소련의 立場에서도

玄俊赫의 政治路線이 마음에 안들뿐 아니라 金日成의 勢力伸張을 하는 데도 방해가 되는 存在로 생각되었다.

여기서 金日成은 소련軍政司令部의 支援下에 玄俊赫의 孤立化를 노렸다. 金日成은 朴正愛와 그의 남편 金容範, 滿州로부터 歸國한 張時雨, 土着共產主義者인 李周淵, 崔環德, 楊永順 등을 포섭하는 한편 國內派의 結束을 妨害하려고 離間策을 썼다.

玄俊赫이 責任을 지고 있던 朝鮮共產黨平安南道地區委員會의 事業이 심한 批判을 받은 데서부터 2週後인 45年 9月 28日 平安南道人民委員會 副委員長이었던 玄俊赫은 委員長인 曹晚植과 더불어 로마넝코政治司令部에 呼出되었다. 그의 歸路에 玄俊赫은 平壤市廳앞에서 車에 탄 赤衛隊服裝을 입은 青年으로부터 拳銃에 맞아 죽었다.

平壤中心街에서의 白晝의 暗殺事件은 平壤市民들에게 큰 衝擊을 주었다. 소련軍司令部는 한동안 報道管制을 하는 등하여 事件을 은폐해 오다가 數日後에 “玄俊赫은 右翼의 테러에 죽었다.”라고 극히 簡單하게 發表하였다.

한편 金日成은 暗殺事件이 自身과는 關係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玄俊赫의 葬儀를 社會葬으로 할것을 고집하는 同時에 “白色테러를 打倒하라”라고 외치고, 犯行의 責任을 民族陣營에 轉嫁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드디어 平壤市民들사이에는 玄俊赫暗殺의 下手人은 平安南道人民政治委員會의 司法部長 張時雨의 指令을 받은 武裝赤衛隊員이었다는 事實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土着共產主義者의 代表的인 人物이었던 玄俊赫의 暗殺에 의해서 平壤을 中心으로한 國內派共產勢力은 큰 打擊을 받았다.

그리고 玄俊赫의 暗殺은 時期的으로는 너무나 이른 暗殺事件이고, 金日成에 의한 國內派共產主義者에 대한 肅淸의 始作이 되었던 것이다.

### “分派” “右傾” 으로 投獄

土着共產主義者의 代表人物이었던 玄俊赫의 暗殺은 國內共產派中の 北韓系列 肅淸의 始發로 되었다. 玄俊赫의 暗殺에 의해서 平壤을 中心으로한 國內共產派에 打擊을 준 金日成은 다음으로 咸鏡南道를 肅淸의 對象으로 택하였다.

咸鏡南道는 咸興市 興南市 등 工業都市가 있기 때문에 日本植民地時代부터 比較的 勞動運動이 빈번하였다. 그 때문에 1945年 解放後에도 土着共產主義勢力이 가장 강한 地方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玄俊赫 등이 平壤을 舞臺로 發言權을 擴大하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吳琪燮 등 咸鏡南道の 土着共產主義者들은 우습게 볼 程度였다.

咸鏡南道の 土着共產主義者의 中心人物인 吳琪燮은 理論의 水準에서나 鬭爭經歷面에서도 玄俊赫과 같은 比重이었기 때문에 金日成으로서는 自己에게 挑戰할 수 있는 危險人物로 보여진 것이다. 거기서 金日成은 소련軍司令部의 操縱下에 咸鏡南道の 土着共產主義勢力을 分散시킬 目的에서 吳琪燮을 平壤에 부르게 된 것이다.

金日成의 “陰謀”를 눈치챈 吳琪燮은 처음에는 咸興을 떠나는 것을 拒絕하였다. 그러나 로마넝코司令部의 直接的인 呼出에는 吳琪燮도 拒逆할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吳琪燮이 平壤을 향해서 가게된 1945年 10月 10日에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이 發足하여 第1 秘書에는 金日成, 第

2 秘書에는 “延安派”라고 불리우는 中國歸還의 武亭과 “國內派”를 代表하는 吳琪燮이 選出되었다. 그러나 故鄉의 土着 組織에서 隔離되어 平壤으로 呼出된 吳琪燮은 말하자면 一種의 人質이며, 第2 秘書라는 포스트도 名目에 不過하였다.

金日成은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이라는 名稱으로 北韓共產黨의 中央組織을 만드는데 成功한 餘勢를 몰아서 地方組織의 人物들에게 “地方主義者” “宗派(分派)分子” “家族主義者” 등의 レッテル을 부쳐서 非難하기 始作하였다.

그리하여 1945年 12月 17日에서 18日에 걸쳐 열린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의 第3次執行委員會에서 吳琪燮 등 國內派의 強力한 反對에도 不句하고 黨의 名稱을 “北朝鮮勞動黨”으로 改稱하였다.

吳琪燮은 1949年 1月까지 第2 秘書로 있다가 “北朝鮮臨時 人民大會”의 宣傳局長으로 格下되고 다시금 職業同盟의 委員長으로 左遷되고 말았다. 그것은 吳琪燮이 아직 國內派 共產主義者들로부터 支持를 받고 있기 때문에 金日成이 機會있을때 마다 吳琪燮에 대해서 批判은 할 수 있어도 黨으로부터 追放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金日成은 吳琪燮 등 國內派 共產主義者들을 除去하는 “陰謀”를 達成하기 위해서 下手人으로서 京城帝大出身이고 吳琪燮의 充實한 支持者였던 朱寧河를 選擇하여 1946年 8月 28日 北朝鮮勞動黨과 “延安派”의 朝鮮新民黨이 合黨되었을 때 그를 登用하였다.

이리하여 吳琪燮보다 上位의 포스트에 오른 朱寧河는 나름대로의 野心을 갖고 金日成을 위한 理念確立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吳琪燮을 除去하는데 先頭에 서게 되었다.

金日成의 吳琪燮에 대한 最初의 批判은 1948年 3月 27日의 北朝鮮勞動黨 第2次大會의 席上에서 行하여 졌다.

金日成은 이 黨大會의 報告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吳琪燮을 非難하였다. 즉 “天上天下唯我獨尊의 觀念에 사로잡혀서 個人英雄主義思想에 물들어 있는 宗派主義者들이 있다. 그들은 各地方마다 割據하면서 낡아빠진 宗派的인 生活의 延長을 꾀하고 있다. 이를테면 吳琪燮同志가 그의 代表的인 存在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非難은 우수운 일이다. 이미 3年동안이나 吳琪燮은 故鄉의 地域基盤을 떠나 完全히 高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同年 11月의 北朝鮮勞動黨 第4次大會에서 이번에는 朱寧河가 金日成으로부터 바톤을 넘겨받아 吳琪燮이 同年 9月 黨機關紙 「로동신문」에 寄稿한 論文을 問題삼아 “左傾化 傾向”이라고 非難하면서 “朝鮮의 트로츠키”라고 몰아 붙쳤다.

이리하여 吳琪燮은 無力한 存在로 되었을 뿐 아니라 黨에 대한 犯罪者 取扱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黨의 勞動部長의 地位까지 剝奪당하고, 朝鮮海運公司 副社長으로까지 左遷되었다가 1956年 소련에서 스탈린 批判이 일어나게 되자, 北韓에서도 “金日成一人體制”에 대한 反對運動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穀物供給相의 자리를 주었다가 58年 4月 “延安派”가 肅淸될 때 함께 投獄시켜 버렸다.

### “쓸모없게 된” 朱寧河도 追放

金日成은 “國內派” 共產主義의 代表的 人物인 平安南道の 指導者 玄俊赫(平安南道人民委員長)을 1945年 9月 28日 暗殺에 의해서 除去하고 나서 이번에는 咸鏡南道の 指導者 吳琪

變(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 第2秘書)을 48年 3月の 北朝鮮 勞動黨 第2次大會에서 “宗派(分派)主義者”로 非難하고 난 후, 그를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宣傳局長, 職業同盟委員長, 朝鮮海運公司 副社長 등으로 점점 格下시켰다.

56年 소련의 스탈린 批判後 一時 黨中央委員으로 復歸하여 穀物供給相이라는 地位를 얻었다가 58年 4月 그는 “延安派”의 肅淸時 投獄되고 말았다.

吳琪變의 肅淸으로 金日成의 앞잡이로된 자는 京城帝大出身으로 吳琪變의 忠實한 支持者였던 朱寧河였다. 朱寧河는 拔擢되어 吳琪變보다 높은 地位에 앉게되자 吳琪變非難의 先頭에 서게된 것이다.

그러나 吳琪變에 대한 攻擊이 成功한 후 너무 빨리 金日成의 “총애”를 잃었다. 金日成은 한때 朱寧河의 吳琪變 批判을 “黨性的 表現”이라고 까지 추켜 올린 때도 있었으나, 吳琪變의 肅淸으로 利用價值가 없어지게 되자 손바닥 뒤집듯이 이번에는 朱寧河를 “自己의 野心을 채우기 위해서 同志를 批判하였다.”라고 非難하고 나섰다.

이리하여 朱寧河는 黨副委員長의 要職으로부터 交通相으로 格下되고, 계속해서 駐蘇大使로서 모스크바로 追放된 후 48年 8月 朴憲永 등 南朝鮮勞動黨系의 大肅淸時 다같이 “宗派主義者” “英雄主義者”로 몰려 黨으로부터 追放되었다. 以上이 北韓에서의 1940年代의 肅淸인 것이다.

50年代의 肅淸은 1950年 6月 25日에 勃發한 韓國戰爭과 關聯해서 始作되었다. 平壤을 防衛하도록 한 金日成의 命令에 不服하고 中國東北(舊滿州)까지 敗走한 責任을 지고 肅淸당한 자가 武亭이다.

武亭은 中國共產黨의 砲兵師團長으로서 毛澤東의 信任이 두텁고 有能한 軍人으로서 높이 評價받고 있었으나 解放과 더불어 歸國하였다. 이러한 經歷을 갖고 있는 武亭은 歸國後 비로소 金日成을 만났는데 이 때는 相對도 하지 않았다. 金日成은 武亭의 이러한 거만한 態度에 反感을 갖게 되어 警戒를 하였으나 武亭의 背後에는 中國과 “延安派”가 存在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軍事指導能力과 經驗을 利用할만한 價値가 있다고 判斷하고 組織안에 끌어드려 利用하기로 한 것이다.

거기서 우선은 武亭에게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의 第2 秘書라는 地位를 주고 그 후에 崔庸健을 司令官으로 하는 保安幹部訓練所의 砲兵司令官으로 任命하였다.

1950年 6月 25日에 韓國戰爭이 勃發하였다. 韓國戰爭은 日本에서는 한때는 스톤의 「秘史·朝鮮戰爭」의 影響 등을 받고 美國 및 韓國이 挑發한 것으로 믿어 왔으나, 最近에는 共產側이 일으켰다는 것이 通說로 되고 있으며, 또 學術研究上에서도 立證되고 있다.

더우기 1970年에 出刊된 「후르시초프의 回顧錄」에서 “후르시초프는 朝鮮戰爭을 먼저 主張한 것은 金日成이었다고 하면서 “金日成은 스탈린에게 銃劍만 한번 찢러도 南朝鮮에서는 內部爆發이 일어나, 人民들은 李承晚의 支配로부터 解放될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主張했다.

소련에 居住하는 「北朝鮮王朝成立秘史」의 著者 林隱 氏는 “分別없는 金日成의 冒險에 의해서 일어난 朝鮮戰爭은 그의 期待와는 다른 結果를 가져왔다.”라든가 “民族의 一大悲劇을 自招한 이 戰爭이 金日成의 野心과 虛榮心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始作되었으며, 그의 후유증이 얼마나 컸던 가를 밝힘에 의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延安派”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이 역시 金日成의 肅淸의 對象으로 된 것이다.

金日成은 黨의 宣傳員에 대해서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退治하고 主體를 確立할 데 대하여”라는 學習을 통해서 “우리 黨의 많은 黨員은 우리 나라의 歷史를 잘 모르기 때문에 優秀한 傳記를 發見 繼承하고 發展시켜 나가야 함에도 不拘하고 朴昌玉은 그것을 하지 못한 代表的인 人物이었다.”고 非難하였다.

이러한 批判이 있는 후 朴昌玉은 黨籍이 剝奪되고 1956년에 “延安派”가 肅淸당할 때 함께 逮捕되었다. 그러나 蘇聯大使의 抗議로 朴昌玉은 釋放되고 그 후 蘇聯으로 追放당하였다.

“國內派”의 吳琪燮(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 第2秘書)을 肅淸할 때 部下인 朱寧河를 利用하였던 것과 똑같은 “肅淸의 手法”이었다.

### 毛澤東에게 팔리운 朴一禹

“延安派”의 리더 武亭의 肅淸後에도 “延安派”는 北韓 政權內部에서 큰 勢力을 維持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中國共產軍出身의 朴一禹와 方虎山은 가장 두드러진 存在였다.

金日成은 다른 派閥의 肅淸에 同調시킬 目的에서 1948年 9月 北韓政權樹立時에 朴一禹를 內務相에 任命하고 韓國戰爭中에는 朝中聯合司令部에 任命하였다. 한편 方虎山은 韓國戰爭初期에는 師團長을 歷任하여 英雄的인 戰功을 세웠다하여 軍團長까지 昇進시켰다.

그러나 朴一禹와 方虎山은 自派勢力을 擁護하였다는 理由로 점차 金日成의 信任을 잃게 되었다. 金日成은 그 두사람을 去

1951年 10月 1日부터 4日까지 勞動黨中央委員會 第4次全  
員會議가 열려 “黨의 組織에 관한 問題點”에 대해서 討議가  
進行되었다. 金日成은 같은 “蘇聯派”의 새로운 實力者의 한  
사람인 朴昌玉에게 許哥而를 攻擊하도록 하였다.

「北朝鮮王朝成立秘史」의 著者인 林隱氏에 의하면 朴昌玉은  
朴英彬(蘇聯派) 朴金喆(國內派) 朴正愛(國內派) 등과 더  
불러 金日成에 의해서 선발된 肅淸의 突擊隊長 4人中的 한 사람  
으로서 이들 4人을 가리켜 北韓住民들 사이에는 “4朴哥”라  
고 불리어졌다. 러시아語로 “사바카”라는 말은 “개(犬)”  
라는 뜻이다.

朴昌玉의 許哥而非難은 北韓의 勞動者 農民들 보다도 南朝  
鮮勞動黨出身者를 優待하였다는 데 集中하여 “許哥而是 黨의  
門戶를 굳게 잠그고 洗練된 北半部の 勞動者 農民들을 黨員으  
로 받아 드리는 데는 消極的이면서 오히려 成分이 좋지 않은 南  
半部出身의 不純分子들을 無原則하게 入黨시켰다. 이와같은 行  
爲는 黨의 組織責任者로서 黨의 힘을 弱化시키려고 하는 意圖  
的인 反黨行爲가 아닐 수 없다.”라고 主張하였다.

이리하여 許哥而是 黨籍이 剝奪되었으나 한동안은 內閣副首  
相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드디어 韓國戰爭으로 破壞된 順安댐  
의 復舊工事와 穀物買入事業 등 도저히 期限內에는 達成할 수  
없는 任務를 떠맡게 되었다. 그로부터 數日後에 自己 事務室에  
서 “自殺屍體”로 되어 發見되었다. 이것은 1953年의 일이다.

許哥而肅淸의 앞잡이로 利用된 朴昌玉은 그 후 朴憲永을 中  
心으로 하는 南朝鮮勞動黨系의 大肅淸의 先鋒隊로 利用되고 그  
功績으로 黨의 思想文化擔當副委員長과 副首相까지를 맡게 되  
었다. 그러나 朴昌玉도 金日成의 “革命傳記”를 認定하려고

1950年代에 “延安派”의 武亭將軍을 肅淸한 金日成이 다음의 肅淸對象으로 노린 것은 “소련派”의 리-더格인 許哥而(또는 許哥誼라고도 함)였다. 許哥而는 소련 다시켄트共和國의 黨秘書를 지냈다는 經歷과 훌륭한 組織能力으로 높이 評價 받고, 黨과 政權內에 急速히 그의 勢力을 伸張하고 있었다 따라서 北韓政權內部에서는 그에 대해 “博士”라는 別名이 따를 정도였다.

許哥而는 解放後 蘇聯으로부터 北韓으로 歸還하자마자 金日成 金策 다음가는 “蘇聯派”의 第3位로 登場하여 北朝鮮勞動黨에 組織部長으로 되었다. 따라서 南朝鮮勞動黨과 北朝鮮勞動黨이 合黨하여 朝鮮勞動黨으로 되었을 때 南朝鮮勞動黨出身 朴憲永과 더불어 副委員長에 選出되었다.

金日成은 許哥而가 急速히 勢力을 擴張해가는데 神經을 쓰게 되었다. 왜냐하면 許哥而는 소련의 市民權을 갖고 있어 언제든 蘇聯의 支持下에 金日成의 權威에 挑戰할 수 있는 人物이었기 때문이다. 許哥而는 解放後 蘇聯에서 北韓에 派遣된 委員의 代表格으로 보였으며 그 누구보다도 平壤의 蘇聯大使館과 密接히 關聯되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 許哥而는 北韓의 새로운 黨機構의 主要한 計劃者로 보였다. 더욱이 許哥而는 南韓에서 活潑한 地下鬪爭을 해 온 朴憲永 등 南朝鮮勞動黨員들을 尊敬하고 있었다.

오랜동안 機會를 노리고 있던 金日成에게 드디어 許哥而를 攻擊할 時期가 온 것이다. “延安派”의 巨物 武亭을 肅淸한후 勞動黨은 많은 新黨員을 받아 드렸다. 그러나 黨組織部長인 許哥而는 新入黨員의 審査를 아주 嚴하게 하였다. 이것이 金日成이 許哥而를 攻擊하게 되는 口實로 되었다.

하고 있다.

즉, 金日成은 自己以外에는 내릴 수 없는 後退命令도 내리지 않고 맨먼저 中國과의 國境地帶의 鴨綠江까지 逃亡을 갔으나 스탈린으로부터 責任追窮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하였다. 그의 周圍에 있던 사람들에 의하면 金日成은 完全히 自信을 잃고 恐怖에 떨면서 시베리아流刑을 면할 길 없다고 생각하여 自暴自棄하고 있었다.

當時의 關係로 보아서 있을 수 있는 스탈린의 處罰을 金日成은 多幸히도 면할 수가 있었다. 그보다도 金日成은 自己의 敗戰의 責任을 他人에게 轉嫁함에 의해서 自身을 求出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지 모른다.

야밤중에는 中國의 개짓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鴨綠江邊(高山鎮)에서 金日成은 이름만은 威勢 당당한 最高司令部를 構策해 놓고, 戰局을 收拾하기 보다도 우선은 누구에게 敗戰의 責任을 뒤집어 씌울 수가 있을 가 하는 데에 머리를 썼다. 그 結果 武亭 金一 崔光(當時는 師團長)등을 處罰함으로써 敗戰의 責任을 他人에게 돌릴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50年度의 肅淸은 金日成의 변신술로서는 매우 영리한 方法이었다고 할 수 있다. 功勞와 榮光을 自己에게, 失戰의 責任은 他人에게, 라는 公式을 그는 體得하였다. 그러나 韓國戰爭의 問題는 그와같이 簡單하게 누구인가를 處罰하는 것으로써 解決되는 問題만은 아니었다.

韓國戰爭을 契機로 金日成의 肅淸의 波紋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간 것이다.

蘇聯派 許哥而도 對象으로

해서 두번 다시 이러한 不幸을 우리들의 國土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努力하는 것이 무엇보다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韓國戰爭이 金日成의 冒險 野心 虛榮心에 의해서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다.

韓國戰爭이 일어나자 金日成은 武亭을 第2軍團長에 任命하고, 그 후 UN軍의 總反擊으로 敗走하게 될 때 武亭을 平壤防衛司令官에 任命한 것이다.

### 巧妙한 金日成의 護身術

武亭이 平壤防衛司令官에 任命되었을때 UN軍의 總反擊에 의해서 北韓은 敗走狀態에 있었다. 武亭은 大勢가 이미 기울어졌음을 判斷하여 平壤防衛를 拋棄하고 鴨綠江을 건너 中國東北部(舊滿州)로 도망하였다. 그 후 鴨綠江方面으로 逃亡해 오는 敗殘兵들을 글거 모아 第6軍團을 編成하였다.

이러한 武亭의 行動은 金日成으로서는 自己에 대한 謀反이라고 생각 되었다. 거기서 “延安派”의 集團的인 反撥을 사지 아니하고 武亭을 肅淸하는 方法을 講究하게 된 것이다.

50年 12月 4日 金日成은 北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全員會議을 召集하였다. 戰況을 檢討하고 第2段階의 作戰方向에 대해서 協議한다는 것이 會議召集의 表面上의 理由였다. 그러나 事實은 이번 機會에 武亭을 敗戰의 責任을 지워서 肅淸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이 會議에는 黨中央委員과 候補委員, 그리고 軍의 高級指揮官들도 參加하였다. 中央委員이었던 武亭도 실마 自己를 肅淸하기 위한 會議인 줄은 모르고 出席하였다. 會議가 始作되자 金日成은 드디어 武亭이 最高司令部의 命令에 따르지 아니 하

고, 착실하게 戰鬪도 하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아무런 抵抗도 하지 않은 채 平壤을 敵에게 넘겨 주었다고 非難하였다.

金日成은 또 武亭이 敗走를 할 때 罪없는 農民들을 多數 虐殺하였다고 非難하였다. 武亭과 그의 支持者들도 平壤防衛의 任務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多數의 良民을 虐殺하였다는 證據를 내 놓는 데는 辯明의 餘地가 없었다.

會議가 끝남과 同時에 軍服을 벗기고 囚人으로된 武亭은 建設聯隊라고 불리우는 囚人部隊의 長이 되어 平壤市의 牡丹峰地下劇場의 建設工事に 從事하였다.

그 후 中國의 要請으로 中國側에 身柄을 引渡하였으나 곧 病死하였다고 전하여 졌다. 그러나 그의 正確한 死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武亭肅淸에 관해서 北韓專門家가 注目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韓國戰爭의 渦中에 그것도 金日成自身도 平壤을 放棄하고 中國東北部로 逃亡가 있으면서 “延安派”의 巨頭 武亭의 肅淸에 熱을 올렸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金日成이 武亭을 軍에서 追放하였을 때 自己의 心服인 金一(當時는 戰線司令部 軍事委員)과 林春秋(當時는 江原道黨委員長) 등 數人의 軍高級指揮官도 處罰함으로써 “延安派”에 反撥의 口實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勿論 金一 林春秋는 그 후 名譽回復해서 最高指導部에 編入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金日成 特有的 “肅淸의 技術”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武亭의 肅淸時期에 金日成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北朝鮮王朝成立秘史」의 著者 林隱氏는 다음과 같이 記述

勢하기 위해서 1955年 4月 勞動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를 召集하였다.

金日成은 同會議에서 “朴一禹와 方虎山은 宗派(分派)主義의 捕虜가 되어 意識水準이 낮은 자들을 糾合하고 있다. 中國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朴一禹와 같은 人物은 中國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登用하지 않는다고 主張하면서 階級意識이 약한 사람들을 糾合하기 위해서 甘言利說로 꼬시고 있다.”라고 非難하였다.

朴一禹에 대한 罪狀은 그 밖에도 南朝鮮勞動黨의 殘黨까지도 糾合하여 “反金日成陰謀”를 꾸미고, 그의 工作金으로서 國庫金 1億원을 橫領하였다는 것까지 追加시켰다. 同時에 方虎山도 破壞陰謀를 꾸며 많은 同調者를 糾合하였다고 非難을 받았다. 이리하여 위 두 사람은 會議가 끝난 후 곧 黨으로부터 追放되었다.

1945年 8月の 解放과 더불어 中國人民解放軍의 朱德 總司令官은 朝鮮義勇軍總司令의 武亭將軍에 대해서 中國東北地方과 北韓에 進出하여 東北地方의 朝鮮民族青年들을 義勇軍으로 結束시키라는 命令을 내렸다. 그때 東北邊境地帶에 있던 朝鮮獨立同盟 北滿特別委員會라는 地下組織의 第5支隊의 支隊長을 하고 있던 자가 朴一禹이며, 東北南部地帶의 第1支隊副支隊長을 지낸 자가 方虎山이었다.

林隱氏는 「北朝鮮王朝成立秘史」에서 朴一禹의 人物像을 다음과 같이 描寫하고 있다.

즉 朴一禹는 中國共產黨으로부터 두터운 信任을 받고 있었다. 그는 間島龍井地方에서 中等教育을 받았다. 일찌기 1930年代에는 中國에 들어가 中國共產黨에 加入하여 革命事業에 參加하

게 되었다.

그는 延安解放地區에서 縣政府 主席으로 活動하고 30年代末에서 40年代初에 걸쳐 中國共產黨 中央黨學校를 卒業하였다. 韓國人으로서 이 學校를 卒業한 사람은 극히 적다. 鄧華將軍(中國兵團司令)과 朴一禹가 同窓生이라는 말도 있으나 延安에서 열린 中國共產黨大會에도 朴一禹는 少數民族代表로 參加하여 發言하였다. 그의 演說은 毛澤東主席에게 큰 感銘을 주었다고 한다.

그 以後 朴一禹는 毛澤東의 두터운 信任을 받게 되었다. 毛澤東의 추천에 의해서 그는 朝鮮義勇軍의 正尉로 되고 韓國戰爭時에도 毛澤東은 朝中聯合司令部의 總司令官에 朴一禹와 彭德懷를 추천하였다. 結局 朴一禹는 그의 副總司令官으로 되었다. 이와같이 朴一禹가 北韓의 政界로 進出하게 된 것도 毛澤東의 도움이 컸던 것이다.

그런데 歷史란 익살스러운 것이다. 毛澤東의 後光으로 北韓 政權에서 有力한 指導者가 된 朴一禹는 이번에는 반대로 毛澤東의 背信行爲에 의해서 政治的으로 失脚하게 된 것이다.

林隱氏에 의하면 朴一禹는 金日成의 誤謬를 書面으로 써서 中國共產黨에 보내고, 兄弟黨으로서 忠告를 해 주기를 依賴하였다. 그러나 毛澤東은 그 書類를 그대로 金日成에게 返送한 것이다. 스탈린이 高崗을 毛澤東에게 팔은 것과 같이 毛澤東은 朴一禹를 金日成에게 팔아 넘긴 것이다.

그러면 왜 毛澤東이 朴一禹를 金日成에게 팔았을 까. 解放直後 中國共產黨과 毛澤東은 北韓의 指導者 候補로서 武亭을 積極的으로 밀지 않았다. 그것은 當時의 毛澤東의 對蘇政策이 스탈린의 神經을 건들지 않도록 配慮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문에 소련이 金日成을 北韓의 指導者로서 擁立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武亭을 北韓指導者로 추천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經緯에서 朴一禹가 中國共產黨에 도움을 구했음에도 不拘하고 毛澤東은 朴一禹의 呼訴를 金日成에게 팔아넘겼다고 생각된다. 同時에 毛澤東은 金日成에게 “빛”을 지우려고 하였을 지도 모른다.

朴一禹와 方虎山은 金日成에 의해서 犧牲되었을 뿐 아니라, 當時의 毛澤東의 “對蘇一邊倒” 政策의 犧牲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 金策 司令官의 이상한 事故死

1950年 6月 25日 韓國戰爭의 勃發後 4個月이 지난 10月 20日 平壤이 陷落되었다. 그로부터 5日後 中國義勇軍이 參戰하여 戰況은 다시금 北韓에게 有利하게 轉換되고, 51年 1月에는 再次 서울까지 肉薄하기에 이르러 38度線 附近에서 攻防戰이 계속되어 戰線膠着狀態에 들어갔다.

戰爭의 推進者였던 金日成은 戰爭이 政治的으로도 軍事的으로도 失敗이고 停戰이라는 이름의 敗戰의 可能性이 現實問題로 되어 왔을 때 責任追窮이 自己에게 돌아올 것을 두려워 하였다.

「北朝鮮王朝成立秘史」의 著者 林隱氏는 1950年 10月の 朝鮮勞動黨 第5次全員會議 數日前에 열린 軍事委員會의 會議光景을 紹介하고 있다. 同會議에서 金策戰線司令官, 崔庸健 保衛相, 金一戰線司令部 軍事委員外에 蘇聯大使 스티코프도 參席하였다.

會議는 金日成主席의 發言으로 始作되었다.

金日成 : 우리들의 武裝力은 敵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데 어찌

서 戰線이 이처럼 무너졌는가.

金策：(沈黙後에) 잘 遂行되지 못하였습니다.

金一：美空軍의 絶對的으로 優勢한 條件下에서 우리 地上軍은 마음먹은대로 싸울수가 없었습니다. 더우기 後方이 切斷되었기 때문에 (UN軍의 仁川上陸) 그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金日成：軍의 政治問題를 取扱하는 놈들의 머리가 모두 그처럼 엉터리여서 잘 되어나갈 리가 없을 것이다. 金一은 당장 목아지다. 南朝鮮으로 가라. 거기서 빨찌산을 組織해서 싸워 自己의 잘못을 뉘우치라.

林隱氏는 金日成은 이 會議에서 처음부터 金一을 책망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그가 노렸던 것은 金策이었을 可能性이 많았다고 하여, 그 理由로서 金日成이 北韓의 指導者로서 가장 名聲이 높은 朴憲永, “蘇聯派”의 許哥而, 革命經歷이 많고 政治的 手腕이 높은 金策 등의 3人을 自己의 競爭者로 恒時 警戒하고 格下시키려 하고 있었다는 것과 韓國戰爭의 敗戰에 의해서 政治的 運命이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에 敗戰의 責任을 戰線司令官인 金策에게 뒤집어 씌울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1950年 12月 24日밤 金策은 豫告없이 金日成主席이 있는 最高司令部를 들렀다. 그로부터 數時間後에 金策은 屍體로 發見된 것이다. 公式的으로는 金策은 온돌방의 연탄가스 中毒死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林隱氏는 當時 一部 사람들 사이에는 金策의 事故死는 實은 金日成의 陰謀에 의한 죽음이었던 소문이 퍼졌으며, 가스中毒死라면 다음과 같은 疑問이 있다고 하였다.

즉, 우선 방안에 가스가 차있었다고 한다면 방에 밥상을 가지러 갔던 食母나 副官 또는 醫師中 누구인가는 感知하였을 것

이고, 金策自身이 金日成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이상한 냄새를 알아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우기 金策을 寢室까지 案内한 運轉手도 그 냄새를 맡았을 것이고, 金策이 그 방으로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준 副官도 그것을 感知하였을 것이다.

또한 林隱氏가 “金策의 寢室은 가스온돌裝置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도 때지 않은 연통에서 煙氣가 나왔겠는가. 炭酸가스 云云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만약 이것이 事實이라면 副官醫師 食母 또는 宿舎를 建築한 자들 중에서 一國의 副首相이며 戰線司令官의 事故死에 대해서 責任追窮을 받고 軍事裁判에 회부되어야 마땅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事實은 전혀 없었다. 라고 하여 가스中毒死에 疑問을 남겨두고 있다.

林隱氏는 金策의 죽음에 대한 金日成의 “陰謀”에 관해서 두가지로 推理하고 있다.

그 하나는 金策이 連絡도 없이 突然히 金日成을 訪問한 것이 金日成의 氣分을 상하게 하였는지 아니면 危險을 느끼게 하였을 런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金日成이 自己의 前妻인 金貞淑의 誕生日도 잊고 있던 터에 金策의 訪問을 받고 기분나쁘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當時 金日成은 前妻가 健全할 때부터 關係를 하고 있던 執務室과 寢室의 秘書 金聖愛(現夫人)와 달콤한 戀愛로 열을 올리고 있었고, 金聖愛의 배속에는 金平一(金日成의 次男)의 生命의 씨앗이 잉태하고 있던 때였다. 라고 推理할 수 있다.

### 棺속에 숨어서 北으로 脫出

1945生 8月 15日 日本이 降伏하던 날 서울에서는 呂運亨에

의해서 建國準備委員會가 創設되었다. 美軍이 上陸한 9月 8日보다 3週 前의 일이다.

그리고 美軍上陸 2日前인 9月 6日에는 建國準備委員會의 指導者들이 人民代表者會議를 열어 “朝鮮人民共和國”의 成立을 宣言하였다.

美軍司令官은 이 共和國은 勿論, 各地의 著名한 人士의 大半을 網羅한 地方人民委員會도 承認하려 하지 않았다.

같은 무렵 서울에서는 日本의 降伏에 의해서 刑務所에서 釋放된 共產主義者나 地下에서 모습을 나타낸 사람들에 의해서 共產黨再建이 始作되어 9月 11日에 朝鮮共產黨의 創立이 公表되었다. 이 共產主義者들이 指導者로 추대한 것이 朴憲永이었다.

朴憲永은 1921年 日本官憲에 의해서 投獄된 후 1925年 朝鮮內에서는 最初의 共產組織에 參加하였다. 朴憲永은 이러한 土着共產主義者였기 때문에 解放後 45年 10月 13日 北朝鮮 共產組織代表의 最初의 會合인 5道(咸鏡北道, 咸鏡南道, 平安北道, 平安南道, 黃海道) 黨員 및 熱誠者 聯合大會가 平壤에서 열렸을 때 金日成도 分明히 朴憲永의 權威에 敬意를 表하는 程度였다.

이에 대해서 美國 펜실베니아大學의 李庭植教授는 「朝鮮勞動黨小史」(譯書는 코리아評論社)에서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朴憲永과 그의 一派가 平等한 條件으로 內部鬭爭에 參加하는 것이 許容되어 있었다라면 金日成은 그처럼 일찌기 勝利者가 될 수 없었을른지도 모른다. 朴憲永의 스탈린에 대한 忠誠은 疑心の 餘地가 없었기 때문에 소련軍司令部도 金日成을 위

해서 朴憲永을 處分할 必要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軍司令部는 朝鮮의 將來에 대해서 美國과의 交涉의 結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北韓의 共產組織을 單一의 指導下에 強化할 것을 決定하여 10月 13日 朝鮮共產黨 5道會議에서 北朝鮮分局을 設置하고, 同時에 7人의 委員으로 構成되는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의 幹部會 밑에 두었다.

金日成은 北朝分局이 서울本部の 下部組織임을 強調하였으나 서울의 指導者들은 新設된 同局을 통해서 밖에는 北韓의 黨員들과 接觸할 수 없게 되었다.

1946年 8月 朝鮮共產黨分局은 新民黨을 結成하여 共產黨과는 別途로 行動하고 있던 “延安歸還派”와 合黨하여 “北朝鮮勞動黨”을 設立하였다. 이것은 北韓에서 共產主義者의 地位를 強化시켰을 뿐아니라 서울의 朝鮮共產黨指導部와의 關係를 事實上 修正하는 重大한 行動이었다.

北朝鮮勞動黨의 創設은 지금까지 全朝鮮共產運動의 合法的 指導者로 認定되어온 南韓의 共產主義者들과 지금까지 南韓 혹은 中央의 指導者의 指導下에 있다고 하여 온 北韓共產主義者들과의 關係에 根本的인 變化를 일으켰다. 이리하여 “北朝鮮勞動黨”은 서울의 中央指導部의 權威에서 公式的으로 離脫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南韓의 共產黨도 南朝鮮新民黨과의 合黨工作에 着手하여 45年 11月 “南朝鮮勞動黨”을 創設하였다. 이로 인해서 南北韓의 兩勞動黨은 이제는 對等한 立場에 서게 된 것이다.

朴憲永이 이끄는 “南朝鮮勞動黨”은 美軍政下에서 合法的인 活動이 認定된 가운데서 過激한 鬪爭을 展開하여 破壞活動을 하게 되었다.

그 結果 46 年末에 美軍政廳에 의해서 逮捕令이 내렸다. 이 때 朴憲永은 急히 平壤으로 逃亡한 것이다. 서울의 北韓專門家들에 의하면 朴憲永은 葬禮式의 棺 안에 들어가 숨어서 北韓으로 脫出하였다고 한다.

北韓에 들어간 朴憲永은 北緯 38 度線 바로 北方에 있는 海州에 “南朝鮮勞動黨”의 指導部를 두고 서울에 남아있는 南勞黨幹部에게 破壞活動을 指令하고 있었다.

1948 年 4 월에 平壤에서 열린 南北政治協商會議와 同年 8 月 海州에서 열린 人民代表者大會를 계기로 南朝鮮勞動黨의 本部를 平壤으로 옮기고 北韓에서의 勢力擴大에 들어갔다.

#### 初代 黨政治委員 모두 暗殺

1946 年末 美軍政下에 있는 南韓에서는 南朝鮮勞動黨 幹部에 대한 逮捕令이 내려지자 朴憲永은 北韓으로 脫出하였다. 48 年 5 月 南韓에서는 總選舉가 實施되어 制憲國會가 開設되고, 48 年 8 月 15 日 大韓民國이 樹立되었다.

한편 北韓에서는 49 年 6 월에 南北勞動黨의 統合에 의해서 朝鮮勞動黨이 樹立되어 平壤에 本部를 두었다. 새로운 朝鮮勞動黨 指導者의 名單은 最高首腦들간의 權力的 配分을 正確히 反映하고 있었다. 北朝鮮勞動黨의 副委員長이었던 金日成은 朝鮮勞動黨의 委員長으로 選出되고, 北朝鮮勞動黨委員長이었던 金科奉은 朴憲永 許哥而와 함께 朝鮮勞動黨의 副委員長으로 各 格下되었다.

48 年 9 月 9 日 最高人民會議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樹立을 宣言하였다. 大韓民國의 樹立으로부터 3 週間後の 일이다. 新政權에 金日成은 首相으로 選出되고 行政部門에서도 廣範한

權力을 잡았다. 朴憲永은 副首相 兼 外相에 任命되고, “延安派”의 指導者인 金料奉은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委員長에 選任되었다.

當時의 內閣의 構成員은 最高裁判所나 最高檢察總長 등을 포함해서 모두 22人이었다. 그 중 金日成을 除外한 21人中 病死한 사람은 洪命熹 副首相, 崔庸健 民族保衛相, 鄭準澤 國家計劃委員長등 세 사람이었다. 現在 許貞淑 文化宣傳相, 金翎善 最高裁判所長은 生存하고 있으나 그 밖의 17人은 死刑, 暗殺 또는 肅淸의 運命으로 되었다.

이에 대해서 「北朝鮮王朝成立秘史」의 著者이며 現在 蘇聯에 居住하고 있는 林隱氏는 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즉 金日成時代는 朝鮮의 歷史에서도 가장 殘忍한 彈壓과 恐怖政治의 時代로 特徵지어진다.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委員長이고 國家元首였던 70歲가 넘는 老人 金料奉은 白晝에 金日成이 시킨 暴漢들이 던진 돌에 맞아 머리가 터지고, 발길로 채워 허리가 부러지면서 숨을 거두었다. 內閣副首相의 朴義玩도 같은 暴行을 당한 후 行方不明이 되었다.

한 때는 金日成自身이 朝鮮勞動階級의 한 首領이라고 높이 모셨던 前朝鮮共產黨責任秘書(當時 金日成은 北朝鮮分局秘書)였고, 南北勞動黨의 統一以後는 金日成과 함께 副委員長の 地位를 各各 말았으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發足과 同時에 初代副首相 兼 外相에 就任했던 朴憲永은 “裁判劇”을 벌려놓고 死刑에 處했으며, 또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副委員長으로 金日成權力創造의 產婆役을 말았던 許哥而是 自殺이라는 形態로 暗殺되었다.

崔昌益 副首相, 朴一禹 內相(朝中聯合司令部 副司令), 朱

寧河 前北朝鮮勞動黨 副委員長(初代 蘇聯大使)등도 金日成의 손에 의해서 虐殺되었고, 金策副首相(戰線司令官)도 또한 事故死라는 形態로 暗殺되었다. 이와같이 朝鮮共產黨의 責任秘書였던 朴憲永의 死刑에서 始作하여 金日成 한사람만을 남겨놓고는 北朝鮮共產黨 初代政治委員이 었던 金料奉, 許哥而, 金策, 朴一禹, 崔昌益, 朱寧河 등 全員이 虐殺 또는 暗殺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死刑, 暗殺, 肅淸이라고 하였으나, 實은 社會安全部나 黨機關(中央黨地下室)에 끌려가서 拷問끝에 죽든가 行方不明이 되든가 혹은 大同江邊이나 大成山麓의 死刑場에서 射殺된 사람도 無數하다. 또 어떤 사람은 強制勞動이라는 名目下에 地方으로 流刑되었다가 處刑된 경우도 있다. 다만 한 가지 共通點이 있다면, 누구 한사람도 公開裁判이나 法的인 手續을 밟지 않고 處刑되었다는 것이다.

林隱氏는 北韓에서의 肅淸의 歷史를 다음 5段階로 나누고 있다.

第1段階：南勞黨派 肅淸(1953年)

第2段階：蘇聯派 肅淸(1953~56年)

第3段階：延安派 肅淸(1956~58年)

第4段階：國內派 肅淸(1953~70年)

第5段階：빨지산派 肅淸(1953~70年)

이렇게 볼때 肅淸이 本格的으로 始作된 때가 韓國戰爭의 終結以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最初의 大肅淸事件이 朴憲永, 李承燁(黨中央秘書, 國家檢閱相)을 中心으로 한 “南勞派”(南朝鮮勞動黨派)의 肅淸이었다. 서울의 專門家 金昌順氏(北韓問題研究所長)은 이 南勞黨派肅淸은 北韓의 肅淸史中에서도 가장 大規模的인 肅淸事件이었다고 分析하고 있다.

## 韓國戰爭 勃發後 黨規 強化

1950年 6月 25日 새벽 北韓人民軍은 韓國에 대해서 怒濤와 같은 進擊을 開始하였다. 韓國의 首都 서울은 開戰 4日만인 6月 28日에 占領당하고, 北韓軍은 큰 어려움없이 韓半島를 南進해 갔다.

戰爭이 始作되고 數個月間은 勝利는 共產軍側의 손에 爭取된 것으로 생각 되었다. 후르시초프가 말한것처럼 金日成은 총검을 한번 찌르면 南韓에서는 內部爆發이 일어날 것이라고 豫想하고 있었으나, 金日成의 戰爭計劃中에 단 한가지 豫測하지 못했던 것은 美國이 韓國支援을 위해서 美軍投入을 재빨리 決定하였다는 것이다.

트르만大統領은 6月 26日에 美軍機와 艦艇들을 北韓軍에 대해서 使用할 것을 命令하고 6月 30日에는 美地上軍을 投入하였다. 美救援隊의 第1 陳이 韓國에 上陸한 것은 7月 1日 이었다.

8月初에는 北緯 36度線인 浦項과 35度線인 狹川附近이 戰場으로 되었다. 8月 4日以後 韓·美軍은 길이 約 145킬로, 幅 約 100킬로의 釜山橋頭保를 構築하였다.

이에 대해서 北韓 人民軍은 釜山橋頭保를 突破할 수가 없었으며, 맥아더元帥가 9月 15日 仁川上陸作戰을 敢行하여 北韓 人民軍을 고립시키게 되자 全戰局은 逆轉되었다.

그 후 中共이 參戰하여 大量의 義勇軍을 派遣하였다. 蘇聯도 中國東北地區(滿州)에 空軍 數個師團을 駐留시켜 中共과 北韓에 武器, 軍事補給, 燃料, 食糧, 醫藥品 등을 提供하였다. 이리하여 戰爭은 1953年 7月 27日에 板門店에서 休戰協定이 調印될 때까지 3年 1個月을 계속하였다. 이 戰爭에 의해서 韓半島

全體가 廢虛化하고 雙方에 莫大한 死傷者를 냈다.

世界의 5大戰爭中の 하나로 불리우는 韓國戰爭은 北韓自身도 큰 被害를 입었다. 北韓의 發表에 의하면 個人住宅 約 60萬, 工場 8,700個, 學校 5,500校, 病院 및 診療所 1,000個以上이 50年과 51년에 集中的으로 破壞되고, 發電所 輸送 灌溉 施設도 모두 破壞되었다는 것이다.

또 韓美軍의 合同作戰에 의한 攻擊으로 北韓人民軍은 北方으로 後退하지 않을 수 없는 段階에서 北韓이 45年以來 樹立한 政治機構의 弱點이 暴露되었다. 北韓住民의 相當部分이 北韓各地域을 占領하고 있던 “敵”에게 協力하였으며 大部分의 北韓住民들이 UN軍이 撤收할 때 南韓으로의 脫出의 길을 擇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朝鮮勞動黨의 黨員中에도 “不純分子, 검쟁이, 機會主義者” 등이 大量으로 存在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으며, 戰爭開始 6個月後인 1950年 12月에서 51年 11月까지의 熾烈한 戰鬥過程에서 60萬黨員中 45萬人을 懲戒處理하고 그 중 多數를 黨에서 追放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勞動黨은 戰爭이 끝날무렵에 政治 經濟機構를 再建하여 第一步에서부터 始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無謀한 戰爭計劃과 그의 失敗는 戰爭發案者인 金日成의 權威를 失墜시켰다. 따라서 金日成의 戰爭責任을 追窮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것도 當然한 일이었다.

그것이 最初로 表出된 것은 戰爭開始 6個月後인 1950年 12月 慈江道 滿浦邑 別午里에서 열린 勞動黨中央委員會 第3次全員會議에서 었다. 이會議에서 金日成主席은 “現情勢와 當面한 任務”라는 報告를 하게 되었는데, 특히 “黨의 規律強化”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強調했다.

“黨內的 規律이 一般的으로 약하다는것은 우리로서는 부득이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暴惡한 敵을 擊破하고 榮光스러운 勝利를 爭取할 수 있는 基本的 條件의 하나는 우리 黨이 어떠한 境遇에도 規律을 一層 強化하고 黨中央委員會의 周圍에 各自의 隊列을 鋼鐵같이 結束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 黨이 아직 약하다는 事實은 아주 重大한 일이다.

黨의 規律을 強化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일도 失敗로 끝나지 않을 수 없다. 黨規律을 弱화시키는 一切의 傾向과 假借없는 鬭爭을 展開하여 黨의 어떠한 地位에 있던 간에 黨規律을 違反한 자에게는 斷乎한 處斷을 내려야 할 것이다.”

金日成은 이 會議에서 戰爭責任을 部下에게 轉嫁하여 “延安派”의 武亭(第2軍團長·平壤防衛司令官), “蘇聯派”의 金烈(軍後方總局長), “南勞黨派”인 許成澤(石炭工業相) 등의 責任을 追窮하였다. 그와 同時에 金日成直系의 金一, 林春秋, 崔光 등을 攻擊하고 解任시켰다.

왜 金日成은 直系中の 直系인 金一, 林春秋 등을 解任시켰을까.

### 弱화되는 金日成의 影響力

無謀한 戰爭計劃에 의해서 悲慘한 結果를 自招한 韓國戰爭의 責任追窮을 모면하기 위해서 金日成은 1950年12月 勞動黨中央委員會 第3次全員會議을 열어 놓고 “黨의 規律強化” 問題를 討議하였다.

이 會議에서 金日成은 “現情勢와 當面한 任務”라는 題目下

에 報告를 하여 黨員中에 “不純分子, 卑怯者, 異端分子” 를 맹렬히 非難하면서 다음과 같이 主張하였다.

“이번 戰爭을 통해서 누가 진짜黨員이고 또 누가 가짜黨員 인지를 分明히 알게 되었다. 平和롭고 順調로운 條件下에서 急速히 成長한 우리黨員 모두가 勤勞人民의 參된 前衛黨의 黨員 으로는 될 수 없다. 戰爭은 不純分子, 卑怯者, 異色分子 등을 假借없이 暴露하였다. 이러한 分子들을 黨의 隊列에서 一掃하고 隊列強化를 위한 活動에 邁進해야할 것이다.

이 會議에서 “不純分子” 등의 罪名으로 失脚한 것은 “延安派”의 武亭, “蘇聯派”의 金烈, “南勞黨派”의 許成澤 등과 다른 한편에서는 金日成의 直系인 金一, 林春秋 등이었다.

從來 이 “끼워팔기식”의 肅清은 金日成의 眞心の 目的이 武亭의 “延安派”, 金烈의 “蘇聯派”, 許成澤의 “南勞黨派” 등을 去勢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金一, 林春秋 등 直系의 肅清은 단순히 “끼워팔기식”이었다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였다. 그러기 때문에 金一, 林春秋는 그 후 名譽回復이 되고, 北韓의 最高指導部에서 健在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金日成은 이 會議에서 窮地에 몰리게 되어 金一, 林春秋 등 直系를 處斷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에 놓여 있었다는 解釋이 있다.

이것은 日本에서 發行되고 있는 「統一日報」에 長期的으로 連載되고 있는 鄭益友 同社 論說委員의 “朝鮮勞動黨略史를 밝히다 - 女王蜂史觀 一掃를 위하여”에서 分析되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金日成은 韓國戰爭에서 그의 “知慧주머니”라고 불리우는 金策(戰線司令官), 姜健(總參謀長) 등의 양팔을 잃었으며 더우기 金一, 林春秋 등 直系의 部下를 解任하고

黨으로부터 追放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當時 그만큼 金日成의 影響力이 低下되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證據의 하나로서 1950年 10月 朝鮮人民軍의 文化訓練局이 “總政治局”으로 改編되고, 朴憲永이 總政治局長으로 任命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文化訓練局이라는 것은 人民軍內의 政治思想을 取締하는 最高機關으로서 그의 責任者는 戰線司令部의 軍事委員을 兼하고 있던 金日成主席의 直系인 金一이었다.

金一은 50年 12月 黨中央委 第3次全員會議에서 人民軍敗北時에 飛行機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다라고 하여 敗北主義的 態度를 취했기 때문에 解任되었다는 事實이 金日成報告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狀況에서 軍部內의 規律強化를 위해서 文化訓練局을 改編하여 新設된 總政治局의 責任者로 金日成의 直系를 내세운다는 것은 매우 不可能하였음에 틀림없다.

「안에서 본 朝鮮戰爭」(成甲書房刊)의 著者 林英樹氏도 “人民軍最高司令官 金日成은 急據 朴憲永을 總政治局長에 任命하기 위해서 그에게 中將의 階級章을 달아주자는 妥協도 強要당할 程度였다.”고 쓰고 있다.

50年 10月 人民軍文化訓練局이 總政治局으로 改編되고, 12月 黨中央委 第3次全員會議에서 金一, 林春秋 등의 解任이 明白해졌던 時期에 金日成의 影響力은 극히 低下되어 그 窮地에서 脫皮하기 위하여 金一, 林春秋의 목을 자르고 朴憲永을 人民軍 總政治局長에 任命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는 見解가 說得的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金日成의 戰爭責任을 追窮하여 그를 窮地에 몰고 간 것은 어떠한 勢力이었던가, 金日成의 直系 金一을 代身해서 新設된 人民軍總政治局長에 金日成의 라이벌이고 南朝鮮勞動黨의 指導者 朴憲永이 就任한 것을 보아도 “南勞黨派”가 金日成의 戰爭責任追窮의 主要勢力中の 하나였다는 것은 우선 틀림없는 事實이라 할 수 있겠다.

또 하나의 勢力으로서 “蘇聯派”의 許哥而였다는 見解도 有力하다. 「안에서 본 朝鮮戰爭」에 의하면, 蘇聯勢力을 代表해서 金日成의 後見役을 해 온 許哥而(黨中央副委員長)가 갑자기 朴憲永에게 接近하고 있었기 때문에 朴憲永과 許哥而의 聯合勢力이 손잡고 “反金日成 同盟”을 맺어 金日成의 戰爭責任을 追窮하였기 때문에 金日成은 直系의 金一 林春秋까지 追放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 復權을 노린 金日成

韓國戰爭의 責任追窮을 피하기 위해서 金日成은 1950年 10月 朴憲永을 人民軍 總政治局長에 任命함과 同時에 直系의 金一 林春秋를 解任하고 黨으로부터 追放한다는 妥協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50年 12月の 黨中央委 第3次 全員會議에서 決定된 黨의 點檢強化方針에 따라 朴憲永과 손잡은 許哥而(黨副委員長 兼 中央組織部長)는 肅淸方針에 따라 金日成의 報告에서 非難 받은 黨內的 “不純分子, 卑怯者, 異質分子”를 除去하는 肅黨工作의 先頭에 섰다.

그리하여 新黨員을 採用함에 있어서도 入黨條件을 엄격하게 한다는 嚴選主義를 택하였다. 이 許哥而의 肅黨工作에는 當然

히 共產主義者로서의 實踐經驗이 풍부한 朴憲永 등 “南勞黨派”의 協力을 얻었을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金日成으로서는 극히 危險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朴憲永, 許哥而의 “同盟關係”의 強化와 두勢力이 肅黨工作의 이니셔티브를 잡음에 따라서 金日成의 黨內勢力基盤이 무너질 것이라는 危機感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金日成은 復權의 機會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의 最初의 照準을 “蘇聯派”의 許哥而에게 맞춘 것이다. 金日成의 許哥而攻擊은 1年後인 1951年 11月 黨中央 第4次全員會議에서 表面化되었다. 金日成은 “黨組織 行動에 있어서의 若干의 缺陷에 대하여”라는 題下의 報告를 하여 “一部黨幹部”를 非難하면서 다음과 같이 論하였다.

즉 慈江道の 黨組織은 農民大衆속에 黨을 擴大하는 問題에 대해서 조금도 慎重한 考慮를 하지 않았다. 그 結果 全道에서 今年 上半期에 入黨한 農民黨員의 數는 全道 20歲以上の 無黨派農民同盟加盟員總數의 0.8%에 不過하였다.

平安北道 博川郡의 黨委員會는 勞動者黨員數의 比率이 低下될 것이 두려워서 入黨할 수 있는 對象들이 많았음에도 不拘하고 일부러 農民黨員의 增加를 制限하여 月平均 17人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平安南道 江西郡의 黨機關에서는 今年 上半期에는 同郡 九山面과 草里面の 黨組織이 한사람의 黨員獲得도 하지 못하였고 全郡의 77%의 細胞는 전혀 黨員의 擴張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理由를 들어 金日成은 黨中央組織部長인 許哥而의 肅黨工作을 非難하고 “反黨分子”로 낙인을 찍었다. 許哥而는 同會議에서 黨副委員長, 組織部長의 자리를 빼앗기고, 名目만의

副首相의 자리만 維持하였다.

그러나 그 후 副首相의 자리까지도 빼앗기고 도저히 주어진 期間內에는 達成이 不可能한 平壤郊外貯水池復舊工事 및 穀物 收買事業의 責任者로 任命되었다. 그 후 事業達成에 失敗하게 되자 查問委員會에서 그의 責任을 追窮하고 黨에서 追放해 버렸다.

金日成은 “蘇聯派”의 巨物 許哥而와 “南勞黨派”의 指導者 朴憲永과의 “同盟關係”를 紛碎하기 위해서 우선은 許哥而를 노려 肅清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때에 使用한 手段은 다음 두가지 이다.

그 하나는 許哥而와 같은 “蘇聯派”의 朴昌玉(當時 黨中央 宣傳部長)을 利用하여 許哥而를 攻擊하기 위한 資料를 수집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舞臺工作을 한 자가 50年 12月の 黨中央委 第3次全員會議에서 金日成에 의해서 黨으로부터 追放되어야 했던 金一이었다.

그러나 許哥而追放에 利用된 “蘇聯派” 朴昌玉은 그 功勞로 53年 7월에 “國旗勳章第1級”을 授與받은 후 黨政治委員, 黨副委員長으로 昇進되었다가 드디어 “反國家分子”로서 肅清의 運命을 밝게 되었다.

또 한가지는 中國人民志願軍의 彭德懷司令官의 支援을 얻었다는 見解이다. 中共은 韓國戰爭에 大量的의 人民志願軍을 投入하여 北韓의 崩壞를 救出해 주었다. 그러므로 當時의 北韓에서는 中國人民志願軍의 影響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勞動黨內의 權力鬭爭의 方向을 決定함에 있어서도 中國人民志願軍의 支持를 받을 수 있는 지의 與否가 매우 重要的 要素로 되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안에서 본 朝鮮戰爭」(成甲書房刊)의 著

者 林英樹氏는 金日成이 許哥而를 打倒하기 위해서 中國人民志願軍의 彭德懷司令官의 支持를 얻게 되어, 彭德懷는 金日成을도와 許哥而와 朴憲永系를 露骨의으로 彈壓하게 되었다고 記術하고 있다.

### 政敵의 排除에 利用

1951年 10月의 勞動黨中央委 第4次全員會議以後의 黨內鬭爭에서 “蘇聯派”의 巨物 許哥而(黨副委員長 組職部長)를 除去하는 데 成功한 金日成은 다음 段階에서는 “百萬黨員만들기”에 着手하였다.

50年 12月當時 勞動黨員은 60萬人이었는데, 그 중에서 肅黨工作에 의해서 10萬人이 除名되었기 때문에 50萬人 밖에 없었던 셈이다. 따라서 “百萬黨員만들기”는 새로히 約50萬人的 黨員을 늘리는 것을 意味하였다.

當時의 肅黨對象은 ① 韓國戰爭 第2段階에 黨員證을 버리고 逃亡한 黨員, ② 正式手續을 받지 않고 安全한 場所로 避身하고 있던 黨員, ③ UN軍占領地域에서 地下工作이나 빨지산鬭爭을 하지 않은 黨員 등이 었다.

“百萬黨員만들기”는 第4次全員會議에서 許哥而를 “反黨分子”로 肅淸한 후 不過 1年間이라는 짧은 期間안에 施行되었다. 그것도 平時도 아니고 韓國戰爭이 絶頂에 달하고 있던 困難한 狀況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극히 異常한 일이 었던 것이다.

이 黨勢擴大運動의 特徵은 다음 세가지로 要約된다. 즉 하나는 51年 10月 全員會議의 肅黨方針에 따라 許哥而 組職部長을 中心으로 推進해 온 肅黨工作의 對象이 되었던 黨員의 “處分取消”作業이다. 이 作業은 51年 9月에서 52年 10月까지

의 1年 1個月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處分을 받은 黨員의 約 30%가 處分이 取消되었다. 當時 處分子는 約 45萬人으로서 그 중 處分이 取消된 자가 約 30%였다고 하며는 約 15萬人임으로 나머지 30萬人은 新入黨員이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百萬黨員만들기”의 重要的 特徵은 黨員의 增員運動이 그의 두번째 特徵이다. 이 黨勢擴張의 結果 “百萬黨員” 중 勞動者 21.1%, 貧農 57.9%, 中農 3.5%, 事務員 16.6%, 其他 1.1%로 되었다고 52年 12月の 黨中央委 第5次 全員會議의 金日成報告에서 밝혀졌다. 貧農 中農을 합하면 農民의 比率이 6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勞動者 比率의 約 3倍가 된다.

北韓勞動黨에서도 農民은 體質的으로 “小生産階級”으로서 組織性도 없고 團結할 수도 없는 意識이 낮은 階級이라고 取扱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후에 金日成은 第5次黨大會報告에서 다음과 같이 논한바 있다.

즉 黨中央委 第4次全員會議以後 黨의 隊列이 急速히 成長한 結果, 이것이 黨의 質的인 면에 影響을 주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리하여 黨의 隊列에 量的 成長과 質的 成長사이의 若干의 不一致가 생긴 것이다.

戰爭期間中 우리 黨의 隊列에는 거의 45萬에 달하는 新入黨員이 加入하였다. 그들의 絶對多數는 政治水準의 면에서도 活動 면에서도 젊은 黨員이며, 新入黨員의 約 半數가 겨우 國文을 解得할 수 있는 程度였다.

이와같은 實情이었기 때문에, 우리黨은 入黨하자 마자 新入黨員에 대한 政治活動을 強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겨우 國文을 解得할 수 있는 程度”라는 것은 거의 文盲에 가깝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와같은 意識이 낮은 農民을 黨勢擴張의 主要한 對象으로 하여 비로소 “百萬黨員만들기”가 實現되었던 것이다.

나머지 하나의 特徵은 이 大量入黨運動이 黨規約에 規定된 新入黨員資格과 手續을 無視하고 強行되었다는 것이다. 이 點에 대해서도 흔히 金日成은 52年 12月の 第5次黨大會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많은 黨組織이 黨의 發展的 事業에서 量的 成長에만 熱中하여 質的 成長面에 注意를 하지 아니한 結果 入黨의 節次를 잘 못하여 黨成長을 위한 活動을 감빠니아方式으로 하였기 때문에 黨의 隊列에 偶然分子나 敵對分子가 침투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咸鏡北道の 一部の 黨組織에서는 닥치는 대로 入黨을 許容하였기 때문에 郡黨委員會에 의해서 入黨이 否決된 자중에 約 70%가 政治的으로 信賴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면 왜 金日成은 이와같이 무턱대고 黨勢擴張運動을 施行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當時 金日成은 無謀한 韓國戰爭의 挑發에 대한 責任追窮에 의해서 權威가 失墜되었을 뿐 아니라 許哥而와 “同盟關係”를 맺은 “南勞黨派”의 朴憲永 등의 批判勢力이 金日成의 權力基盤을 무너뜨리고 있는 危機狀況에 놓여 있었다.

거기서 새로운 權力基盤을 構築하고 다시금 黨에 대한 支配權을 確立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초조감에서 無謀한 黨勢擴張을 施行하게 된 것이다.

게릴라要員 養成을 두려워하다.

金日成은 1952年 12月 15日 勞動黨中央委員會 第5次全員會議을 召集하였다. 1950年의 第3次全員會議에서는 “延安派”의 武亭을, 51年의 第4次全員會議에서는 “蘇聯派”의 許哥而를 매 장시켰다. 이번 第5次全員會議에서는 朴憲永을 中心으로 하는 “南朝鮮勞動黨派”에 대한 大肅淸의 端緒가 된 것이다.

金日成은 1950年 6月 25日에 開始된 韓國戰爭의 無謀한 戰爭計劃과 參전한 敗戰의 結果에 대한 戰爭責任의 追窮에 의해서 그의 威信이 低下됨과 同時에 “南勞黨派”의 朴憲永과 “延安派”의 許哥而의 “同盟”에 대한 危機感이 높아 갔다.

거기서 于先 肅黨工作의 先頭에 있던 許哥而 黨中央組織部長을 肅淸함에 의해서 朴憲永과의 “同盟關係”를 斷切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의 照準은 朴憲永에다 맞춘 것이다.

金日成이 “南勞黨派”의 大肅淸을 決意하게 된 動機는 朴憲永이 副首相 外相을 兼하고 있는 데다 人民軍總政治局長의 자리까지 갖고 權力을 擴張해 가고 있다는 背景外에 朴憲永派가 對南게릴라工作을 準備한 데도 있었다.

朴憲永은 勞動黨連絡部를 對南工作의 參謀部로 擴大하는 한편 武裝遊擊隊와 政治工作隊의 合宿訓練所인 金剛學院에서 게릴라要員을 養成하고 있었다. 그 結果 1952年 9月까지 1,000名을 訓練시키고 武裝을 시켰으며, 이들은 平壤에서 40킬로 떨어진 中和에서 캠프를 치고 待機하기에까지 이르렀다. 黨中央 秘書에 昇格된 “南勞黨派” 李承燁은 이에 滿足하지 않고, 다시금 게릴라要員을 4,000名까지 增員할 計劃을 세웠다.

이와같은 狀況을 바라보고 있던 金日成은 이들 게릴라要員들이 서울을 향해 進擊하는 것이 아니라 平壤을 향해서 進入해 오

지나 않을가 하는 恐怖感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直接的인 動機도 있고 해서 金日成은 급작스럽게 黨中央委員會 第5次全會議을 召集하여 “南勞黨派” 肅淸을 하게 된 것이다.

會議은 52年 12月 15日에 召集되었으나 肅淸의 바람은 이미 2個月半前부터 불기 시작하여 同年 10月初에는 李承燁 등 金剛學院의 關係者들이 金日成의 命令에 의해서 逮捕되고 있었다.

同會議에서 金日成은 “勞動黨의 組織·思想의 強化는 우리黨의 勝利의 基礎이다” 라는 報告를 하면서 “自由主義的 傾向과 宗派(分派)主義者의 殘黨”을 攻擊하였다.

“自由主義的 傾向”에 대한 非難은 다음과 같다.

一部の 指導的 黨活動家は 自己의 일 특히 黨으로부터 부과된 일을 充分히, 忠實히 하지 않고, 黨의 決定과 命令에는 服從하지 않고 自己意見만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親戚關係, 同窓關係, 交友關係 또는 同鄉人이라든가 같은 職場에서 일하였다든가 혹은 南朝鮮이라든가 北朝鮮이라든가 하는 것만을 갖고, 뿌리를 찾고 잎을 찾으면서 個人的으로 모여 그들의 옳치 못한 점을 默過해 주기로 하여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 좋지 못한 現象이 우리 活動家中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이 모두 自由主義的 現象인 것이다.

또 “宗派主義者의 殘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非難하였다.

우리黨內에는 宗派가 없다고 하면서도 宗派主義者들의 殘黨이 아직 남아있다. 黨內에 나타나고 있는 宗派主義의 殘黨은 우리黨의 團結과 統一을 방해할 수가 있다.

宗派主義의 殘黨의 表現은 지난날의 無原則한 派閥鬭爭의 찌꺼기로 存續하고 있으며, 地方主義的 傾向이 있는 分子나 黨

에서 處罰을 받은 分子를 굶어 모아, 成分이 比較的 純潔하지 못한 黨員을 誘或한다든가 個人的 感情으로 끌어 드린다거나 하는 現象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全黨員은 革命的 警戒心과 覺性を 一層 強化함에 의해서 이러한 分子들의 活動을 엄격히 監視하고, 宗派的 行動을 취하는 分子가 우리 黨內에서 조금도 活動할 수 없도록 鬪爭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自由主義的 傾向”이라든가 “宗派主義者의 殘黨”이라 하여도 이것은 抽象的이어서 어떤 人物 어떤 그룹을 가르키는 지가 分明치 않다. 다만 金日成의 報告中에서 단 한마디 “人民民主主義諸國 및 兄弟的 諸友黨의 經驗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만약 宗派分子의 殘黨을 그대로 放置해 둔다면 結局 그들은 敵의 스파이가 되는 길밖에 없을 것이란데 대해서 우리黨은 깊은 注意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金日成의 本心은 여기서 잠깐 엿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百萬 黨員으로 南勞黨派사냥

1952年 12月 15日에 召集된 勞動黨中央委 第5次全員會議에서 朴憲永 등 “南勞黨派”를 直接攻擊 한 것은 金日成이 아니었다. 金日成은 그의 報告에서 “自由主義的 傾向”과 “宗派主義者의 殘黨”을 非難하여 한마디로 “敵의 스파이가 되기 쉽다”라고 한 것 뿐이다.

直接 朴憲永을 攻擊한 責任을 맡은 자는 이미 第4次全員會議에서 許哥而를 肅清할 때부터 訓練을 쌓아올린 “蘇聯派”의 朴昌玉이었다. 朴昌玉은 李承燁(黨中央書記)의 罪狀을 列舉한 후 그 背後에는 朴憲永이가 있다고 攻擊하였다.

會議가 끝난 후 朴憲永은 黨職과 外相職을 빼앗겼으나 副首相의 자리만은 그대로 維持하고 있었다. 이것은 “南勞黨派”의 人脈을 肅清한 후에 朴憲永을 最終적으로 매장하려고 하는 金日成의 計劃에 따른 것이었다.

“南勞黨派”의 肅清에는 農民層을 中心으로 黨勢擴張에 이루어진 “百萬黨員”이 動員되었다. 會議後 各級黨組織에서 第5次全員會議의 文獻을 討議하는 運動이 展開되었다. 그 過程에서는 自然히 “宗派主義” 등 反黨傾向을 暴露하는 “밑으로부터의 批判”이라는 運動이 벌어졌다.

이 “밑으로부터의 批判” 運動에 대해서 1953年 3月 6日 字 노동신문에 掲載된 “黨性強化와 分派主義者들의 摘發에 대하여”라는 論文은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이제 全黨機關과 黨員은 金日成同志의 報告를 研究하고 그것을 實生活속에서 具體化하기 위해서 道市郡黨委員會 總會와 細胞에서 會議를 열고있다. 앞서 열린 黨中央委 第5次總會의 總括을 한 各省의 細胞總會가 보여주는 바와같이 全黨員은 金日成同志의 報告를 指針으로하여 黨을 組織적으로, 思想的으로 強化하기 위해서 各自의 黨性を 檢討하고 小부르조아의 利己主義思想에서 비롯되는 自由主義 및 個人英雄主義的 傾向과 黨의 團結과 統一을 가로막는 分派主義의 殘黨을 清算하기 위해서 強力히 鬪爭하고 있다.

많은 省細胞總會는 黨員들의 要求에 의해서 數日間을 계속 하였는데 會議에 參加한 黨員의 30~70%以上の 同志들이 討議에서 發言을 要求하여, 그중 20~30%가까운 黨員들이 討議를 하였다. 會議에서는 밑으로부터의 批判이 活潑히 展開되었다. 農業省細胞總會에서는 討論에 參加한 黨員中 70%에 該當하는

黨員들이 責任있는 指導活動家들의 不和, 安逸, 黨 및 國家事業에 대한 無責任, 下部에 대한 官僚主義的인 指導 등의 諸缺陷을 暴露하고 이것을 批判하였다.

이와같은 “밑으로부터의 批判” 運動은 勿論 組織된 運動이었다. 이것을 指導한자는 金日成에게 忠實한 “熱誠黨員” 이며 指導의 方向은 “宗派分者, 自由主義分子” 들의 動向을 監視하고 그들의 罪를 容恕없이 暴露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分派主義者” 로서 指目이 된 자는 朱寧河, 張時雨 등 北韓地域 出身도 포함되어 있으나, 主要한 對象으로서는 “南勞黨派” 出身의 李康國, 林和, 金南天, 李源朝, 趙一鳴 등이었다.

또 朱寧河, 權五稷 등 外務省關係者들에게도 攻擊이 集中되었다. 53年 3月 5日附의 「로동신문」에 의하면 外務省細胞總會에서는 一般黨員의 엄중한 討論에 의해서 朱寧河(當時 駐蘇大使)를 黨에서 追放할 것을 黨中央委員會에 提議하도록 萬場一致로 決定되었다는 것이다.

또 權五稷(當時 駐中大使)에 대해서는, 權五稷을 先頭로 하는 몇명의 宗派分者들이 黨과 政府에 대한 人民의 信賴를 어떤 個人에 대한 信賴로 바꾸려하여 黨과 國家에 크나큰 害毒을 주려는 活動을 한 것이 暴露되기 始作하였다 라고 하였다.

朱寧河, 權五稷 등 外務省關係者들에 대한 엄격한 攻擊은 “어떤 個人” 즉 外相인 朴憲永에 대한 攻擊이었음을 意味한다. 이리하여 過去에는 土着共產主義者인 吳琪燮(咸鏡南道指導者)을 “朝鮮의 트로츠키”라 하여 그의 “右翼化 傾向”을 非離하고, 吳琪燮肅淸에 손을 벌린 朱寧河는 金日成의 “南勞黨派” 肅淸의 “祭物”로 된 것이다.

이와같이 해서 朴憲永의 牙城은 金日成에 의해서 하나 하나

무너지게 된 것이다.

### 越北 文學家를 하나 하나 彈壓

金日成의 “南勞黨派” 大肅淸의 손이 同派의 指導者 朴憲永에게 미치기 前에 林和 등 越北詩人 作家에 대한 大規模의 彈壓이 있었다.

林和는 江原道出身의 詩人 및 文藝評論家로 有名하였다. 1926年 朝鮮 프롤레타리아 藝術同盟(카프)에 加盟하고, 32年 4月에 同書記長에 就任하였다.

카프 解散後에는 轉向하였으나 45年 8月 解放과 同時에 “朝鮮文化建設中央協議會”를 만들고, 同年 12月에는 “朝鮮 프롤레타리아 文學同盟”과 合同하여 “朝鮮文學家同盟”을 組織하고 中央執行委員으로 되었다. 그 후 46年 12月에는 文藝總 中央委員을 歷任하게 되었다.

1947年 가을에 越北하여 “朝蘇文化協會” 副委員長이 되었고, 48年 10月 文藝總業務委員으로 南勞黨이나 遊擊隊鬪爭을 讚揚하는 많은 作品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人民鬪爭歌”의 作詩者로서 有名하다.

林和는 그 후의 肅淸裁判에서 “美帝의 雇用스파이”의 혐의로 正式 斷罪되기 전, 53年 3月 14日의 「민주조선」에 게재된 “白日下에 나타난 林和 一派의 罪惡”이라는 題目的 署名 論文에서 다음과 같이 非難을 받았다.

林和는 8.15 解放以後 하루밤사이에 李泰俊 李源朝 金南天 등과같은 分派主義者들과 一體가되어 所謂 “朝鮮文化建設協議會”를 組織하여 이 團體의 目的을 美軍占領下에 樹立된 “우리政府” 文教部의 役割을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또 그는 그의 여러가지 論文에서 우리들의 “民族文學은 階級的이어서는 안되고, 그것은 近代的 意味에서의 民族文學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쓰고 있다. 民族文化建設의 當面한 鬭爭綱領에 대해서는 “日本帝國主義文化의 殘滓의 肅清과 封建的 文化의 打破” 만을 規定하였다.

林和는 8.15 解放後 “文協”의 議長의 地位까지 올라, 카프文學과 進步的 作家 藝術家 등에 反對하여 美軍政에 아첨하기 시작하고 金南天 李源朝 李泰俊 등과 한패가 되어 所謂 聯合軍을 歡迎한다는 美名下에 實은 美軍의 不當한 占領을 歡迎하는 德모를 組織하고 美軍政의 警察學校에서 講演會를 하였다.

統一日報에 連載된 “朝鮮勞動黨略史를 밝히다”의 著者 鄭益友 論說委員에 의하면 林和 등 越北文化人들에 대한 攻擊은 52年에 開始되고 그의 突擊隊의 役割을 한 자는 北韓에서 創作된 文學作品의 檢閱을 한손에 장악하고 있는 內閣直屬의 出版檢閱指導局의 文學·藝術檢閱指導委員出身의 評論家 嚴浩錫(音譯)이었다.

嚴浩錫은 金日成個人崇拜運動에 作家的情熱을 기울임에 의해서 金日成의 총애를 받고 있던 韓雪野의 指示로 「로동신문」에 “典型性的 몇가지 問題에 대하여” 라는 題下의 評論을 揭載해서 金南天 李泰俊 등의 作品을 批判하였다.

嚴浩錫이 批判의 화살을 돌린 것은 林和의 詩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바람아 전해다오” “흰구름을 붉게 물드린 나의 피위에” 등이며, 또 金南天의 短編小說 「蜂蜜」과 李泰俊의 短編小說 「高貴한 사람들」이었다.

金南天은 京畿道出身으로 日帝時代의 카프派에 속한 作品으로 戯曲도 썼다. 8.15 解放後인 45年 12月 “朝鮮文學家同盟”中

中央執行委員을 거쳐, 47년 가을경 林和 등과 만나기 前後해서 越北했다. 48年 8月 北韓의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이 되고, 한동안 創作活動을 멀리 하다가 50年代初 文藝總의 書記長에 登用된 후 北韓에서의 最初の 短編小說 「벌꿀(蜂蜜)」을 發表하여 波紋을 던졌다.

또 李泰俊은 1904年生으로 北滿州에서 幼年時節을 보내고 鐵原에서 少年時代를 지냈다. 日本의 上智大學을 中退하고 「開關」誌 記者 등을 거친 후 自然主義作家로 알려지게 되었다.

45年 8月 林和 등과 “朝鮮文學建設中央協議會”를 組織하고 47年末에 越北하였다. 그 直後 소聯을 訪問 “文章讀本” “蘇聯記行”, 中編小說 “農土”를 쓰고, 北韓文壇에서 不動의 地位를 구축하여 文藝總副委員長도 지냈다.

嚴浩錫은 林和의 詩에 대해서 “後方人民의 英雄的 鬪爭을 전하는 대신에 可憐한 苦役者로서 人民을 描寫하였다. 가령 事實과 現實이 그렇다 하더라도 後方의 父母兄弟는 戰線의 子息을 생각하고 孤獨하다든지 痛哭하다든지 絕望하고 있는 것처럼 描寫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와같이 描寫한다면 그것은 後方의 強固性을 破壞하는 것이고, 黨의 路線을 歪曲하는 것으로 된다”고 非難하였다.

以上은 얼핏보기에 文學論爭과 같았으나 그 實은 “南勞黨派”의 越北作家 詩人 등 文學家를 抹殺하는 肅淸作業의 一環이었던 것이다.

### “南勞黨派”의 檢舉旋風

朴憲永 등 “南朝鮮勞動黨派”에 대한 大肅淸에 관해서 서울의 “共產圈問題研究所”가 1968年 6月에 發刊한 「北韓總鑑

1945 ~ 1968 ]은 “蘇聯派”의 巨物 許哥而追放의 實績을 올리고 金日成으로부터 認定을 받은 “蘇聯派”의 朴昌玉을 責任者로해서 다음과 같은 肅清作業이 着手되었다고 記述하고 있다.

1952年 12月 15日 金日成은 勞動黨中央委 第5次全員會議을 召集하여, “勞動黨의 組織的 思想的 強化와 우리黨의 勝利의 基礎”라는 題下에 報告를 하여, 南勞黨派肅清의 砲門을 여는 同時에 下手人 朴昌玉으로 하여금 南勞黨幹部의 動向과 宗派的 傾向, 會合, 不平不滿 등을 秘密裡에 內査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朴昌玉은 보다더 精神的으로 弱하고 不平不滿이 심했던 詩人 林和를 監禁하고 朴憲永을 中心으로한 南勞黨員의 罪狀을 하나 하나 추켜들어 52年末頃에는 南勞黨派에 대한 大의인 檢舉施風을 일으킨 것이다.

“南勞黨派”에 대한 檢舉開始時期에 관해서 서울의 內外問題研究所發行的 「北傀의 派閥鬪爭史」(1962年 11月)는 “金日成一黨이 南勞黨系首腦의 檢舉를 開始한 것은 1952年 11월부터였다”고 쓰고 있다.

“南勞黨派”大肅清의 推進者가 “金日成·朴昌玉라인”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52年 12월에 社會安全省과 內務省이라는 두개의 治安機關이 統合되고 權限이 擴大 強化된 內務省의 責任者에 方學世가 就任한 것으로 보아서 大肅清의 下手人은 朴昌玉·方學世콤비였다고 보는 見解가 옳을 것 같다.

方學世는 蘇聯의 KGB出身으로서 1930年初에 蘇聯에서 情報教育을 받고 35년부터 45년까지 蘇聯軍 情報機關에 籍을 두는 한편 蘇聯內務人事委員部에도 勤務하였다.

45年 10月 蘇聯軍大尉로 平壤에 들어와 “軍事派遣團”代表者의 資格으로 黨活動을 하였다. 49年에는 北韓內務部 政治保衛局長, 51年 3月에는 社會安全相, 52年 12月에는 社會安全省이 內務省으로 統合되었을 때 朴一禹의 後任으로 內務相을 歷任하는 등 一貫해서 情報 保安機關을 거쳤다.

그러나 60年 12月에는 政治的 過誤로 인해서 內務相에서 解任되어 最高裁判所長으로 左遷되었다가 蘇聯으로 돌아갔다.

그 후 蘇聯側의 壓力으로 方學世는 66年 11月黨中央 連絡局 情報部長, 67年 7月에는 對南事業總局 調查部長을 거쳐 67年 11月부터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으로 되었으나 72年 以後에도 同會議 法案審查委員 兼 中央裁判所長을 兼任함으로써 80年 10月 第6次黨大會에서는 序列 68位의 中央委員으로 選出되었다.

52年 10月부터 開始된 “南勞黨派”에 대한 檢舉旋風의 規模가 어느 程度의 것이었던 가는 分明하지 않으나 이 大肅淸이 일단 終結된 후에 열린 黨中央委 第6次全員會議에서 다음과 같이 除名處分者가 發表된 것으로 보아 檢舉者의 規模를 어느 程度는 알 수가 있다.

즉 最近 黨內에서 發生한 李承燁, 裴哲, 朴勝源, 尹淳達, 趙一明, 李康國 등 反黨 反國家的 스파이徒黨들의 事件과 許哥而 自殺事件이 있었다.

組織問題와 관련해서는, 反黨 反國家的 破壞分子, 宗派分子로 몰린 中央委員 朱寧河, 張時喆, 朴憲永, 金午星, 安基成, 金光洙, 金應彬 등을 中央委員으로부터 除名하고, 追放하였다.

또 “祖國解放戰爭(韓國戰爭)時期에 黨과 國家에 대한 獻身性과 忠實性を 發揮하지 않았다”고 指彈받은 吳在洙, 李天鎮, 趙福

禮, 朴周祥 등을 黨中央委員으로부터 除名하였다.

이와같이 “南勞黨派”의 主役이었던 사람들을 黨中央委員 또는 候補委員으로부터 除名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大部分은 前述한 林和 金南天 등 越北文學家와 더불어 52年末에 始作된 “南勞黨派” 檢舉旋風에 말려들어 逮捕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南勞黨派”의 檢舉者에 대해서는 大的인 “公開裁判劇”을 벌렸다.

#### 李承燁 등 12人을 軍事裁判에

“南朝鮮勞動黨派”에 대한 公開裁判은 肅清旋風으로부터 約 1年後인 1953年 8月 韓國戰爭 休戰直後 平壤의 最高裁判所 特別軍事法廷에서 執行되었다.

그러나 奇妙한 것은 起訴狀에 “朴憲永을 頭目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朴憲永은 이 裁判에서 除外되었다. 被告로서 法廷에 끌려나온 것은 李承燁 등 個人으로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權을 轉覆하려는 陰謀와 反國家的 스파이·테러 및 煽動行爲를 하였다”라는 罪目으로 起訴되었다.

被告 12人은 다음과 같다.

- 李承燁：黨中央委員會秘書，司法相，人民檢閱委員會委員長，서울市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 趙一明：文化宣傳省 副相
- 林和：詩人，評論家，朝蘇文化協會副委員長
- 朴勝源：黨中央委員會 連絡部 副部長
- 李康國：前人民委員會 外務局長，貿易省 一般製品輸出商社社長
- 裴哲：黨中央委員會 連絡部 副部長

- 尹淳達：黨中央委員會 連絡部 副部長
- 李源朝：黨中央委員會 宣傳 煽動部 副部長
- 白亨福：韓國政府 內務部治安局 查察課 中央分室長
- 趙鏞福：人民檢閱委員會 上級檢閱委員
- 孟鍾浩：北朝鮮人民軍 遊擊隊 第1支隊長
- 薛貞植：北朝鮮人民軍最高司令部 總政治局 第7部部員

서울에서 1975年 3월에 出版된 金南植著 「實錄·南勞黨」에 의하면 12被告人에 대한 起訴狀은 다음과 같다.

李承燁 등 12人の 被告는 1945年 8月 15日 解放後 南朝鮮에 上陸한 美軍과 直接 連絡을 취하여 스파이活動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當時 共產黨中央委員會의 政治局員이었던 李承燁은 美特務機關에 重用되어 스파이頭目으로서의 役割을 하여 朝鮮勞動黨 中央政治委員會 委員인 金三龍 李舟河를 傀儡警察에 檢學하도록 指令하였다.

따라서 이 犯罪事實은 李承燁이 1946年 2月 南朝鮮駐屯 美軍司令官 ‘하지’와 連絡을 취하여 美國의 政策을 支持할 것을 保證하였다고 陣述한 데서 明白하게 되었다.

李承燁은 1947年 5月부터는 美國務省이 南朝鮮美軍政府에 派遣한 政治顧問 ‘노블’과 直接 連絡을 취하여 그의 指示에 따라 朝鮮北部에 到着한 후 스파이網을 組織하여 朝鮮勞動黨과 共知國政府의 內部狀況, 人民經濟統計數字 등에 관한 情報를 계속적으로 美特務機關에 提供하였다.

李承燁과 그의 共謀者는 8·15以後 朴憲永의 領袖欲을 利用하여 朝鮮北部에 資本主義의 樂園과 搾取의 自由를 回復하기 위해서 美帝國主義의 援助에 依存해서 賣國政權을 樹立하는 罪惡活動을 하였다. 被告 李康國, 趙一明, 林和, 李源朝 등의 反

徒도 그의 陳述속에서 그들이 같은 目的下에 所謂 “朝鮮人民共和國”의 樹立을 企圖하는 陰謀活動을 하고 있었던 것을 認定하였으나, 그것을 위해서 李承燁은 將來 美軍이 仁川 및 元山에 上陸하였을 때 人民軍의 後方에서 美軍과 呼應해서 暴動을 일으킬 企圖를 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李承燁은 티토와 같은 政府를 樹立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은 그들이 지난날 朴憲永의 집에서 모처럼 計劃한 “新黨”과 “新政府” 組織會議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計劃 (李承燁의 自白)에 따르는 것이었다.

즉 “1952年 9月의 第1日曜日에 自己는 朴憲永의 집 應接室에서 裴哲, 趙一明, 林和, 朴勝源, 尹淳達과 함께 現在의 共和國政府를 轉覆한 후 우리가 樹立하려고 하였는 “新政府”와 “新黨”의 領導者 리스트를 討議 決定하였다”는 것이다.

李承燁의 陳述에서 말하는 “新政府”란 “共和國의 人民民主制度를 轉覆하고 資本家 地主의 利益을 擁護하는 資產階級의 民主政府”(朴憲永의 陳述)인데,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新政府” “新黨” 幹部리스트까지 다음과 같이 內定하였다는 것이다. 즉,

- 首相：朴憲永
- 副首相：朱寧河, 張時雨
- 內務相：朴勝源
- 外務相：李康國
- 武力相：金應彬
- 宣傳相：趙一陽
- 教育相：林 和
- 勞動相：裴 哲

- 商業相：尹淳達
- 黨書記長：李承燁

### 솔직히 美帝스파이를 是認

李承燁 등 “南勞黨派”의 12人被告에 대한 公開裁判에서는 어느 被告도 自己의 “犯罪事實”을 솔직하게 是認하고 嚴罰을 받아드릴 것을 誓約하였다는 것이다.

12人被告中 詩人인 林和에 관해서는 松本清張氏의 「北의 詩人」(1978年 1月 中央公論社刊)에 記述되어 있는 것으로 有名하다.

同書의 “被告 林和의 陳述”에 의하면 林和는 裁判長의 審問에 순순히 自己의 犯罪事實을 暴露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陳述에 의하면, 林和는 카프書記長을 하고 있던 1934年 4月과 5月에 “日帝警察의 彈壓”에 의해서 檢舉되었으나 그는 自己가 先天的으로 “反動”인것 처럼 이 機會를 利用함으로써 一身上의 安全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目的에서 意識的인 思想的 企圖를 갖고 “日帝”와 完全히 結託하였다는 것이다.

8·15 解放後 林和가 文學活動에 參加하게된 것도 순수한 動機에서가 아니라 그 方面에서 指導權을 잡고자하는 野望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것을 위해서 林和는 “朝鮮文學建設中央協議會”를 金南天, 李源朝, 李泰俊 등과 協力해서 組織하고 1945年 12月부터 美軍諜報機關 CIC와 結託하여 祖國과 人民을 팔아먹는 스파이行爲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林和에 의하면 47年 11月에 그가 越北하게 된 것도 李承燁에 의해서 부여된 스파이任務를 遂行하기 위해서, 었다는 것이다.

그 후 그는 朴憲永과 李承燁을 支持하는 文化藝術運動을 推進하는 데도 同意하고, 李承燁으로부터 “ 朴勝源과 連絡하라 ” 는 內容의 任務를 具體的으로 받고, 趙一陽으로부터 스파이資料를 받아서 朴勝源에게 넘겨주는 橋梁役割을 여러차례 하였다 는 것이다.

또 “ 武裝暴動 ” 에 관해서도 林和는 裁判官이나 檢事의 審問에 순순히 自白하였다. 于先 “ 武裝暴動 ” 에 參加하게된 思想的인 必然性을 그는 解放前後를 통해서 그가 행한 反黨的 文化活動, 더우기 個人的 英雄主義와 出世이데올로기에서 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를 包含한 被告全員을 “ 추악한 스파이分子 ” 로 몰아 붙치고, 그들이 “ 美帝侵略者 ” 들을 背景으로 하여 武裝暴動을 組織한 것은 當然하다고 陳述하고 있다.

또한 林和는 自己가 스파이가된 目的에 대해서도 文學方面에서 프롤레타리아의 階級性을 除外하고 美帝의 御用文學으로서의 朝鮮文學을 確立하는 것, 그리고 金日成政權을 轉覆한 후에 組織되는 것으로 되어있는 朴憲永內閣의 教育相이 되는 데 있었다고 하였다.

“ 自己告發 ” 을 한 것은 林和뿐이 아니었다. 金南植著「實錄·南勞黨」에 의하면 裁判長, 判事, 檢事が “ 왜 스파이가 되었는가 ” 라는 質問에 대해서 李承燁 등은 다음과 같이 答변하였다는 것이다.

• 李承燁 : “ 思想的 根本이 나쁘다. ” “ 나는 元來가 惡黨이다 ”

• 李康國 : “ 나는 自發的인 스파이다. 코스모폴리탄니즘의 影響을 많이 받아서 自由主義思想의 殘滓가 濃厚한 데서 그렇게 되었다. ”

檢事로부터 “41年 5월에 李舟河와 함께 勞動組合事件에 加擔하게 된 目的이 무엇인가”라는 質問에 대해서는 “革命을 위해서가 아니라 功名心 政治的 野望에서였다”라고 대답 하였다.

· 李源朝：“(朴憲永을) 南朝鮮人民의 首領으로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出世할 수가 있고”, “個人의 享樂을 느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被告全員이 깨끗하게 “美帝國主義의 스파이”임을 是認하였다. 그것이 너무나도 순순하였기 때문에 實感이 나지 않는다.

過去 스탈린時代의 蘇聯 및 東歐諸國에서 敢行한 모스크바裁判, 브다페스트裁判, 쏘피아裁判, 뿌라하裁判 등에서도 被告들은 모두 “犯罪自白”을 하여 自己自身을 “帝國主義의 스파이” “人民의 敵”, “反黨反革命分子”라고 “告發”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肅淸裁判은 오늘날에는 모두가 操作된 것이라는 것이 歷史적으로 證明되고, 名譽回復을 추진하고 있다.“南勞黨派”의 肅淸裁判도 被告들이 “지나칠 정도로 순순히 自白하였다”는 점으로 보아서 이것 亦是 操作되었다는 점이 濃厚한 것이다.

### 李承燁등 10人에게 死刑判決

“南朝鮮勞動黨員” 12人의 幹部에 대한 肅淸裁判은 1953年 8월에 斷行되어 10人에게 死刑, 尹淳達과 李源朝 두사람은 各 15年과 20年의 徵役刑이 宣告되었다.

12人의 被告中 가장 指導的 地位에 있었던 李承燁은 死刑이 宣告되어 處刑되었다. 李承燁은 南韓의 京畿道出身으로서 1925

年 第1次共産黨事件으로 日本官憲에게 檢舉되어 5年間 服役하였다. 解放後 朴憲永과 連絡을 취하면서 地下活動에 從事하다가 또다시 逮捕되어 數年間の 服役後 解放되었다.

1945년에 朝鮮共産黨(再建派) 中央常務委員과 46년에 同黨機關紙「解放日報」主筆을 歷任하고, 同年 10月 南朝鮮勞動黨中央常務委員이 되었다. 越北後인 48年 8月에는 第1次 金日成內閣의 司法相에 就任하였다. 韓國戰爭初期에 서울시 臨時人民委員會 委員長을 지내고, 52年 5월에 人民檢閱委員會 委員長의 要職을 맡았으나, 53年 8月 “美帝의 間諜”으로 死刑을 宣告받고 處刑되었다. 그의 經歷으로 보아서 “美帝의 間諜”이었을 可能性은 희박하고 이것 亦是 平壤肅淸裁判所가 “操作”하였다는 印象이 강하다.

肅淸裁判에서 12年の 刑을 宣告받은 李源朝는 服役中인 55年 3月 獄死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源朝는 1909年 慶尙北道 安東郡出身으로 35년에 日本法政大學을 卒業하였다. 39년까지는 「朝鮮日報」記者 및 評論家로 活躍하였다. 8·15解放後 朝鮮共産黨에 入黨하였고, 46년에는 南勞黨中央委員, 南朝鮮文藝總中央委員 및 「現代日報」主筆이 되었다.

47년에는 越北하여 海州 第1印刷所 編集局長과 52年 8月에는 勞動黨宣傳煽動部 副部長에 任命되었다가 53年 8月 “南勞黨派” 肅淸裁判에서 “美帝의 間諜”의 罪名으로 12年刑을 받고 服役中 獄死하는 運命이 되었다.

詩人이 林和는 自殺未遂로 發表되고 있다. 金南植의 「實錄·南勞黨」에 의하면 裁判長은 林和를 審理함에 있어서 앉아서 陳述할 것을 許容하였는데, 그 理由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즉 “林和는 拘置場에서 自殺하려고 안경알을 깨어 오른손 動

脈을 끊었기 때문에 出血이 매우 심하여 人事不省이 되었다. 그래서 大量의 輸血을 했기 때문에 生命은 건졌으나 그로 인해서 몸이 매우 衰弱해졌다”라는 것이다.

53年의 “南勞黨派” 肅淸裁判은 “公開裁判”이라고는 하지만 林和는 公開裁判에서 審理되지 않았다. “美帝의 間諜”이라는 것을 堂堂히 自己告發을 하였다는 林和가 自殺을 기도하였다는 말도 우수한 이야기다.

따라서 “自殺未遂”의 公表는 林和가 取調를 받는 過程中 人事不省이 되도록 拷問을 당했다는 事實을 숨기기 위한 坎푸라치의 可能性도 있다. 當時 平壤政權機關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北韓의 內務省 審問官이 平壤郊外の 洞穴속에 만들어 놓은 取調室에서 被告에게 拷問을 하였다고 證言하고 있다.

北韓에서 過去 國家計劃委員會 中央統計局 統計部長이었던 金定基氏가 1967年 서울에서 出版한 「密派」에 의하면 內務省 審問室이 南勞黨派의 肅淸裁判의 被告에게 拷問과 고통을 준 場所는 平壤郊外の 竟城(現在 平壤特別市竟城區域)의 洞穴이었다고 證言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이 肅淸裁判을 “民主的인 裁判”이라고 宣傳하기 위해서 被告에게 이것을 陳述시키는 手法을 쓰고 있다. 「實錄·南勞黨」에 의하면 被告의 한사람인 白享福은 最終陳述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즉,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豫審과 公判에 있어서 악랄한 仇敵인 나를 人間的으로 取扱해 주었고, 그리고 이 法廷에서도 나에게 最後까지 陳述의 機會를 주어 民主主義的이고 高尚한 法律制度에 의해서 完全한 自由가 保障되었다는 점이다”라는 것이다.

12年의 徵役宣告를 받은 李源朝의 最終陳述도 “나는 檢事の

寬大한 論告를 지난날의 思想根源을 改變하는 教育的 契機로 하여 試練을 통해서 반드시 改悛할 것을 誓約한다. 이번 公判을 契機로 自己의 思想을 改造하고 반드시 祖國과 人民앞에 再生할 것을 굳게 盟誓한다”라고 하여 裁判의 寬大함을 強調하고 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機械的이라 할 수 있겠다.

### 2年4個月後 朴憲永 10時間 秘密裁判

李承燁 등 南勞黨派의 12人被告의 肅清裁判이 1953年 8월에 斷行되어 10被告에게는 死刑, 2被告에게는 15年과 20年の 懲役刑이 各各 宣告되었다. 그러나 “南勞黨派”의 最高指導者 朴憲永은 이 肅清裁判에서는 除外되었다. 朴憲永에 대한 裁判은 李承燁 등이 處刑되고 나서 2年 4個月後인 1955年 12月 15日에 執行되었다.

더우기 12人被告의 公開裁判과는 달리 朴憲永의 境遇만 非公開의 秘密裁判에 회부되어, 死刑判定이 내렸다는 것만 公表되었다.

왜 朴憲永만이 2年 4個月 늦게, 그것도 秘密裁判에 회부되었는 가. 그리고 이 裁判이 어떻게 進行되었는 지는 아직도 미궁에 부쳐있다.

北韓의 最高裁判所의 公判文獻이 1970年 7月 서울 高麗大學出版部에서 發刊된 方仁厚著 「北韓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에 引用되고 있으며, 그의 正式 타이틀은 「美帝國主義雇用間諜 朴憲永, 李承燁徒黨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政府轉覆陰謀와 間諜事件公判文獻」으로 되어있다.

同文獻에 의하면 朴憲永裁判은 1955年 12月 15日 午前 10時부터 開廷되었다. 李承燁 등 12被告에게 한 것과 같은 形式

的인 辯護士도 없이, 裁判은 公判審理, 國家檢事의 論告, 被訴者 朴憲永의 最終陳述의 순으로 進行되어 同日 午後 8時에 判決이 내려지는 超速的인 裁判이었다.

朴憲永의 罪狀에 대한 起訴內容은 75年 3月 서울에서 發行된 金南植 著 「實錄·南勞黨」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朴憲永은 1919年頃 美國人 宣教師 언더우드와 交際하면서 崇美思想을 갖게되고, 1925年 11月初에 日帝警察에 逮捕되어 變節하여 “朝鮮共產黨과 朝鮮共產青年同盟” 組織의 秘密을 日本警察에 密告하였다. 1939年 9月에는 大田刑務所에서 日帝앞에 革命運動을 完全히 放棄하고 忠誠을 다 할 것을 盟誓하는 思想轉向을 表明하여 出獄하였다.

朴憲永은 39年 10月 美情報機關의 間諜 언더우드와 만났는데, 이 때부터 美帝國主義者의 間諜이 될 것을 決意하였다.

45年 8月 15日 朝鮮이 日帝로부터 解放되자 美國의 間諜機關의 指令을 계속 實踐할 것을 決意하여 同年 9月부터 여러 차례에 거쳐 南朝鮮駐屯 美軍司令官 훗치와 密會하고 그의 指令으로 朝鮮人民의 愛國的 民主力量을 壓殺하기 위해서 各種의 謀略과 害毒的인 活動을 展開하였다.

朴憲永이 越北한 것도 美帝의 指示에 의한 것이었다. 그는 間諜活動을 効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 黨과 政權機關, 朝鮮人民黨을 비롯해서 主要機關內部에 間諜을 潛入시키고 그의 活動을 庇護하고 指導하였다.

祖國解放戰爭이 勃發하자 朴憲永은 反黨的 反政府陰謀를 점점 激化 擴大시켜 드디어는 武裝暴動의 總司令官에 李承燁을 任命하고 그들로 하여금 黨과 政府를 轉覆시킨 후 朴憲永을 首班으로 하여 美國에 隸屬하는 資本家 地主階級の 利益을 保障하

기 위한 新政府를 樹立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政府는 漸次 李承晩政權과 聯合된 運命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朴憲永은 左翼政黨으로서의 新黨組織도 劃策하여 그 黨의 總秘書에 李承燁을 내세우기로 決定하였다.

또 한편 이 起訴內容에 대해서 朴憲永은 崔庸健裁判所長의 質問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對答하였다.

즉, 新政府와 新黨組織에 관한 것과 武裝暴動의 陰謀에 直接 參加하기로 하고 그와같은 犯行을 組織 指導한 事實이 없기 때문에 이 部分에 대한 責任을 지는 것은 困難하다.

그리고 最後로 말하고 싶은 것은 나의 共犯者들인 李承燁 등의 新政府組織陰謀나 武裝暴動의 陰謀에는 나는 直接 參加하지 않았으나, 나의 밑에서 犯罪活動을 해 온 자들이라는 점에서 자신에게 責任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이 朴憲永의 陳述은 分明히 新政府, 新黨의 組織과 武裝暴動의 陰謀라는 두가지에 관한 罪狀을 否定한 것이다.

### 朴憲永의 處刑을 強行

“南朝鮮勞動黨派”의 指導者 朴憲永에 대한 秘密裁判에서 朴憲永의 最終陳述은 起訴內容中 新政府와 新黨의 組織에 관한 것과 武裝暴動의 陰謀를 꾸밈다는 두가지 犯罪事實을 否定하였다.

그리고 “美帝의 間諜”이라는 罪狀에 대해서는 그것을 否定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朴憲永에 대해서 “美帝間諜”이라는 罪狀을 立證하기 위해서는 新政府와 新黨의 組織 및 武裝暴動의 陰謀라는 두가지 “犯罪事實”은 그의 核心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朴憲永은 “美帝間諜”이라는 것은 是認하면서도 두가지 “犯

罪事實”을 否定하는 態度를 취하였다. 그것은 “美帝間諜”을 立證하게 되는 두가지의 “犯罪事實”을 否定함에 의해서 事實上“美帝의 間諜”이라는 罪狀 그 自體를 否定하고자 하는 朴憲永의 意圖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12人被告에 대한 肅清裁判과 朴憲永裁判간에는 큰 差異가 보인다. 後者는 前者의 裁判보다 2年 4個月이나 뒤에 斷行되었으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것이 秘密裁判이고 더우기 不過 1日이라는 超速的인 裁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金日成은 왜 2年 4個月이나 時間을 끌다가 1955年 12月이 되어서야 朴憲永을 급작스럽게 매장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는 가하는 疑問을 갖게된다.

그 背景으로서는 우선 첫째는 朴憲永의 影響力이 점차 커가기 때문이었다. 그의 영향력에 대해서 서울의 北韓研究所長 金昌順氏는 1961年 3月에 出版한 「北韓 15年史」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즉, 朴憲永의 이름과 勢力은 北韓勞動黨內部에서도 대단한 것이었다. 朴憲永은 肅清할 順番이 다가왔으나 그를 李承燁과 함께 殺害하게 된다면 朴憲永을 따르던 南勞黨員 全員의 決死的인 反抗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過去에 朴憲永이 同志였든지, 影響을 받은 黨員들까지도 그에 合流할 可能性이 있었기 때문에 朴憲永의 肅清을 李承燁의 肅清과 떼어서 進行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 金日成의 計略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朴憲永은 取調를 받을 때, 金日成의 計略을 맹렬히 批判하였다는 것이다. 62年 11月 서울의 內外問題研究所가 發行한 「北傀의 派閥鬭爭史」는 朴憲永의 金日成批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즉, 金日成은 (南勞黨系) 總領袖格인 朴憲永에 대해서는 李承燁과 同一하게 取扱할 수가 없어서 別途로 監禁해서 罪名을 捏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朴憲永은 拘禁中에도 不拘하고 露骨的으로 金日成의 南侵의 罪狀과 南侵前의 金日成과의 南侵에 대한 秘密謀議事實까지 暴露하여 罪없는 南勞黨員幹部에 대한 虛偽罪狀 捏造를 天人共怒할 凶策이라고 糾彈하였다.

이리하여 2年 4個月에 時間을 끌었음에도 不拘하고 金日成은 朴憲永을 完全히 屈服시키지를 못하였다. 그리하여 더 以上 時間을 끌어서는 안될 段階에 이르렀다는 것이 第1의 背景이 될 것이다.

두번째 背景으로서는 스탈린이 53年 3월에 死亡하자, 蘇聯에서는 마렝코프 政權이 樹立되고, 53年 7월에는 베리야副首相 兼 內相이 黨에서 除名되었으며, 12월에는 “피의 大肅淸”에 關聯된 사람들에게 責任을 물어 銃殺刑에 처하였다. 또 53年 9월에는 마렝코프가 失脚하고 후르시초프가 黨第1書記에 就任하였다. 그리고 56年 2월에는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에서 후르시초프에 의한 스탈린批判이 일어나는 등 소련에서는 一大變動이 進行되고 있었다.

이와같은 蘇聯의 “解氷”은 北韓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金日成이 朴憲永에 대한 “秘密裁判”을 단 하루사이 에 해 치운 것은 55年 12月 15日, 후르시초프가 스탈린批判을 한 第20次 소련共產黨大會로부터 不過 2個月前이었다.

金日成은 소련의 解氷으로 인해서 스탈린主義的인 “肅淸裁判”은 앞으로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朴憲永의 處刑을 서두른 것이다. 따라서 蘇聯의 “解氷”에 逆行되는 金日成의 肅淸裁判의 強行은 韓國戰爭에 志願軍을 보내고, 北韓에 그대로 駐屯하고

있는 中共軍의 存在가 金日成의 “蘇聯離脫”에 勇氣를 불려일  
 으켜 주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이러한 蘇聯의 大變化가 그  
 背景의 또 하나의 要因으로 作用하게 된 것이다.

### 南勞黨員의 殘黨사냥 始作

“南朝鮮勞動黨派”의 指導者 朴憲永에 대한 “1日秘密裁判”  
 에 의한 處刑이 끝나자 金日成은 “南勞黨派”의 殘黨肅清에 着手하  
 였다.

서울의 共產圈問題研究所가 1968 年에 發行한 「北韓總鑑  
 1945~1968」에 의하면 이 殘黨肅清은 다음과 같이 展開되었다.

즉, 李承燁, 朴憲永 등 南勞黨系 巨物을 肅清한 金日成은 同  
 系 中堅幹部 및 下級黨員에 이르기까지 하나 하나 肅清하기 始  
 作하였다. 그는 南勞黨系幹部들을 中央黨學校 第1分校, 第2分  
 校에 收容 監禁하고 肅清對象人物을 3種類로 나누었다. 第1種  
 類에 속하는 자는 지금 若干의 利用價値가 있는 말하자면 反動  
 的 要素가 없다고 생각되는 層에서 選定되었다.

그들은 長期의 思想教育目的을 위해서 開城에 있는 “松都政  
 治經濟大學”을 비롯해서 各級學校에 入學시켰다. 그 중에서도  
 가장 利用도가 높은 자를 골라서 30~40人은 中央黨學校에 入  
 學시켰다.

松都政治經濟大學은 韓國戰爭 休戰直後 “南勞黨系” 肅清의  
 餘波를 없애기 위한 目的에서 開城에 設立된 勞動黨中央直屬의  
 黨學校로서, 이 大學은 4年制로 南韓出身黨員에 대해서 金日  
 成과 黨中央에 忠誠을 다하도록 하는 政治思想教育을 實施하였  
 다. 서울의 共產圈問題研究所가 71年 2月에 發行한 「北僞用  
 語解說事典」에 의하면 創設當時 同校는 每年 2千人的 南韓出

身黨員이 入學되었다고 한다.

第2種類에 속하는 자는 利用價値는 없어도 反動的 氣色을 보이지 않는 자로서 그들은 주로 強制勞動場에 配置되었다.

끝으로 第3種類에 속하는 자는 利用價値가 없을뿐 아니라 周圍에 나쁜 영향을 미칠 念慮가 있다고 判斷되는 자로서 이들은 모두 拘禁 또는 處刑시켰다.

金日成은 “南勞黨派” 殘黨의 肅淸에 있어서 같은 “南勞黨派” 人物을 利用 하였으며, 한번 利用하고 그 以上 利用價値가 없어지면 또 같은 手法으로 그들을 處斷해 버리곤 했다.

「北韓總鑑」에 의하면 權五稷(前駐中國大使)은 內務省 審問官의 肉體的 精神的 拷問을 이겨내지 못하였고, 李康國(前人民委 外務局長), 趙一明(前文化宣傳省 副相) 등과 함께 朴憲永의 “秘密裁判”의 證人으로 出廷하여 朴憲永이 “美帝間諜”임을 證言하였으나, 그 直後 平安北道の 朔州農場으로 追放되고 드디어 行方不明이 되었다는 것이다.

「統一日報」의 連載 “朝鮮勞動黨略史를 밝히다”는 “南勞黨派” 殘黨의 肅淸노름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즉, 李康國과 趙一明은 朴憲永에 대한 “美帝間諜”의 證言을 強要받았으나, 證言이 끝남과 同時에 銃殺당하였다는 것이다.

李承燁의 義父인 安基成(生産共同組合中央委 副委員長)은 李承燁이 肅淸裁判에 끌려가기를 前後해서 內務省에 逮捕되어 平壤敎化所(刑務所)에 投獄되었으나 도리어 獄中에서 病死하였다고 전해졌다.

新義州教育大學長이었던 金午星, 作曲家인 金順南(林和 作詩 “人民抗爭歌”의 作曲家)은 強制勞動場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地方出版社의 雜夫로 혹사 당하였다고 한다.

또 李承燁直系로 越北後 第1次金日成內閣의 副相을 歷任한 金點權(前南勞黨 京畿道黨委員長)은 內務署員에게 逮捕되기 전에 스스로 自殺하는 悲慘한 最後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商業省 副相인 金光洙(前 南勞黨總務部長)는 內務署員의 손에 의해서 銃殺당하였다고 한다. 作家의 金南天은 逮捕되어 平壤教化所에 投獄되었으나 그후 그의 消息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南勞黨의 前 軍事責任者였던 李重業(光州刑務所에收監中 李康國의 系列에 의해서 脫出에 成功하여 越北함), 玄에리스(1930年代初 上海時代에 알게된 朴憲永의 知人 革命家 玄某氏의 딸로서 48年 北韓政權成立後에 北韓으로 들어가 朴憲永의 秘書를 맡았다.), 그리고 北韓人民委員會 初代事務長이었던 韓炳玉, 朱寧河, 張時雨 등 모두가 行方不明이 되었는데 이들은 銃殺 내지는 強制勞動場에 끌려갔다는 것이다.

孟鍾鎬와 金應彬이 指導하고 있던 “朝鮮人民遊擊隊”의 第11支隊 및 金剛學院은 “武裝暴動”의 據點이었다고 糾彈되었으나, 서울의 內外問題研究所가 1962年에 發行한 “北傀의 派閥鬭爭史”에 의하면 孟鍾鎬는 逮捕되고, 金應彬에게 逮捕令이 내리자 同支隊員들과 學院生 50餘名은 嚴格한 思想檢討를 받은 후 이들은 모두 平安北道の 鐵山, 咸鏡北道の 阿吾地炭鑛, 大倫洞의 鑛山 等地의 勞動者로 集團의으로 配置되었다는 것이다.

### 家族 親族에 대한 苛酷한 虐待

北韓의 肅淸史上 “最大의 規模”(金昌順, 北韓研究所長)라고하는 “南朝鮮勞動黨派”에 대한 肅淸은 幹部, 黨員에 대

한 逮捕 拘禁 處刑 및 強制勞動뿐만 아니라 그의 家族이나 親族들에게도 苛酷한 학대가 가해졌다.

서울의 內外問題研究所가 1962年에 出版한 「北傀의 派閥鬭爭史」는 南勞黨派의 家族들에게 가한 苛酷한 처사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즉, 南勞黨系幹部中에서 逮捕 拘禁된 자들의 家族은 모두 一定한 場所에 收容하여 重勞動에 從事시켰다. 一般幹部級의 家族들로 製紙工場, 고무工場, 絹紡織工場의 職工으로서 強制的으로 配置되어 一舉手 一投足を 監視받는 要視察人物로서 갖은 虐待를 받았다. 그리고 最後에는 그들중 많은 사람은 強制勞動 收容所에 集團으로 送置되어 一生을 監禁生活속에서 보내는 길 밖에 없었다.

그러면 “南勞黨派” 幹部의 家族 親族들은 어떠한 處遇를 받았는 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南勞黨系 最高指導者 朴憲永의 家族에 대해서 서울의 共產黨問題研究所가 1968年에 發行한 「北韓總鑑 1945 ~ 1968」에 의하면 朴憲永夫人은 朴憲永의 審問中에는 그와 함께 한때는 平安北道鐵山郡의 어떤 家屋에 隔離되어 있었으나 朴憲永의 處刑後에는 곧 鴨綠江附近에 있는 平安北道の 和豐鑛山으로 追放되어 鑛婦로서 強制勞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朴憲永은 아들이 없어서 朴錫久를 養子로 맞이하여 그를 모스크바에 留學시켰으나 朴憲永의 處刑과 함께 그도 亦是 追放된 것이다. 內務署員은 朴錫久가 追放될 때 朴憲永의 運轉手까지도 處罰하였다고 한다. 朴錫久는 모스크바 留學時 玄七鍾(農民同盟 副委員長)의 딸과 사랑하여 結婚까지 하였는데, 玄七鍾도 後日 批判을 받고 最高人民會議常務委員會 副委員長자

리에서 쫓겨나 濟島의 農場으로 流刑당하였다.

松本淸張氏가 「北의 詩人」에서 묘사한 詩人 林和의 夫人 池河蓮(詩人)은 남편이 死刑을 宣告받았을 때 中國東北地方에 살고 있었으나 處刑宣告後에 平壤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그녀는 黨과 政府機關을 訪問하여 자기 남편 林和를 만나게 해 줄것을 哀願하였으나, 남편의 面會는 고사하고 그녀 自身도 돌아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서울의 綜合雜誌 「思想界」(64年 8月號)에 게재된 李喆周의 “北韓의 作家, 藝術人들”에는 林和夫人의 問題를 이렇게 쓰고 있다.

즉 池河蓮은 林和가 이슬로 살아지고 나서 몇달 후에 平壤으로 돌아왔으나 그녀 남편의 屍體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半狂人이 되어 치마끈도 풀어진채로 미쳐서 平壤市內를 헤메이게 되었다.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 女子가 林和의 夫人이다.”라고 속삭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平壤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가 없었다. 反動分子로서 處刑된 자의 夫人에게 同情한다는 것은 人間的인 同情보다도 思想的인 同情이 先行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黨으로부터 批判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李源朝의 夫人 李貞媛과 그의 딸 朴東淑도 李源朝가 53年 平壤敎化所에서 獄死한 것을 몰랐다. 李喆周의 「北韓의 作家 藝術人들」에 따르면 王族出身의 美貌의 李貞媛은 남편이 投獄되자 “江界美人”으로 有名한 平安北道(現在는 慈江道에 속함)의 江界市에서 고무工場의 勞動者로 되고, 當時 2才의 딸 李東淑은 大學을 中退하고 母親과 마찬가지로 江界에서 給

養管理所 店員으로 일하게 되었다.

朴憲永 밑에서 外務省 아시아局長을 歷任하고 한때 北韓大使館에도 勤務한 바있는 宋性撤의 夫人 呂燕九(呂運亨의 長女)는 남편이 “美帝間諜” 容疑로 逮捕되고 審問을 받았기 때문에 社會的 制裁를 받아 一定한 職場에 就職도 안되고 生活苦와 病으로 지내다 그 후에는 消息不明으로 전해지고 있다.

李康國의 딸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出版된 蘇貞子氏의 「내가 返逆者이나」에서 전해지고 있다. 蘇氏는 平壤醫科大學 附屬 結核病院에 入院하고 있을 때 同室의 患者였던 金日成大學의 女學生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즉 李康國이 處刑될 무렵 그의 딸은 金日成大學의 卒業班學生이며, 蘇聯留學을 推薦받은 秀才로서 美人이었다. 大學當局은 그녀에게 父親의 罪狀을 暴露하고 黨앞에서 一身의 潔白을 밝혀줄 것을 強要받았다. 그 結果 李康國의 딸은 金日成大學 講堂에서 열린 學生集會에서 父親을 告發하였다. 그러나 蘇聯에 留學이 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얼마되지 않아 金日成大學도 그만두고 國營農場의 勞動者로 轉落되고 말았다.

### 肅淸 犠牲者는 約5萬名

1953年 8月 李承燁 林和 등 “南朝鮮勞動黨派”에 대한 大肅淸은 55年 11月の 朴憲永裁判後 “南勞黨派” 幹部, 黨員과 그의 家族 및 親族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하게 미쳤다. 서울의 專問家들은 肅淸의 犠牲者는 約5萬名에 달할 것이라고 推計하고 있다.

“南勞黨派”는 韓半島에서 共產主義運動의 主流를 形成하고 있었다. 指導者 朴憲永은 1900年 忠淸南道 禮山에서 出生하여

京城第1高等普通學校를 卒業하였다. 1919年의 3.1獨立運動後 上海로 건너가 高麗共產青年同盟에 加入하고 그 후 國內로 돌아왔으나 新義州에서 日本警察에 逮捕되어 1年半을 服役하였다. 1925年 12月 第1次朝鮮共產黨事件으로 檢舉되었으나 31년에는 精神障害로 假裝하여 保釋되어 再次 上海로 건너가 朝鮮共產黨의 再建에 힘썼다.

33년에 再逮捕되어 39년까지 서울의 西大門刑務所에서 服役하였다. 出所後에 地下運動에 從事하여 日本官憲의 추적을 피해서 光州의 벽돌工場의 勞動者로 일하다가 8.15解放을 맞이한 國內共產派의 巨물이 되었다.

解校後 그는 45年 9月 朝鮮共產黨(再建派)의 責任秘書에 就任한 것을 비롯해서 南朝鮮勞動黨 副委員長, 南北 勞動黨의 合黨後 朝鮮勞動黨 副委員長 및 北韓 政權의 副首相 兼 外相을 歷任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一貫해서 金日成에 의해서 排除되어야 할 라이벌로 간주되어 52年 8月 “美帝의 間諜”으로 몰려 黨에서 除名되고 55年 12月 秘密裁判에 회부되어 死刑宣告直後에 處刑되었다.

金日成이 滿州에서 中國共產黨員으로서 그의 指令에 따라 活動하고, 滿州에서 中國共產黨活動이 壞滅된 후 蘇聯領으로 도망하여 1945年 8月 15日 解放을 蘇聯領에서 맞이한 것과 비해보면 朴憲永이야말로 朝鮮共產主義運動의 主流의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蘇聯軍將校로서 平壤에 들어와 蘇聯軍에 의해서 北韓의 指導者로 오르게된 金日成으로서는 朴憲永과 南勞黨派는 自己 눈위의 禍과 같은 存在일뿐 아니라 그것은 同時에 金日成이 反日民族鬪爭의 英雄이 아니라는 事實을 누구보다도 잘 알

고 있는 系派였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金日成의 憎惡感과 危機意識도 결국 극심하였음에 틀림없다. 그렇치 않고서는 南勞黨派의 幹部 黨員 그의 家族 및 親族들에 대한 苛酷한 大肅清事件에 대해서는 도저히 理解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大肅清을 кам푸라쥐하기 위해서 金日成은 “南勞黨派” 肅清直後인 1953年 8月 5日 勞動黨中央委員會 第5次 全員會議에서 選出된 黨中央委 常務委員會 委員으로 “南勞黨派”를 남겨 놓았다. 崔元澤은 慶尙北道大邱出生으로 日帝時代에 第1次 共產黨事件에 關聯되어 東京으로 도피하였다. 그 후 朝鮮共產黨 滿州總局 組織責任者로서 活動中에 逮捕되어 6年間을 服役하였다. 8.15解放後 朴憲永 등과 朝鮮共產黨을 組織하여 同黨 中央委員을 歷任하였으며, 越北後에는 53年 8月 勞動黨中央委 常務委員을 거쳐 57年 9月에는 最高人民會議 議長으로 選出되었다.

이와같이 金日成은 “南勞黨派”의 大肅清의 이미지回復을 위해서 南勞黨派의 崔元澤을 黨中央常務委員으로, 그리고 李仁同, 朴文圭, 許成澤, 丁七星 그리고 宋乙殊 등을 各各 黨中央委員 또는 候補委員으로 남겨 놓았다.

內閣게도 “南勞黨派”의 李炳南(保健相), 朴文圭(國家檢閱相), 許成澤(石炭工業相), 李基錫(都市經營相)등에게 계속 일을 맡겼다.

그러나 이것도 잠간동안 이었다. 實權도 없는 最高人民會議議長을 지낸 崔元澤은 67年 그의 職責에서 解任되고 第6次黨大會에서는 黨中央委員에도 選出되지 못하였다. 李仁同도 64年에 勞動黨出版社의 部長으로 格下되었다가 그 以後에는 消息이 끊겼다.

許成澤, 李基鎬, 李炳南, 丁七星 등은 59年の 蘇聯派, 延安派 大肅淸에 말려들려 “南勞黨派” 殘黨으로 뿌리까지 肅淸되고 말았다.

最後까지 살아 남은 朴文圭는 그 후 地方行政相, 內務相, 國土管理相 그리고 最高人民會議 書記長 등을 歷任하고 70年 11月の 第5次黨大會에서는 黨中央委員에 選出되었으나 그 후 死亡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南勞黨派”의 根絶은 金日成의 執念이 무시 무시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거기에는 權力의 正統性을 갖지 못한 指導者가 自己 自身을 必死的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데서 “귀도 막다른 고양이를 문다”는 식으로 無慈悲한 肅淸을 斷行하였다고 생각된다. 그 第1次段階가 지금까지 分析 檢討한 “南勞黨派”의 大肅淸이었으며, 또 이 肅淸이 없었다면 오늘의 金日成主席은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南勞黨派”의 肅淸은 그 밖의 다른 黨派閥 系列에 不安과 警戒를 불러 일으켰다. 이리하여 아직도 金日成의 權力의 正統性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또다른 派閥系列에 대한 肅淸이 必然的으로 일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肅淸의 물결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 肅清의 歷史(中)

### 스탈린 批判으로 衝擊

1953年 3月 蘇聯의 스탈린이 죽은 直後인 同年 8월에 金日成은 “南朝鮮 勞動黨派”에 대한 大肅清의 第一段階로서 李承燁 林和 등 12人被告의 肅清裁判을 強行하였다. 이 “南勞動黨派”에 대한 肅清事件은 55年 12月の 朴憲永肅清裁判으로 거의 完決을 보았다.

바로 그 무렵 蘇聯 및 東歐諸國에서는 “非스탈린化 運動”이 싹트기 始作하고 있었기 때문에 北韓에서는 그것과는 아주 對照的으로 “스탈린式의 肅清”이 強行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56年 2月 蘇聯共產黨 第20次 黨大會에서 후르시초 第1書記가 宣言한 “스탈린批判”은 “北朝鮮의 小스탈린”인 金日成에게 크나 큰 衝擊을 주게 되었다. 그의 衝擊은 中共의 毛澤東主席이 받은 것보다 더욱 強한 것이었다.

北京은 蘇聯共產黨大會 直後, 黨批判의 言論自由化 “百花齊放·百家爭鳴”을 黨內外에 呼訴하여 共產黨과 民主諸派內의 “長期共存·相互監督”을 提唱하여 모스크바로부터의 “衝擊波”를 어느程度는 抑制하였다. 이때 平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北韓勞動黨 代表로서 蘇聯共產黨大會에 參席한 崔庸健(當時 黨中央委 副委員長 그후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長)은 56年 3月 20日 平壤에서 開催된 黨中央委 全員會議에서 歸還報告를 함에 있어서 蘇聯共產黨大會의 狀況을 그대로 報告하였다. 서울의 北韓問題研究所長 金昌順氏에 의하면 崔庸健團長과 同行한 사람은 李孝淳과 許彬으로서 崔庸健報告는 “誇張도

過小評價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報告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報告에는 當然히 스탈린의 個人崇拜, 獨裁政治에 대한 批判이 包涵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報告는 다음 두 가지 問題를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된다.

즉 그 하나는 스탈린路線을 그대로 踏襲해 온 金日成에게 危機感을 줌과 同時에 金日成으로 하여금 강력한 自己防禦本能的인 衝擊을 받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當然히 金日成에게 있어서 自己의 個人崇拜와 獨裁政治에 대한 批判勢力들을 敵對視하고 排除하고자 하는 必要性을 느끼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韓國戰爭의 無謀한 發勃과 參전한 敗戰의 責任을 追窮받고 영향력이 약해진 金日成이 그의 危機意識과 自己防禦本能에서 53年 朴憲永을 中心으로 하는 “南勞黨派”의 大肅淸을 斷行하였던 것과 같은 것이다.

또 하나의 問題는 金日成의 個人崇拜 및 獨裁政治에 批判적이었던 勢力들에게 勇氣를 주었다는 것이다. 黨內批判勢力에는 崔昌益(副首相)을 中心으로 하는 “延安派”와 朴昌玉(黨中央委 副委員長 및 副首相)을 代表로 하는 “蘇聯派”가 있었으며; 이 兩派가 손을 잡는 契機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 兩者의 對立이 最初로 表面化한 것은 56年 4月の 第3次 勞動黨大會였다. 金日成은 이 黨大會에서 批判勢力의 化살을 돌릴 必要가 있었다. 그래서 金日成은 여기서 두가지 “一時的인 妥協策”을 내 놓았다.

그중 하나는 朴憲永 등 南勞黨派의 大肅淸事件에 關聯되어 “反黨宗派分子, 反革命分子”로서 斷罪되고 投獄되어 있던 사람들의 一部를 釋放한다는 妥協策을 내 놓은 것이다.

더우기 2年後의 黨第1次 代表者會議에서 金日成은 그 때의 釋放을 “修正主義者들”의 탓이었다고 하여 또 다음과 같이 非難하였다.

“우리 司法機關은 所謂 ‘人權을 옹호한다’는 口實下에 우리 黨의 革命에 反對한 基督教信者인 李萬華와 같은 敵對分子를 釋放하고, 敵對行爲를 한 적지않은 收監者를 釋放함으로써 社會秩序를 亂하게 하였다. 이러한 司法機關에서 보여주는 傾向은 프롤레타리아獨裁에 反對하는 修正主義的 傾向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金日成의 陳述에서 보아 當時 “敵對分子”가 釋放되었다는 것은 事實이며, 더우기 그의 수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金日成의 指示없이 또는 指示에 반해서 實行되었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다. 따라서 蘇聯共產黨大會로부터 勞動黨第3次大會에 걸쳐 金日成은 批判勢力과의 “無言”의 一時的 妥協策으로 “反黨分子, 宗派分子, 反革命分子”를 釋放하여 批判勢力들을 무마해 놓고 겉으로는 그 釋放을 “修正主義者”의 責任으로 轉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하나의 妥協策은 第3次 勞動黨大會의 演說에서 金日成은 內務 檢察 司法機關에 대해서 “民主主義”를 要求하고, 人民의 “合法的 權利와 그들의 生命 財產의 保護”를 呼訴하였다는 것이다.

이 報告에서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主張하였다.

“우리 內務 檢察 司法機關은 民主主義的 社會秩序를 強化하고 法令執行에 대한 統制와 監視를 嚴格히 實施하여 社會秩序를 보다 徹底하게 確立함에 의해서 人民의 合法的 權利와 그들의 生命財產을 保護하고 敵들의 一切의 反國家的 反革

命的 活動을 鎮壓하는 등 自己의 高尚한 使命을 보다 忠實하게 遂行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였다.

그 후 이것은 “修正主義者”들의 責任으로 돌리게 되나, 勞動黨 第3次大會에서는 內務 檢察 司法機關이 “非民主主義的”이었기 때문에 過誤를 범하였다고 하면서 一時的인 妥協策을 썼다는 것이다.

### 延安派로부터의 批判의 화살

1956年 4月の 第3次 勞動黨大會에서 金日成의 “스탈린의 個人崇拜 및 獨裁政治”가 主要한 批判의 對象으로될 것이라고 判斷한 金日成은 個人崇拜問題에 대해서 先手를 썼다.

이 때 金日成報告는 48年 第2次 黨大會로부터 第3次大會에 이르기까지의 期間中에 있어서의 黨活動의 最大의 成果로서 朴憲永 등 “南勞黨派”, “蘇聯派”의 許哥而, “國內派”의 朱寧河, “延安派”의 朴一禹 등 “宗派分子”의 活動을 暴露 處斷한 것을 내세웠으며, 그의 “頭目”으로 朴憲永을 指名하고 다음과 같이 非難하였다.

즉 宗派分子들이 反黨的 策動을 強行할 수가 있었던 하나의 原因은 無原則한 個人崇拜思想으로 인해서 宗派分子들과의 鬭爭을 強力히 展開하지 못한데 있다. 宗派主義는 小부르조아의 個人崇拜主義, 功名出世主義의 產物이다. 그의 常習的인 “事業方法”은 자기다툼과 相互 離間策動이며, 惡質 巧妙한 “外交”와 妨害이고, 個人崇拜思想의 傳播와 扶植이다.

또 이와같은 宗派的 惡影響에 물들어 있는 적지 않은 幹部와 黨員들은 個人의 役割을 지나칠 정도로 偶像化하여 그의 幻想을 大衆의 集團의 知慧보다도 높이 評價하고 그에게(朴

憲永) 盲從함으로써 그가 범한 잘못을 느낄 수가 없게 되고, 잘못도 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문에 그와의 鬪爭을 強力히 展開할 수가 없었다.

結局 金日成은 自己의 個人崇拜 獨裁政治에 대한 批判의 화살을 모두 이미 죽어 없어진 朴憲永에게 돌리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돌리치기”라는 것은 金日成 自身이 第3次黨大會에서 “金日成 個人崇拜”의 色을 없앴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서울의 北韓研究所長 金昌順氏는 「北韓 15年史」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즉 第3次黨大會의 黨務報告者는 金日成이었으나, 그는 自發的으로 黨運營을 集團指導體制로 할 것을 되풀이 하여 大會場의 裝飾도 從來와는 달리 金日成偶像化를 表示하는 것을 삼가고, “金日成將軍의 노래” “金日成讚歌”와 같은 詩의 朗讀을 하지 않았다. 大會參席者들도 金日成을 “民族의 太陽, 英雄”으로 讚美하는 討論方式을 모두 制限하였다. 從來와 같이 모든 業績을 “金日成將軍의 偉業” “首領의 올바른 指導”때문이 아니고, 黨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第3次黨大會를 前後해서, 職場大會가 一齊히 열렸는데, 여기서도 金日成個人을 偶像化하는 方式은 後進시키고 金日成의 이름 代身 “黨”이라는 用語를 使用하였다.

個人崇拜批判의 화살을 朴憲永의 責任으로 돌리치면서 이 大會에서의 個人崇拜의 “自肅” 劇에는 金日成의 焦燥感이 現實的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一時的 妥協”이나 批判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糊塗策으로서는 “金日成個人崇拜”에 대

한 批判勢力들을 納得시킬 수는 없었다.

第3次黨大會에서 第1 討論者로 發言에 나선 “延安派”의 象徴的 人物 金科奉(最高人民會議 議長, 黨政治委 常務委員)은 大會 이틀째의 討論에서 다음과 같이 發言하였다.

즉 人民을 勝利에로 이끌수 있는 힘의 重要的 源泉中的 하나인 우리黨이 마르크스·레닌主義黨의 組織的 및 思想的인 原則에 徹底하게 立脚하여 黨指導의 最高原則인 레닌의 集團指導를 올바르게 지켜왔기 때문이다.

또 指導에 있어서는 集團性を 強化함으로써만이 廣範한 黨員大衆의 創造性和 實際的 經驗을 參考로하여 正確한 黨政策을 決定할 수가 있으며, 黨指導機關의 各成員의 責任을 높여 黨決定의 正確한 執行을 保障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黨機關의 指導에 있어서의 集團성은 모든 사람들과 集團의 聰明함과 知慧에 依據하는 源泉이 되기도 한다.

또 金科奉은 一部地方의 人民委員會의 代表選出에 있어서의 非民主的 現象을 批判하여, 심하게는 上部機關에서 地方議員까지 任命하고 있는 事實까지도 暴露하여 다음과 같이 陳述하였다.

즉 “우리 活動家中에는 法을 弱화시켜 國家管理面에서 民主主義的 發展을 沮害하는 일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우리黨 組織은 國家管理에 있어서 民主主義的 發展을 沮害하는 모든 現象을 法的으로 沮止하고 內務 司法 檢察機關의 活動家들이 階級的 立場에 서서 우리 法을 올바르게 執行할 수 있도록 하여 人民大衆속에서 人民民主主義的인 遵法思想의 教育을 強化할 것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金科奉發言은 勿論 金日成을 指名해서 批判하지는 않았지만

金日成의 個人崇拜 獨裁政治, 특히 “南勞黨派” 등에 대한 스탈린主義적인 肅清이라는 黨內民主主義否定에 대해서 批判의 화살을 들렀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自派에서도 個人崇拜 批判

第3次黨大會에서 金日成의 個人崇拜를 批判하는 發言을 한 것은 金料奉만이 아니었다.

“金日成派”의 崔庸健, 韓相斗(黨中央組織指導部長)도 金日成과 마찬가지로 個人崇拜의 責任을 朴憲永에게 轉嫁시키면서도 個人崇拜를 엄격히 批判하는 發言을 하였다.

崔庸健은 다음과 같이 陳述하였다.

즉, 周知하는 바와 같이 集團의 指導의 原則은 오늘날 새로 提起된 問題가 아니고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指針으로하고 있는 모든 黨의 基本的인 黨生活原則으로 되어있다. 指導의 集團性에 관한 黨生活의 規範과 아무런 關係가 없는 個人崇拜思想의 害毒性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糾彈하고, 그후 레닌도 痛烈하게 暴露한 일이 있다.

또 韓相斗는 더욱 明確하게 다음과 같이 發言하였다. 즉, 個人崇拜思想은 歷史的 發展에 있어서 黨과 人民大衆의 役割을 無視하고 個人을 偶像化하여 黨의 集團的 指導를 弱化 혹은 破壞하고, 問題의 解決에 있어서 個人的 獨斷을 無限히 許容하여 一面性和 偶然性を 克服할 수 없도록 하는 有害한 反마르크스의 思想의 表現이라고 하였다.

또 우리는 마르크스·레닌主義的 革命思想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個人崇拜思想에 反對하여 斷呼히 鬪爭한데 대한 소련共產黨 第20次大會의 歷史的 決定이 蘇聯共產黨뿐 아니라 우리

黨의 事業의 今後의 發展에도 큰 肯定的 役割을 다할 것이라고 確信한다.

金日成의 報告와 “金日成派”인 崔庸健, 韓相斗의 發言이 모두 個人崇拜를 批判한다는 “妥協”을 强要한 背後에는 蘇聯 共產黨의 壓力도 否定할 수 없었던것 같다. 第3次 勞動黨大會에는 第20次 蘇聯共產黨大會에서 “스탈린批判”을 해치운 主張인 후르시초프가 祝賀團長으로 參席하였기 때문이다.

후르시초프는 祝賀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陳述하였다. 즉, 第20次 黨大會는 最近 黨中央委員會가 實施한 事業 즉 가장 重要的 列寧的 原則인 集團指導原則을 回復하는 事業이 特別한 意義를 갖고 있다는 것을 滿足感을 갖고 指摘하였다. 集團의 指導, 이것은 黨의 指導를 위로부터 밑에까지 改善하기 위한 唯一하고 올바른 길이다.

大會는 黨組織中에서 위로부터 밑에 이르기까지 集團的 指導의 列寧的 原則을 樹立하도록 돕고, 이 原則의 實現은 各各 마르크스·레닌主義的 黨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부여하여 黨으로 하여금 個人崇拜와 關聯된 誤謬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金日成의 個人崇拜批判을 둘러싸고 第3次 黨大會는 어떠한 結論에 달하였는가, 同大會의 “決定書”는 다음과 같이 總括하고 있다.

大會는 總括期間中 黨中央委員會가 自己의 一切의 活動으로 黨의 指導의 最高原則인 集團的 協議制를 嚴格히 遵守하고 그렇게 함에 의해서 自己앞에 提起된 課題를 正確히 解決함을 認定한다.

또 모든 黨 및 團體와 黨員들은 黨內에는 두가지 規律이 있

을 수 없고, 黨決定에 忠實히 服從하는 것은 그의 功勞와 職位에 關係없이 모든 黨員에게 義務的인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레닌의 原則을 遵守할 것이다.

그리고 黨組織은 一切의 活動에 있어서 集團的 指導原則을 確固히 遵守함에 의해서 個人崇拜思想에 反對하고, 事業에 있어서 個人的 獨斷과 一面性, 偶然性を 事前에 防止하여 黨員과 人民大衆의 集團的 知慧를 最大限으로 發揮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集團指導性的의 強調는 同大會에서 採擇된 黨規約에도 다음과 같이 反映되었다.

“黨의 各級指導機關은 黨指導의 最高原則인 事業에 있어서 集團指導에 대한 레닌의 原則에 立脚하여 自己의 모든 活動을 展開한다. ……黨의 政策問題를 個別的 黨組織 또는 全黨的 規模로 自由롭게 討論하는 것은 黨內民主主義에서 出發하는 個個의 黨員의 神聖한 權利이다”라고 되어 있다.

舊規約의 第4章 “黨의 機構”가 新規約에서는 “黨의 機構, 黨內民主主義”에 訂正되었으며, 第3次 黨大會는 蘇聯共產黨 20次大會의 衝擊, 蘇聯의 壓力, 北韓內部에서의 金日成個人崇拜에 대한 批判勢力的 存在라는 壓力要因에 의해서 金日成 主席이 一時的이라고는 하지만 크게 妥協, 讓步, 後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事實을 反映하고 있다.

### 中央委人事로 妥協企圖

金日成이 56年 4月の 第3次 黨大會에서 “一時的 妥協”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중의 하나에는 黨人事가 있다.

55年 12月の 朴憲永肅清裁判에서 “南朝鮮勞動黨派”의 大

肅清을 完結한 金日成은 다음의 肅清의 標的을 “蘇聯派”이다 정하고, 55年 12月 28日에 열린 黨宣傳煽動家會議에서는 “主體의 確立”을 提起하여 蘇聯의 影響을 排除할 것을 試圖하였다.

이러한 觀點에서, 金日成은 同會議에서 “蘇聯派”의 實力者 朴昌玉(副首相 黨中央委 副委員長, 宣傳局長)과 朴英彬(黨 組織局長) 등 蘇聯派幹部를 指名하면서 非難하였다. 그리하여 56年 1月の 黨中央委 常務委員會에서는 朴昌玉을 黨에서 追放하는 措置까지 취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金日成의 “主敵”이 이제는 “蘇聯派”로 設定이 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런데 第3次 黨大會의 人事에서는 “蘇聯派”에 대한 妥協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다.

「統一日報」의 “朝鮮勞動黨略史를 밝히다”의 鄭益友 論說委員의 分析에 의하면 지난번의 第2次 黨大會(1948年)에서 選出된 中央委員中 “蘇聯派”는 許哥而, 朴昌玉 등 14人이 있으나, 第3次 大會에서 選出된 中央委員은 다음의 11人이었다.

즉, 朴昌玉(順位 7位), 朴義琬(9位), 金璜日(13位), 朴一英(16位), 林 海(20位), 南 日(23位), 方學世(25位), 金承化(35位), 韓一武(40位), 趙 英(50位), 許 彬(61位) 등이다.

第2次 黨大會에 비하면 3人이 줄었으나 “蘇聯派”의 代表格인 許哥而는 이미 肅清되고 있으며, 朴昌玉도 黨으로부터의 追放 直前に 있었다. 그런데 그 朴昌玉이 第7位에 머물고, “蘇聯派”幹部가 새로 4人이나 中央委員에 選出되었기 때문에 金日成의 “妥協”으로 볼 수가 있다.

또 金日成의 宿敵 吳琪燮이 中央委員 57位에 머물면서 排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吳琪燮은 北韓地域 國內共產主義派의 巨頭이며, 金日成이가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을 組織하였을 때, “1國1黨”의 코민테른 黨組織原則에 反한다고 하여 朴憲永 등의 “서울黨中央”의 1國1黨論을 支持한 人物로 알려져 있다.

그 때문에 金日成은 第2次 黨大會에서도 吳琪燮에게 自我批判을 要求하고, 機會있을 때마다 “個人英雄主義者” “地方主義者”라고 非難해 왔다. 따라서 第3次 黨大會에서는 中央委員으로부터도 追放될 것은 必然的인 事實로 보아왔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亦是 金日成의 “妥協”의 產物로 보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黨人事는 “妥協”만은 아니었다. “金日成派”의 指導者의 上昇도 顯저하였다. 朝鮮民主黨 委員長이었던 崔庸健 中央委員을 3位에 두고, 序列 12位였던 金一을 5位로 끌어 올려 “金日成·甲山派”의 朴金喆·李孝淳이 6位와 15位로 각각 昇進되었다.

또 崔賢(38位) 등 東北抗日聯合軍出身의 軍人들이 候補委員으로 各各 大量選出된 것도 第3次 黨大會의 特徵이었다.

이와같은 “金日成派”의 進出에 의해서 黨中央指導部는 “金日成派”가 獨占하였다. 最高指導部의 黨中央常務委員會의 멤버는 다음과 같다.

※黨常務委員會 委員

- 金日成：黨委員長
- 金科奉(延安派)
- 崔庸健：副委員長(金日成派)

- 朴正愛：副委員長(金日成派)
- 金 一(金日成派)
- 朴金喆：副委員長(金日成派)
- 林 海(蘇聯派)
- 崔昌益(延安派)
- 鄭一龍：副委員長(金日成派)
- 金光俠(金日成派)
- 南 日(蘇聯派)

常務委員 11 名中 金日成派는 7 人, 延安派는 2 人, 蘇聯派는 2 人으로 壓倒的으로 “金日成派”가 優位를 차지하고 있다.

※ 黨常務委員會 候補委員

- 金昌滿：副委員長(延安派)
- 李鍾玉(金日成派)
- 李孝淳(金日成派)
- 朴義琬(蘇聯派)

候補委員에서도 “金日成派”가 2 人으로서, 延安, 蘇聯派가 각각 1 人씩인데 비하면 優位를 차지하였다.

黨副委員長 5 人中 “金日成派”가 4 人을 차지하고, 他派로부터는 “延安派”의 金昌滿 1 人만이 들어있다. 그러나 金昌滿은 當時 金日成主席의 “唯一革命傳統” 날조에 이바지하여 金日成主席에 順從하는 人物로 看做되어 발탁되었으나 그 밖의 黨中央指導部人事는 “金日成派”의 獨占으로 되었다.

金日成은 第 3 次 黨大會에서 얼마간의 “妥協”을 할려고 하였으나 權力의 核心部分을 놓치는 것은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金日成主席의 個人崇拜·獨裁政治에 대한 反對派와의 正面衝突이 일어나게 되는 原因으로 되는 것이다.

## 主席의 海外旅行中에 攻擊

56年 4月의 第3次 黨大會에서 金日成은 몇가지 “妥協”을 하였으나, 同時에 黨權力의 中樞인 黨中央指導部の 人事를 “金日成派”로서 거의 完全히 獨占한다는 “防衛措置”를 취한 것이다.

이것은 表面的으로는 蘇聯의 “스탈린批判”에 同調하고, 個人崇拜를 그만두며, 集團指導體制를 指向하는 形態를 취하면서도 實質的으로는 金日成의 獨裁政治를 계속하려는 것이었다.

當然히 이것은 金日成의 個人崇拜·獨裁政治에 批判적이었던 勢力들을 자극하는 結果가 된 것이다. 여기서 “延安派” “蘇聯派”를 中心으로 하는 批判勢力들이 金日成攻擊에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北韓에서는 “8月宗派(分派)事件”이라 부른다. 이에 대해서 서울의 北韓研究所長 金昌順氏는 「北韓15年史」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즉, 第3次 黨大會를 無事히 끝낸 金日成은 곧 蘇聯과 東歐 訪問을 위한 長期旅行을 떠났다. 金日成은 停戰後 1954년에 着手한 “戰後復舊建設3個年計劃”이 56년에 끝나고, 57년부터는 “第1次 5個年計劃”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을 遂行하기 위한 “社會主義陣營의 協力과 援助”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蘇聯과 東歐를 訪問하게 된 것이다. 金日成이 平壤을 約2個月間이나 비어두고 있는 동안에 “延安派”의 理論家 崔昌益과 “蘇聯派”의 理論家 朴昌玉은 合法的 出版物에 論文을 揭載하여 個人崇拜의 觀念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蘇聯共產黨第20次大會의 決定을 되풀이 하면서 過去에는 朝鮮勞動黨에서는 個人崇拜의 誤謬를 범하였다고 指彈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잘못을 早速히 是正하기 위한 黨內鬭爭이야말로 黨內民主主義와 集團指導體制에 의한 黨運營을 可能하게 하는 것이라고 끈질기게 主張하였다. 對外的으로는 이러한 主張을 하면서도 對內的으로는 “蘇聯派” “延安派”의 派鬭를 超越해서 同志를 糾合하여 “反金日成그룹”을 組織하려고 하였다.

結局 “蘇聯派, 延安派”는 宣傳과 組織의 兩面에서 金日成 攻擊에 나선 것이다.

우선 宣傳面에서는 56年 7月 25日附 黨中央理論機關誌 「근로자」(7月號)에 게재된 “朝鮮勞動黨 第3次 大會文獻의 깊은 研究의 實踐을 위해서”라는 題目의 卷頭論文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즉, 組織方法에서 가장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는 것은 黨指導의 最高原則인 集團의 指導를 계속하고 強化하는 問題이다. 集團의 指導의 意義는 黨과 國家의 모든 事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問題處理의 一面성과 어떤 個人의 잘못된 主觀的 意圖의 支配를 防止하고, 集團의 協議制를 통해서 그의 원만한 解決을 保障하는데 있다.

이리하여 黨中央委員會는 黨指導의 最高原則인 集團性を 發揚하면서 事業에 있어서 集團의 힘을 믿지 않고 個人의 役割을 偶像化하는 個人崇拜에 斷呼히 反對하고 鬭爭하였다. 個人崇拜思想은 歷史發展에 있어서 人民大衆의 役割을 過小評價하는 反마르크스主義의 見解의 具體的 表現인 것이다.

따라서 個人崇拜의 잔재는 各種의 形態로 表面化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항상 警戒心を 높이면서 이와같은 思想的 傾向에 대하여 無慈悲한 鬭爭을 推進하지 않으면 안되며, 黨指導의 最高原則인 集團의 指導의 原則을 굳게 守護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8月全員會議”의 直前인 8月 25日附로 發行된 「근로자」(8月號)에 스탈린이 長年間 쥐고 있던 레닌의 遺言이라고도 할 수 있는 未發表文獻 “大會에 보내는 書簡”을 蘇聯의 「콤무니스트」誌(第9號)로부터 轉載하였다.

同文獻의 前文에는 “레닌이 걱정하던 그(스탈린)의 否定的 特性이 다시금 造成되어 黨과 國家에 困難한 禍를 가져다 주었다. 스탈린은 集團의 指導의 레닌의 原則을 亂暴하게 違反하기 始作하여 專橫과 權力濫用에 의해서 社會主義的 法律制度를 違反하고, 農業의 指導, 軍事 및 國內的 政策의 領域에서도 重大한 잘못을 저질렀다. 黨은 스탈린에 대한 個人崇拜 및 그의 禍를 清算하는데 대한 問題를 斷呼히 提起하였다”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근로자」(8月號)에는 “蘇聯共產黨史의 創造的 研究를 위하여”라는 題目의 「콤무니스트」(第10號)의 論文을 轉載하였다. 그 內容은 또 다음과 같다.

즉, 個人崇拜가 어떻게 해서 達成되었는 가를 具體的으로 解明하고, 今後의 教訓을 삼아야 할 것이다. 스탈린은 自身을 理論家이고 特출한 組織家라고 自讚하고 있다. 그러나 自己手中에 無制限한 權力이 集中되자 레닌이 그전에 말한 警告에도 不拘하고, 그는 自己의 功績을 過大評價하기 시작하여 黨內的 集團의 指導原則을 違反하여 指導幹部에 대해서 專橫的인 行動을 취하여 黨 및 소비에트民主主義의 規範을 亂暴하게 유린하였다.

그는 自身을 完全無缺한 指導者로 過信하고 그의 決定은 唯一하고 正確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의 發言은 마르크스主義思

想의 最高峰인 것처럼 宣布하도록 모든 方面에서 操作하였다. 이들 論文은 어느 것도 金日成에게 있어서는 매우 좋지않은 것이었다. 결국 이것이 金日成主席의 소련·東歐訪問의 歸國(7月19日) 直後였기 때문에 그것은 公公然한 金日成主席에 대한 挑戰이었던 것이다.

### 尹公欽이 金日成 批判演說

金日成의 個人崇拜와 獨裁政治를 批判하는 黨內反對派는 金日成이 소련 및 東歐訪問을 出發하자 마자 黨機關誌로 個人崇拜批判의 캠페인을 展開하여 組織面에서도 批判勢力的 結集을 노렸다.

서울의 內外問題研究所가 62年에 出版한 「北傀의 派閥鬭爭史」에 의하면, “非스탈린化를 回避하려고 하는 金日成一黨에게 反擊을 가할려고 한 것은 “延安派”의 崔昌益과 “소련派”의 朴昌玉 등이었다. 그들은 金日成一行이 소련·東國諸國을 訪問하고 있는 동안에 黨, 政府機關, 더우기 一部는 軍內部에까지 反金日成勢力的 糾合을 企圖하였다. 그리고 金日成의 平壤歸着後에 열리게될 黨中央委 全員會議에서, 그동안 金日成의 指導下에 強行되었던 스탈린主義的 路線을 告發하기로 하고, 그의 “先兵”으로서 “延安派”의 尹公欽, 李弼, 徐輝를 내세우기로 하였다”고 쓰고 있다.

8月全員會議는 當初 豫定한 대로 金日成의 歸國報告에서 始作하여 贊成討論의 순으로 進行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最初에 發言에 나선 “延安派”의 尹公欽이 “金日成批判”의 演說을 開始하였기 때문에 全員會議는 갑자기 이상한 公기가 감돌았다.

尹公欽이란 자는 平安北道出生으로서, 延安獨立同盟出身의 中堅幹部로 40年代부터 中國에서 獨立運動에 從事하다가 43년에는 延安獨立同盟中央委員이 되고, 45年 10월에 金料奉과 함께 平壤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후 48年 3月 朝鮮勞動黨 中央委員이 되고, 56年 4月の 第3次 黨大會에서 再選되었다. 52年 12月에는 財政相, 54年 3月에는 商業相으로 轉出하다가 56年 8月の 黨中央委全員會議에서 “金日成批判”을 展開한 後, 檢舉를 避해서 中國으로 亡命한 人物이다.

全員會議에서 尹公欽은 다음과 같이 發言하였다.

즉, 소련共産黨 第20次大會에서는 個人崇拜思想의 根絶 및 그의 災難에 대한 重大한 問題가 提起되었다. 그리하여 소련 國內에서는 個人崇拜思想의 災害에 대한 批判과 그에 따른 人民生活의 向上에 대한 再檢討가 緊急한 命題로 提起되고 있다. 이것은 重大한 問題이며 全世界共産主義國家에서도 批判이 高潮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들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個人崇拜思想이 濃厚하며, 그의 災難은 너무나도 크다. 특히 無原則한 重工業의 優先政策에 대해서 輕工業과 農村經濟는 完全히 落後하고 人民生活은 극히 貧困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現狀에서 우리黨이 個人崇拜思想을 徹底하게 暴露하고 糾彈하여 그의 災害를 短時日內에 拂拭하지 않으면 우리는 回復할 수 없는 禍根을 招來할 것이다.

8月 全員會議에서 맨처음에 “金日成批判”의 發言을 한 것은 “延安派”의 徐輝였다는 說도 있다. 70年 7月 서울의 高麗大學校 出版部에서 發行된 方仁厚著 「北韓 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에 의하면 最初의 反金日成發言은 “職業同盟과 黨

의 關係” 대해서 徐輝가 發言하였으며, 그 후에 尹公欽이 하였다는 말도 있다.

如何間 尹公欽, 徐輝 등의 金日成批判發言에 대해서 金日成派는 이에 어떻게 對處하였는가. 서울의 對外問題研究所의 「北傀의 派閥鬭爭史」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즉, (尹公欽)發言이 進行될때, 會議場 座席에 앉아있던 金日成直系委員들은 일어나서 “討論을 中止하라. 反黨分子는 물러가라, 逆賊은 나가라” 라고 외쳤다. 이리하여 場內는 一大 修羅場化되었다. 崔庸健은 主席團에서 “尹公欽의 發言은 다음 會議에서 討議될 對象이 못될뿐 아니라 虛僞에찬 反黨發言이기 때문에 中央委員會의 이름으로 中止시킨다”고 하여 이것을 制止시켰다. 그러자 그의 옆에 앉아있던 崔昌益이 일어서면서 “尹公欽의 發言은 黨員으로서 黨의 發展을 위한 建設的인 것으로서 最後까지 들어야 한다”고 緊急動議를 提議하였다. 會議場內에는 옴소! 라는 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金日成直系와 그의 支持者들은 多數의 壓力으로 崔昌益, 尹公欽 등을 處罰하라고 떠들어댔다. 할수없이 尹公欽은 發言을 中止하고 發言臺에서 내려왔다.

尹公欽이 發言臺에서 내려온 후에도 金日成系의 委員들은 崔昌益, 尹公欽등을 “退場시켜라”, “逮捕하라”라고 외쳐댔다. 그 結果 會議는 계속될 수가 없고, 司會를 맡았던 金一에 의해서 “午後續開”를 前提로하여 休會를 宣言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尹公欽 등 “金日成批判派”의 發言을 抑制하고 議事 進行을 組織的으로 妨害한 것은 “抗日革命鬭爭”出身의 中央委員 및 候補委員들로서 第3次 黨大會에서 새로 中央委員에 選出된 崔賢, 柳京守, 李林, 李英鎬, 李松雲, 金翊善, 候補委

員에 選出된 吳振宇, 崔光, 崔勇進, 金昌鳳 등이었다고 한다.

### 8月宗派事件의 處罰을 撤回

第3次 黨大會는 憤怒속에서 反對派의 發言이 中止되고 討議는 中途에 끝났다. 金日成派의 多數의 橫暴가 會議場을 制壓한 것이다. 모스크바의 “스탈린批判”이 國際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때에 平壤에서는 꺼꾸로 “非스탈린化”의 潮流를 逆流하기 위해서 黨內民主化의 깎을 껴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의 反動은 더욱 무서웠다. 恐怖政治가 大會前에도 심하여 猛威를 떨치게 되었다. 危機를 벗어난 金日成은 續開된 8月全員會議에서 尹公欽, 徐輝, 李弼圭 등을 除名, 追放함과 同時에 方學世內務相에게 이 세사람을 逮捕하도록 命令하였다.

그러나 이 3人은 “反金日成鬪爭”이 失敗한 것을 알게되자 逮捕를 避해서 곧 平壤을 脫出하여 新義州 龍川郡의 鴨綠江邊에서 木船을 타고 安東으로 건너가 中國으로 亡命하였다고 전하여진다.

이것이 所謂 “8月宗派事件”이라는 것이다. 이 事件이 모스크바와 北京에 전해지자 소련으로부터는 미꼬얀副首相이, 中國에서는 彭德懷國防相이 各各 平壤을 訪問하여 事態의 收拾에 나서고, “金日成派” “延安派” “소련派” 등으로부터 各各 事件의 真相을 청취하였다.

그 結果, 미꼬얀과 彭德懷는 勞動黨中央常任委員會를 召集할 것을 要求하여 同會議에서 兩派를 對決시켰다.

서울에서 67年 6월에 出版된 金定基著 「密派」에 의하면, 同常任委員會에서는 주로 “延安派”의 崔昌益과 “소련派”

의 朴義琬이 “金日成批判”을 展開하고, 특히 崔昌益은 “黨은 金日成派가 責任을 지고 指導하고, 行政府는 “延安派” 主導下에 運營하기로 하자”라고하여 權力의 公權化를 主張하였다고 한다.

이때의 黨中央常任委員會의 結果에 대해, 68年 서울의 共產圈問題 研究所發行的 「北韓總鑑 1945~1968」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즉, 尹公欽事件은 政策上의 見解差異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反黨 혹은 反亂罪로 取扱해야 할 問題가 아니었다. 따라서 黨으로부터의 追放이나 解任은 再考하여 寬大하게 處理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탈린主義와 같은 악랄한 肅淸主義는 黨의 發展을 阻害하는 것이기 때문에 肅淸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北韓總鑑 1945~1968」에 의하면 이러한 結論에 따라서 9月全員會議을 召集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同會議는 56年 9月 23日에 召集되어 8月全員會議의 決定을 再檢討한 結果, 다음과 같은 “決定書”를 採擇하였다는 것이다.

즉 9月全員會議의 議題는 ①黨規律問題, ②잘못을 저지른 黨員에 대한 再教育 說得 등이었다. 不過 하루에 閉會된 9月全員會議에서는 8月全員會議의 決定이 一部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9月全員會議에서 是正하여 崔昌益, 尹公欽, 徐輝, 李弼圭 등 6人에 대한 黨의 追放處分을 撤回하고 그들을 黨中央委員으로 復歸시킨다는 것이다.

이 決定은 金日成이 소련의 미꼬얀, 中國의 彭德懷의 政治的 壓力에 의해서 8月全員會議에서 決定된 延安派 幹部에 대한 肅淸을 撤回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後年에 이러한 事實을 否定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 中國도 이 事實에 대해서 公表한 일도 없다. 北韓은 中蘇對立이 激化하고, 北韓이 中共에 傾斜하고 있던 時期인 1963年 1月 30日字 「로동신문」에 “社會主義陣營의 統一을 지키고,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團結을 強化하자”고 하는 論說을 揭載하여 소련의 干涉을 다음과 같이 批判하였다.

즉, 어떤사람들은 一國의 黨大會를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의 “새로운 段階”의 開始라고 쓰고 있으며, 어떤 黨의 政策과 決定을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共同綱領”으로 宣言하여, 그것을 다른 兄弟黨에게 強要하려고 한다. 그러나 어떤 特定 黨의 決定이나 措置는 그 黨의 內部에서만 義務的인 것이지 결코 다른 黨의 活動을 規制할 수는 없다.

따라서 所謂 “個人崇拜反對”運動을 다른 黨에 強要하려고, 그것을 看板으로하여 兄弟黨의 內政에 干涉하고 그들 나라의 指導部를 轉覆시키기 위한 活動을 하는 것은 絶對로 許容할 수 없다. 실로 “個人崇拜反對”의 소동에 의해서 수많은 兄弟黨이 무모한 병마에 시달리고, 國際共產主義運動이 크게 損失을 입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오늘도 一部사람들에 의해서 個人崇拜反對의 소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批判하였다.

이 論說은 中國의 干涉에는 言及하지 않고, 批判의 화살을 소련에게만 돌리고 있다. 이것은 中·蘇對立激化의 過程에서 北韓이 中國에 기우리고 있었기 때문이며, “8月宗派事件”의 收拾에 소련·中國이 介入하여 北韓에게 強力한 壓力을 行使하였음을 立證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結局 金日成은 中·蘇對立의 혼란한 틈을타서 蘇

聯批判의 美名下에 “反個人崇拜運動”에 反擊을 가함으로써 北韓에서의 金日成主席의 個人崇拜·獨裁政治를 合理化하고, 그것을 더욱 強化하는 方向으로 利用한 것이다.

### 金日成, 反擊으로 나오다

中·蘇介入에 의해서 9月全員會議에서 崔昌益, 尹公欽 등의 黨追放處分을 撤回한 金日成은 “一時的 妥協”의 時間이 經過한 3個月後인 56年末頃부터 “反擊”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黨員證交換事業”과 “集中指導檢閱事業”이라는 이름의 肅清運動에서 시작되었다.

이 두가지 運動은 56年末부터 57年에 걸쳐 展開되었다. 57年 12月 5日의 黨中央擴大會議에서의 金日成報告는 이 運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즉, 反革命分子들을 摘發 暴露하는 全人民的 運動의 開始와 56年末부터 57年初에 推進된 黨員證交換事業과 主要 黨組織에 대한 集中的 指導機關事業, 그리고 56年の “12月全員會議”의 決定의 實現을 위한 政治 經濟的 鬭爭과 그밖에 黨이 취한 各種의 適切한 措置는 우리黨과 人民民主主義制度에 대한 敵의 破壞 陰謀를 粉碎하고 黨隊列의 純潔性을 保障하여 黨과 大衆과의 연대를 보다 強化하고, 全黨員과 勤勞大衆을 黨의 唯一思想과 意思에 結付시키는 데서 重要的 意義를 갖는다.

“黨員證交換事業”이라는 것은 實은 金日成이 朴憲永 등 南勞黨派를 肅清할 때 使用했던 “黨員證再登錄事業”과 같은 것으로서 이번에는 “延安派” “蘇聯派”를 肅清하는 道具로 使用된 것이다.

서울에서 70年 7월에 發行된 方仁厚著 「北韓勞動黨의 形

성과 發展」에 의하면 “黨員證交換事業”은 다음과 같이 展開되었다는 것이다.

즉, 金日成은 “黨員證交換事業”을 함에 있어서 “延安派”로부터 “金日成派”로 轉向한 金昌滿을 責任者로 하였다. 그리하여 崔昌益과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는 자와 그의 同調者를 색출하여 個別審査를 하였으며, 그것이 一段落되자 57年 2月부터 約 10個月間에 걸쳐 反宗派(分派)鬭爭을 위한 集中指導事業을 展開하였다.

또 崔昌益 등을 肅淸하기 위한 “集中指導事業”은 平壤市 黨委員會에서부터 開始되었다. 그리하여 各郡黨의 熱誠者大會, 各職場, 企業所大會, 學習會 등에서 그들의 犯罪를 暴露하는 식으로 下向으로 推進되었다. 金日成 등은 이와같은 캠페인을 展開하면서 “崔昌益一派가 8月全員會議以前부터 反黨 反革命 陰謀를 計劃하고 있었다”라고 發表하였다. 이때 金日成一派가 發表한 崔昌益 등의 “犯罪計劃”을 大別하면, “示威”와 “暴動”으로서, 다음과 같이 터무니 없는 것이었다.

즉, 示威를 위해서는

① 內閣事務局에서 싸이렌을 울리면 金日成大學을 據點으로, 大學生으로 構成된 示威隊가 大衆을 呼應시키면서 “反政府슬로건”의 기발을 들고 東平壤中央廣場으로 향해서 行進한다.

② 東平壤에서도 이것과 步調를 맞추어 建設專門學校의 學生이 主導하여 示威行進을 한다.

③ 平壤市の 重要한 道路에는 內務署員을 配置하여 學生의 示威를 側面에서 支援하는 同時에 內務署幹部는 學生과 함께 示威를 하여 學生의 示威隊列과 合流한다.

暴動을 위해서는

① 前述한 示威가 計劃대로 成功하며는 張平山이 指揮하는 人民軍 第4軍團은 구데타를 위한 軍事行動을 開始한다.

② 暴動을 통해서 “政府”를 打倒하고, 金日成을 비롯한 黨 幹部 및 行政要員을 逮捕하여 金日成을 除外한 나머지의 大部分을 處刑하여 “新政府樹立”을 宣言한다.

③ 暴動時 平壤市에 있는 모든 街路燈은 교수대로 使用한다.

④ 이 作業이 끝나면 豫定된 閣僚名簿를 發表하여 首相에 崔昌益, 黨秘書에 朴昌玉을 指名한다.

⑤ 新政府는 朝鮮이 中立國임을 宣言하고 必要할 때에는 韓國으로부터 國軍의 支援을 要請한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 北韓問題專門家は 한결같이 이 “犯罪計劃”은 金日成에 의한 捏造로서, 마치 朴憲永 등 “南勞黨派”大肅清時 朴昌玉 方學世 등에게 그리고 詩人 林和에게 責任을 지워 強制自白을 받아내어 그것을 土臺로 南勞黨派肅清裁判의 근거로 삼았던 것과 똑같은 手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共產圈問題研究所가 發行한 「北韓總鑑 1945~1968」에 의하면 金日成一黨은 이미 轉向한 金昌滿과 그의 밑에 配置해 놓은 許貞淑 등에게 楊界(延安獨立同盟出身으로 內閣事務局長 및 黨中央候補委員)와 趙英(女性獨立運動家로 黨中央委員 및 兩江道委員長) 등을 脅迫하여 懷柔시켜, 두사람으로 하여금 崔昌益, 朴昌玉 등의 “犯罪事實”을 捏造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또 金南植著 「實錄·南勞黨」에 의하면, 楊界는 “犯罪自白”을 받아냈다는 代價로 그의 家族들은 62년까지 平壤市 平山區域의 商業省官舎에 居住할 수 있는 “特惠”를 받았다고 쓰고 있다.

反革命 陰謀參加의 證據는 없다.

北韓에서 “8月宗派事件”이라고 하는 “延安派” “소련派” 幹部에 대한 肅淸은 “黨員證交換事業”과 “集中指導事業”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利用해서 大大的으로 展開되고, “反黨反革命陰謀”라는 犯罪事實을 操作해 넘으로써 最高潮에 달했다. 그의 肅淸의 範圍는 崔昌益 등의 “延安派”와 朴昌玉 등의 “소련派” 그리고 吳琪燮 등의 “北韓地域國內派”와 “南勞黨殘黨派” 등 廣範圍하였다.

金日成은 이들 “聯合的 宗派徒黨”에 대한 肅淸鬪爭에 勝利한 후 1958年 3月 6日에 열린 勞動黨 第1次 代表者會議에서 행한 “第1次 5個年計劃을 遂行하기 위하여”라는 報告에서 “8月宗派事件”을 總括하였다.

金日成報告는 “南勞黨派”의 柳子遠(黨中央委員, 石炭工業相), 崔昌益, 金雄 등을 “宗派分子”로서 攻擊한 후 金料奉(最高人民會議 議長), 吳琪燮(黨中央委員, 收買糧政相)에게 非難의 화살을 돌리면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즉, 金料奉도 그렇다. 우리는 金料奉과 10餘年間 함께 일을 해 왔다. 그러나 金料奉은 10年間 엉뚱한 꿈을 꾸고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마음속을 밝히지 아니하고 韓斌와 崔昌益에 대해서만 자기 마음을 밝혔다. 韓斌는 우리 黨의 破壞分子로서 黨이 미워하는 자이지만 金料奉은 韓斌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해 왔다.

또 吳琪燮도 그렇다. 吳琪燮은 1年間 黨中央委員으로서 우리들과 함께 일을 해 왔으나 恒時 다른 꿈을 꾸고 있음으로써 우리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다 라고 하였다.

金日成報告는 또한 金料奉, 吳琪燮에다 朴義琬(副首相, 國

家建設委員會 委員長, 黨中央委 常務委員候補)을 追加해서 다음과 같이 非難하였다.

즉, 金料奉, 吳琪燮, 朴義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處理되어야 할 것인가. 金料奉, 朴義琬, 吳琪燮 등이 反革命暴動陰謀에 參加하였다는 證據는 아직 없다. 金料奉과 朴義琬은 黨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든지 黨指導部를 追放하려고 하였다. 결국 모두가 宗派(分派)를 해 온 것이다.

그리고 金料奉, 朴義琬, 吳琪燮에 대한 우리들의 意見은 “社會主義分配方式”에 따라 그들이 “벌어드린 分量”만큼 處罰을 할려는 것인데, 이렇게 處理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같이 金日成報告는 金料奉, 朴義琬, 吳琪燮 등이 “反革命暴動陰謀”에 가담하였다는 證據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聯合的 宗派徒黨”을 만들었다는 것을 理由로 肅淸을 强行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 “聯合的 宗派徒黨”에 대해서 北韓은 어떻게 說明하고 있을까. 그후 北韓에서 發行된 「朝鮮勞動黨略史」에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즉, 이 宗派의 頭目 崔昌益은 이미 1920年代로부터 처음에는 서울派에, 다음은 ML派에 加擔하여 宗派行動을 하다가 1930年代에 이르러서는 革命鬪爭의 불을 피하여 安全한 곳만을 찾아다니면서 自己의 宗派勢力을 늘리려는 데만 沒頭하였다.

解放後에는 新民黨의 指導的 地位를 惡用하여 宗派地盤을 構築하는데 血眼이 되고 심지어는 南朝鮮勞動運動에까지 觸手를 내밀어 勞動黨創立後에도 面從腹背의 교묘한 手段으로 反黨 反革命的 宗派策動을 계속하였다.

朴昌玉을 비롯한 宗派分子들은 한때 黨의 指導의 地位에 있으면서 黨活動에 많은 害毒을 끼쳐, 黨의 原則的인 批判에 대하여 不平不滿을 품으면서 崔昌益과 結託하게 되었다. “이런 일 以外에 黨과 革命의 利益에는 關心이 없고, 다만 地位와 出世만을 노리고 있던 持病的인 宗派分子들이 이에 合流하였다”고 하여 吳琪燮 등 “北韓地域 國內派”와 “南勞黨派殘黨”을 非難하였다.

그리고 이들 “諸宗派의 殘餘分子”가 結託한 것이 “聯合的 宗派徒黨”이라고 斷定하고, 이들 “宗派에 대한 鬪爭”이 “歷史적으로 흘러내려온 宗派의 汚物을 全面的으로 쓸어 버리기 위한 鬪爭”이며, 이것이 “8月宗派事件”이고 또 이것을 暴露 粉碎한 것이 8月全員會議였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歪曲된 事實이 있다. 그 하나는 金日成은 8月全員會議後 소련 및 中國의 兩共產黨의 干涉과 壓力에 의해서 同會議에서 崔昌益 등의 處罰을 撤回하였기 때문에 8月全員會議에서 “宗派徒黨”을 暴露 粉碎 하였다는 것은 事實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崔昌益, 朴昌玉에 대한 “反黨反革命的 宗派策動”이라는 罪狀은 극히 抽象的이고 說得力이 없으며, “反革命 暴動陰謀”에도 證據가 없기 때문에 金日成의 “個人崇拜·獨裁政治”에 反對하는 黨內批判派를 肅清하는 口實에 不過하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 黨, 行政, 地方의 幹部까지 肅清

金日成이 黨內的 “延安派” “소련派” 등의 “聯合的 宗派(分派)徒黨”에 의한 “反黨 反革命陰謀事件”에 대해서 發表한 후, 肅清旋風의 마수는 黨, 行政機關, 軍部內로 퍼져갔다.

1970年 서울의 高麗大學出版部가 發行한 方仁厚著 「北韓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에 의하면, 肅淸旋風은 우선 “延安派”의 巨物 崔昌益, “소련派”의 中心人物 朴昌玉, 楊界(內閣事務局長), 姜成民, 金民山, 張平山(第4軍師團長)등 “延安派” “소련派” 要人の 檢舉, 拘束과 同時에 始作되었다.

平壤市의 黨委員會는 副委員長인 洪淳寬이 逮捕되고, 同市人民委員會는 3人의 副委員長인 金鳳善, 洪正文, 金允基가 解任되고, 同市商業局長인 全萬福, 文化宣傳處長인 盧泳根과 中國八路軍出身의 內務局長인 安炳基가 逮捕됨에 따라서 壞滅의 打撃을 받았다.

그리고 68年 서울의 共產圈問題研究所가 發行한 「北韓總鑑 1945~1968」에 의하면, 金日成綜合大學에서는 56年 10月 頃부터 “集中指導事業”이 開始되어 總長인 俞成勳, 歷史學部長인 金正道를 비롯해서 수많은 敎員이 肅淸되었다는 것이다. 또 계속해서 57年 4月부터는 中央의 省 및 中央機關에 대한 “集中指導事業”이 展開되고, 幹部 活動家 約 80人이 “宗派分子”의 낙인이 찍히고, 各地方의 下部機關에서도 多數의 “反黨 反政府分子”가 摘發되었다는 것이다.

金承化가 逮捕된 것도 이 時期였다. 金承化는 소련出身으로 金日成綜合大學 副總長과 中央黨學校長을 거친 후, 都市經營相, 國家建設委員會 委員長, 其他 建設部門의 要職을 歷任한 實務幹部이다.

金承化의 追放을 계기로 建設省 副相인 李鎭高과 그의 部下인 局長級이 속속 逮捕되었다. 韓國戰爭時 巨濟島포로수용소 暴動을 指導하였기 때문에 北韓으로 歸還한 후, “巨濟島의 英

雄”으로 날리던 朴士賢(平壤建設旅團長)도 逮捕되고, 그의 部下 數千名도 逮捕되어 “宗派分子”로서 “集中指導事業”의 對象으로 되었다.

中央黨學校長인 許翼이 “反黨 反革命分子”로 追放당하자 그의 영향밑에 있던 學者, 言論界의 指導者가 肅清旋風에 말려 들었다. 모스크바駐在大使인 李相朝는 소련의 指導者, 소련留學生들의 工作을 擔當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8月宗派事件”의 主謀者로 지목된 尹公欽(商業相), 李弼圭(前內務省 副相, 建材工業局長) 그리고 徐輝(職業總同盟委員長) 등 3人은 肅清旋風을 피하여 平壤을 脫出해서 中國으로 亡命하였기 때문에 逮捕되지 않았다. 그런데 「北韓總鑑」에 의하면 金日成은 逃亡간 3人代身 그들의 部下에게 肅清의 손을 내 밀었다. 尹公欽 代身에는 方鍾允(商業省 副相)이 “宗派分子”의 용의를 받았고, 同省의 各局長 및 平壤市商業部門의 活動家 多數가 逮捕되었다.

李弼圭 代身에는 後任의 內務省 副相인 千基雄과 平壤市內務署長, 內務省幹部學校의 教官 그리고 學生 등이 하나하나 肅清되었다.

中國으로 亡命한 徐輝代身에는 金民山(國家檢閱省 副相), 林哲(同第3局長)이 追放되었다. 徐輝는 職業總同盟 뿐만 아니라 金日成綜合大學의 職員, 學生들을 反黨 反政府의 “示威”을 일으키려고 하였다고 攻擊을 받았다.

이러한 肅清旋風에 대해서 金日成은 그 후 58年 2月 4日에 열린 電氣省第3次熱誠者大會에서 행한 “電力工業部門活動들 앞에 提起되는 몇가지 當面課題에 대하여”라는 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지금까지 金承化 李弼圭와 같은 反黨宗派分子들은 “黨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黨을 무시하고 黨의 決定을 잘 執行하지 않았으며, 黨의 政策에 意識적으로 反對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一部사람들은 우리 黨을 믿고, 黨을 위해 鬪爭하지 아니하고, 金承化와 같은 자를 믿고 따라가 그들의 손발노릇을 하였다. 그렇게된 原因은 두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金承化를 따라감으로써 많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國際思潮”라든가 “朝鮮의 黨이 뒤집혀진다”라고 하는 그들의 虛僞宣傳에 속아서 崔昌益이나 金承化 一派의 反黨宗派行動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金日成은 58年 3月 7日 道, 市, 郡黨委員長과 人民委員會委員長들 앞에서 행한 “黨事業을 改善함에 대하여”라는 演說에서 朴容淑(前 司法省 副相), 趙誠模(前 檢事總長), 黃世煥(最高裁判所長) 등 3人的 이름을 부르면서, “司法部門의 事業에 큰 害毒을 끼치고 있다”고 非難하였다.

肅淸旋風이 얼마나 떠들석 하였던가를 以上에서 보여주고 있다.

### 大肅淸, 將軍에서 兵士에 이르기까지

金日成의 延安派, 소련派 肅淸旋風은 北韓의 人民軍에도 波及되어 많은 將軍이 犧牲되었다. 肅淸後 58年 2月 8日에 金日成이 人民軍 第323軍部隊의 將兵들 앞에서 행한 “朝鮮人民軍은 抗日武裝鬪爭의 계승자이다”라는 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우리 軍隊內에서는 黨員과 軍人이 黨의 革命的 事業과 黨의

政策으로 잘 教育을 받지 못하였다. 특히 反黨宗派分子인 金乙奎, 崔卍鍾 등은 總政治局內에서 地方主義와 宗派主義를 심어놓고 政治事業에 많은 混亂을 가져오게 하는 등 옳지 못한 理論을 펼쳐 黨의 思想을 麻痺시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總政治局長이었던 崔鍾學은 反黨宗派分子들의 罪過를 徹底히 暴露 糾彈하여 黨員과 軍人들 속에 反黨宗派分子들에 대한 憎惡心을 갖도록 하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金乙奎, 崔卍鍾은 中國八路軍出身의 延安派이고, 人民軍總政治局長 崔鍾學은 소련派이다. 崔鍾學은 소련軍官學校出身으로 1945年 8월에 소련軍과 함께 北韓에 들어와 50년에는 人民軍師團政治部長, 54年 10月에는 民族保衛省(國防部에 해당) 副相, 56年 4月에는 總政治局長으로 任命되고, 同年의 第3次黨大會에서 黨中央委員으로 選出되었다.

68年 6月 서울의 共產圈問題研究所에서 發行한 「北韓總鑑 45」(1968年版)에 의하면, 金日成은 崔鍾學, 金乙奎, 崔卍鍾外에 金雄(民族保衛省 副相·大將), 張平山(人民軍軍團長·中將), 盧哲甲(人民軍第一集團軍參謀長), 崔源(民族保衛省 軍事學局長·少將) 등을 “宗派分子”로 肅淸하였다는 것이다.

「統一日報」의 “朝鮮勞動黨略史를 밝히다”의 鄭益友 論說委員에 의하면, 이밖에 “延安派”에서는 朴勳一, 李權武, 方虎山中將, 金昌德, 金烈中將 등, 소련派의 金在郁中將, 朴吉南少將 등을 追放하고, 金在郁, 朴吉南은 소련으로 逃亡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肅淸된 延安派, 소련派出身の 將軍은 약 100名이나 되며, 더우기 將校, 下士官, 一般士兵까지 포함하면 軍部內의 肅淸은 엄청날 정도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왜 金日成은 人民軍內의 肅清을 強行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金日成은 肅清後인 1958年 3月 8日에 행한 勞動黨中央委員會議의 結論 “人民軍隊內의 黨政治事業을 改善 強化하기 위한 課業”에서 그 肅清의 理由를 人民軍隊도 “修正主義의 思想的 影響”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즉 지금까지는 總政治部가 黨이 要求하는 水準으로 왜 事業을 順調롭게 推進하지 못하였는가. 崔鍾學을 비롯해서 總政治局內의 一部사람들이 思想的 動搖를 일으키자 人民軍隊內에 潛入하고 있던 反黨分子들은 이것을 好機로 하여 軍隊內에 修正主義의 思想毒素을 뿌렸다.

總政治局長은 修正主義의 思想的 毒素을 대담하게 追放하지 아니하고, 그 밑에 있는 一部사람들은 修正主義의 思想毒素가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放任하고, 反黨分子와 宗派分子들은 이와같은 事態를 利用하여 反黨的 또는 修正主義의 思想毒素을 積極的으로 擴散시켰다.

이리하여 金日成의 延安派 소련派의 肅清의 손길은 黨 行政機關 人民軍內의 指導的 人物에 그치지 않고, 더욱 넓게 全國의 地方機關에까지 미쳤다.

68年 서울의 共產圈問題研究所가 發行한 「北韓總鑑 1945~1968」에 의하면 金日成이 北韓의 全機關, 全民衆을 對象으로 “反革命分子”를 調査 摘發 肅清하려고 한 것은 “延安派” “소련派” 등 黨內反對派肅清을 推進하고 있던 57年 5月 30日에 열린 黨中央常務委員會에서 “反革命分子와의 鬭爭을 全黨, 全人民的 運動으로 展開하자”라는 題下의 決定(5.30 決定)을 採擇하였을 때부터였다.

그의 具體的인 方案으로서 58年 12月부터 北韓의 全域에서 “集中指導事業”을 實施하게 되었다. 이 運動을 展開하기 위해서 朴憲永 등 “南勞黨派”大肅清的 “思想檢討事業”에서 능숙한 經驗을 얻은 金日成의 實弟 金英柱(黨中央組織指導員)를 “集中指導”中央指導部の 總責任者로 任命하였다.

中央指導部는 金英柱밑에 中央黨行政部長과 副部長, 組織指導部 副部長과 第3課長 그리고 內務省安全局長 最高檢事長, 其他 中央委의 幹部活動家로 構成되었다.

中央指導部산하에 中央黨의 課長, 指導委員을 비롯해서 各省黨委員長, 各道黨 副委員長, 指導員 그리고 金日成大學卒業 學生의 一部 등으로 構成되는 7,000人에 달하는 “集中指導 그룹”이 結成되었다.

이 “그룹”의 主要한 任務는 “延安派” “소련派”를 비롯한 黨內反對派를 地方의 黨·政·軍 등의 各機關으로부터 排除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해서 “反黨 反革命宗派分子”를 摘發하기 위한 “宗派分子로부터 直接 間接으로 영향을 받은 자”라는 基準을 세웠다. 이와같이 해서 “集中指導”라는 이름의 肅清運動이 猛威를 떨치게 되었다.

### “集中指導”를 全國으로 擴大

金日成의 “集中指導事業”이라는 이름의 延安派 소련과 肅清運動은 그의 實弟 金英柱(黨中央組織指導員)를 總責任者로 하는 中央指導部下에 結成된 “集中指導그룹”에 의해서 展開되었다. “8月宗派事件”에 關係된 사람들중의 한사람인 “소련派”의 楊界(內閣事務局長)가 所屬하고 있던 內閣事務局에서 행한 “集中事業”에 관해서 서울의 共產圈問題研究所의 「北

韓總鑑 1945 ~ 1968」은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즉 “8月宗派”의 頭目的 한사람으로 肅淸된 內閣事務局長인 楊界의 境遇, 事務局에서 일하고 있던 자는 全員이 宗派關係者로서 追放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山間僻地의 木材伐採勞動者로 追放되었다.

또 이 “集中事業”으로 黨 行政機關의 里(村)級以上の 幹部中, 黨으로부터의 追放, 解任, 格下 등의 處分을 받은 자는 ① 平壤市 약 40%, ② 開城地區 약 70%, ③ 黃海南道 약 60%, ④ 江原道 약 80%이며, 全體로서 60%以上の 黨 및 行政機關幹部에게 處分을 하였다.

특히 江原道の 경우 道黨委員長, 道人民委員會 委員長에 이르기까지, 단 한사람만 남겨놓고 모두 黨으로부터의 追放, 解任, 格下處分을 받았다. 그 때문에 黨幹部가 不足하여 後方으로부터 里黨委員長以上の 幹部 數 10名으로 보충한 소동도 일어났다.

“集中指導事業”은 中央黨, 行政, 軍幹部로부터 地方機關部에 미치고, 드디어 一般民衆에게까지 파고들었다. 「北韓總鑑」에 의하면 “集中指導그룹”은 “反革命分子와의 鬭爭을 全黨 全人民的 運動으로서 展開하자”라고 하는 “5.30決定”에 따라 金日成政權을 支持하느냐, 支持하지 않느냐를 基準으로 全民衆을 ① 核心勢力 ② 中間勢力 ③ 反對勢力 등의 3個階層으로 分類하였다.

核心勢力이라는 것은 金日成政權을 無條件 支持하는 階層으로서 金日成一黨이 自己의 權力基盤으로 보고 있는 자들이다. 이 階層은 北韓의 全人口의 3分の 1을 차지하며, 다음과 같은 人物들로 構成되어 있다.

① 革命家の 遺家族, ② 人民軍과 後方に 있는 그의 家族들  
③ 黨 및 行政機關의 幹部와 그의 家族, ④ 6.25 動亂時의 死亡者家族

中間勢力이라는 것은 核心勢力으로도 反對勢力으로도 分類되지 않은 勞動者 農民層이다.

反對勢力은 金日成政權을 拒否 내지는 嫌惡하는 자로서 潛在的인 “反革命分子”로 看做된 자들이다. 그의 수는 北韓全人口의 3分の 1로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된다.

① 越南者家族 및 6.25 當時에 治安隊員이었던자와 그의 家族, ② 過去에 宗教人, 地主, 企業家, 商工人이었던 자와 그의 家族들, ③ 歸還포로와 그의 家族들, ④ 日帝時代に 官職에 있던 자와 그의 家族들, ⑤ 人民軍脫走者와 그의 家族들, ⑥ 服役者 및 出獄者와 그의 家族들이다.

또한 “潛在的인 反革命分子”의 處理基準은 다음과 같다.

① 越南者家族, ② 6.25 動亂中 反共團體加擔者, ③ 宗教人과 그의 家族, ④ 前地主와 그의 家族, ⑤ 商工業者와 그의 家族, ⑥ 宗派關聯者와 그의 家族, ⑦ 韓國出身者, ⑧ 前職(日本統治時代의 職業)關係者와 그의 家族, ⑨ 服役者와 家族, ⑩ 出獄者와 그의 家族, ⑪ 自由移住者(6.25 動亂時) ⑫ 歸還포로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 “反對勢力 혹은 潛在的인 反革命分子”에 대해서는 “公開鬭爭” “小組鬭爭”이라고 불리우는 “思想檢討”가 행하여졌다.

“公開鬭爭”은 위로는 道·市單位에서, 밑으로는 郡, 里, 洞, 企業, 工場單位에서 展開되어 “反革命分子”의 摘發이 이루어졌다. 「北韓總鑑」은 當時의 公開鬭爭을 다음과 같이 記述

하고 있다.

즉, 公開鬪爭은 “集中指導”의 全過程을 통해서 가장 深刻한 方法이었기 때문에 必要한 때에 한해서 組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平壤市에서는 區마다 20件, 江原道에서는 郡마다 5件, 開城市에서는 20件, 黃海道에서는 郡마다 10件程度 群衆公開鬪爭이 實施되었다.

말하자면 “公開鬪爭”이라는 것은 自首를 強要하기 위한 模範게임이었다. 그리고 境遇에 따라서는 “公開鬪爭”의 現場에서 人民裁判이 열려 卽席에서 兇살을 執行하는 形式도 採用되었다. 그들은 이와같은 模範게임을 各道마다 5件씩을 組織하였다.

### 恐怖의 “붉은 都市化計劃”

金日成의 “集中指導事業”이라는 肅清運動은 一般民衆을 끌어들이며 “反對勢力”과 “潛在的 反革命勢力”을 摘發하는 “公開鬪爭”이라는 이름하에 “人民裁判”으로 展開되었다.

「北韓總鑑」所收의 方仁厚論文 “북괴의 司法機構와 運營”에는 「實錄·南勞黨」의 著者 金南植(前 慈江道黨 宣傳部長)이 目擊한 “人民裁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즉, 人民軍에서 脫走하여 숨어있던 30歲쯤 보이는 男子인데 그를 “反革命分子”로 當局에 申告한 그의 처 그리고 그의 子息을 숨겨준 老父母 등 4人의 被告에게 평양의 어떤 작은 산 밑에서 10萬名의 大觀衆을 動員해서 人民裁判이 열렸다. 裁判은 “反革命分子를 摘發하라” “肅清하라” “金日成首相萬歲” “朝鮮勞動黨萬歲” 등을 외치는 群衆의 목소리가 그치면서 開始되었다.

主席團(裁判長과 檢事)의 被告에 대한 簡單한 審問이 있은 후 父子에게는 死刑, 申告한 妻에게는 無罪, 申告하지 않은 老婆에게는 犯人隱匿罪로 10年の 懲役이 宣告되었다. 그러자 待機하고 있던 內務署長은 당장 父子의 입을 막고, 銃殺臺에 붙들어 매어놓고 內務署員 6名이 射擊態勢를 취하였다가 指導官의 指示에 따라서 銃殺을 執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公開鬪爭과 함께 “集中指導그룹”은 “反革命分子” 摘發에 “小組鬪爭”이라 불리우는 小그룹鬪爭方式도 採用하였다. 이 方式은 集中指導그룹 5~6人으로 “小組”를 만들어 容疑者를 集中的으로 審査하는 것으로서 「北韓總鑑」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施行하였다고 한다.

즉, 審査對象者는 獨房에 監禁되고 外部와의 관계는 一切 中斷한다. 寢食用便까지도 “指導그룹”의 監視下에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단 小組鬪爭이 벌어지면 2~3個月씩 晝夜間을 가리지 않고 審査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의 對象者는 處刑될 運命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潛在的인 反革命分子”로 보이는 民衆中 특히 “惡質”이라고 判斷된 자에게는 “強制移住”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北韓總鑑」에 의하면 이 強制移住는 “反革命分子와의 鬪爭을 全黨 全人民的 運動으로 展開하자”라는 題下에 “5.30決定”에 따라 非公開로 公布된 “內閣決定 149號”라는 法令으로 實施되어 “붉은 都市化計劃”을 目標로 한 것이다.

“集中指導그룹”에 의해서 “反革命的 要素”라고 보인 民衆은 海岸線과 軍事分界線으로부터 20킬로, 그리고 各 都市로 移住할 것이 義務로 되었다. 그러한 地域은 結局 現在의 慈江道를 包含한 平安北道, 現在의 兩江道를 包含한 함경북도

등의 內陸地方으로 限定하게 되는 것이다. 結局 山間僻地로 “潛在的인 反革命分子”를 追放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北韓總鑑」에 의하면 強制移住의 對象者의 規模는 다음과 같다.

즉, 內閣決定의 對象者는 “集中指導”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一時에 執行할 수는 없어 約 1年間に 걸쳐 順番으로 實行에 옮겼다. 그 對象者의 수는 ① 평양시에서 約 5,000 世帶, ② 開城地區에서 約 600 世帶, ③ 黃海南道에서 約 1,500 世帶, ④ 江原道에서 約 1,000 世帶로서 合計 約 8,000 世帶에 이르렀다고 推定된다.

이것을 1 世帶當 5 人家族으로 본다면 約 4 萬人的 “潛在的인 反革命分子”가 都市로부터 쫓겨 山間僻地로 強制移住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代身 軍事休戰線附近에는 北韓을 脫出하여 越南할 可能性이 적은 獨身除隊軍人들을 데려다 놓았다. 그 뒤를 이어 그들을 이곳에 定着시키기 위해서 內陸地方인 慈江道, 兩江道에서 未婚女性 約 2 千人을 “3 個月間 愛國勞動”에 參加한다는 名目으로 끌고 왔다. 그리하여 이들 未婚女性들은 그후 영원히 자기들의 父母가 사는 故郷으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되고, 黨의 計劃대로 이곳에서 除隊軍人과 生活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山間僻地에로의 強制移住外에 새로히 “強制勞動收容所”가 設置되었다. 「北韓總鑑」에 의하면 強制收容所에 끌려간 “反革命分子”의 수는 평양시에서 約 3 千人, 開城地區 約 5 百人, 黃海南道, 江原도가 各各 約 千人으로 合計 約 5 千 5 百人으로 推定된다.

또 人民裁判이나 其他의 大衆鬪爭에 회부되어 處刑 또는 拘束된 자는 約 2 千 5 百人程度는 된다. 그중 約 千人이 處刑되

고 나머지 約 千 5 百人과 強制勞動收容所에 들어간 約 5 千 5 百人을 합하면 約 7 千 人이 延安派, 蘇聯派의 肅清過程에서 獄中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文藝界에도 肅清바람

金日成의 延安派 蘇聯派에 대한 肅清은 當然한 것이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北韓의 文藝界에까지 波及되었다. 國際的인 “非스탈린化”의 물결은 北韓의 文學家 藝術家 등의 文化人의 “文藝自由化”의 要求를 불러 일으키고, 그것이 金日成의 個人崇拜 獨裁政治에 대한 批判과 直接 結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北韓의 文藝界에서는 韓國戰爭 終結後인 1953 年 8 月의 “南勞黨派” 肅清裁判에서 “美帝間諜”으로 處刑된 李承燁(解放日報主筆)과 獄死한 것으로 전해진 李源朝(黨宣傳煽動部 副部長) 그리고 詩人 林和와 金南天 등 “越北文化人”들이 모습을 감추었다.

그 후까지 남아있던 文化人으로서 “金日成批判派”는 역시 越北文人들로서 그 代表者는 作家인 李泰俊 등이며, 그들은 蘇聯派의 文化宣傳省의 奇石福 副相 등의 支持를 받고 있었다.

金日成은 李泰俊 등의 肅清에 있어서 當時 金日成의 “唯一革命傳統” 思想 造作에 協力하고 있던 作家 韓雪野를 맨앞에 내세웠다. 韓雪野, 朴金喆, 金昌滿 등은 數個月에 걸쳐 展開된 文藝界의 “思想檢討事業”에서 李泰俊 등을 이미 解任되어 있던 “蘇聯派”의 朴昌玉(黨文化 宣傳煽動擔當 副委員長) 과 奇石福(前 文化 宣傳省 副相) 등과를 結付시켜서 攻擊하였다.

서울의 共產圈問題研究所가 68 年 6 月에 出版한 「北韓總鑑」

에 의하면 56年1月13日 평양시 黨委員會主催로 召集된 “文學, 藝術, 出版部門 熱誠者會議”가 李泰俊 등 “金日成批判派”의 文化人肅清劇의 舞臺로 되었다.

會議는 韓雪野의 主導로 열려 金昌滿, 朴金喆이 參加하였다. 司會는 韓雪野直系인 安漠(奇石福解任後의 文化宣傳省副相)이 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李泰俊의 攻擊이 展開되었다.

즉, 李泰俊은 부르조아反動作家이다. 그는 勞動者階級の 組織的 文化隊列이었던 카프에 反對할 目的으로 出現한 反動文化團體인 “九人會”(日本統治時代에 카프에 對抗하기 위해서 組織된 “純文學派”의 組織)의 組織者로서 日帝의 走狗가 되어 革命的인 文化團體를 抑壓하였다.

李泰俊에 대한 攻擊과 더불어 지난날 “九人會”의 會員이었던 文學家 藝術家들이 非難을 받았다. 統一日報에 게재된 “朝鮮勞動黨略史를 밝히다”의 鄭益友 論說委員에 의하면, 67年 8月 서울의 內外問題研究所가 發行한 「奔流」에 掲載된 李喆周의 論文 “北韓藝術家的 末路”에는 “九人會”의 有力한 會員이었던 作家인 朴泰還의 過去의 作品 “川邊風景”도 非難을 받았다고 쓰여져 있다. 그리고 詩人 靑碧岩도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의 잔재를 清算하지 못하였다”라고 罵倒되고, 作家 池文奉도 思想檢討中 出身成分이 地主였다는 것이 發見되어 排除되었다고 記述하고 있다.

그 밖에 金貴蓮, 洪鍾麟, 金朝奎 등 多數의 越北文化人이 李泰俊과 함께 “反動부르조아分子”로 肅清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蘇聯出身으로 45年 解放後 평양에 들어와 文化宣傳省 副相, 作家同盟機關紙 「文化戰線」主筆로 活躍한 文藝理論家 鄭律도 越北文化人을 支持하였다는 理由로 肅清되었다.

이 越北文化人들의 肅清後, 金日成은 56年 12月 25日에 行한 “文學·藝術指導活動家들과의 談話”에서 一部の 作家들을 非難하여 다음과 같이 論하였다.

現在 一部 作家들은 黨組織이 作品創作事業을 指導하는 것을 마치 作家의 意見을 無視하고 組織의 意見을 強要하는 것처럼 생각하여 黨組織의 指導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또 一部 作家들 가운데는 “創作의 自由”에 동경한다든지 “悲哀”的인 作品을 쓸려고 하는 現象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들은 一部 作家들이 “創作의 自由”를 외치면서 資本主義思想과 부르조아의 自由를 說教하는 것을 絕對로 許容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金日成은 創作의 自由를 要求하였다는 一部 作家들을 “自由主義·修正主義的 思想傾向의 具體的 表現”이며, 그들이 依支하고 있는 “機會主義的 文藝理論”에 단호히 鬪爭하는 것이 北韓의 文學 藝術家의 課題라고 強調하였다.

이러한 非難으로 보아서 李泰俊 등 越北文化人이 “非스탈린化”의 潮流를 敏感하게 받아들여 “創作의 自由”를 要求한다는 形式을 취하면서 實은 勞動黨의 文藝政策의 民主化 自由化를 主張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金日成 등은 創作의 自由를 認定하지 않으며, 이것을 要求한 作家들에게 “自由主義·修正主義”의 낙인을 찍어서 彈壓하고 만 것이다.

### 춤출수 없게된 舞姬 崔承喜

金日成의 延安派 소련派 肅清의 마수는 日本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舞踊家 崔承喜와 그의 남편 文化宣傳省 副相인 安漢에게도 뻐쳤다.

崔承喜는 1913年 서울에서 出生하고, 日本統治時代에는 “朝鮮의 舞姬”로 世界的으로 알려져 있었다. 45年 解放直後, 安漠과 함께 越北하여 48年에 北韓最高人民會議 代議員으로 되고, 52年 12月에는 舞踊家同盟委員長, 53年 9月부터는 “國立崔承喜舞踊研究所” 所長으로 되어, 北韓의 舞踊界를 指導하였다. 그 期間에 소련·東歐를 巡回公演하고 57年 7月에 “國旗勳章第1級”을 받았다.

그런데 58年 10月 남편인 安漠이 肅淸된 후 金日成으로부터 “利己主義者, 功名主義者”라고 非難을 받고, 崔承喜 舞踊研究所도 閉鎖되고 一切의 職位에서 解任되었다. 61年 1月에는 舞踊家同盟委員長으로 되돌아 왔으나 實際로 舞踊活動은 할 수 없게 되어 66年以後부터는 消息不明으로 되고 말았다.

崔承喜의 남편 安漠은 京畿道出身으로 35年에 早稻田大學 露文學科를 卒業하였으며, 45年 解放直後 越北하여 46年 3月 北朝鮮文藝總中央常任委員이 되었고 54年 3月에는 平壤音樂大學總長, 그리고, 56年 2月에는 文化宣傳省 副相으로 되었으나, 58年 9月에 드디어 反宗派分子, 敵의 스파이 등의 罪目으로 肅淸되고 말았다.

서울의 共產圈問題聯究所 發行의 「北韓總鑑」에 의하면 崔承喜에 대한 肅淸은 남편이며 文化宣傳省 副相이었던 安漠이 “敵의 스파이”로 斷罪되고, 北韓의 秘密警察에 逮捕된 直後에 斷行되었다.

秘密警察은 58年에 들어와서 安漠에게 “反黨宗派分子”의 容疑로서, 平安南道出身作家이며, 作家同盟中央委員, 書記長 및 副委員長을 歷任한 徐萬一 등과 함께 逮捕한 것이다.

그런데 安漠은 金日成主席의 “宮廷作家”라고 불리우는 韓

雪野의 直系이며 李泰俊 등 越北文化人의 肅淸에 功績이 큰 人物이었다. 그때문에 秘密警察은 安漢이 日本統治時代에 東京에 있었다는 것을 弱點으로 잡아 非合法時代에 共產主義者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轉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였다.

南勞黨派, 延安派, 蘇聯派의 肅淸을 맡았던 審問官들은 安漢逮捕後 家宅搜索에서 發見된 貴金屬製의 裝飾品을 安漢의 犯罪를 立證하는 有力한 “物的 證據”로 利用하여, 安漢이 貴金屬裝飾品을 은닉해서 所有하고 있는 것은 “敵의 스파이”의 證據라고 斷定하였다.

安漢 등을 肅淸하고 나서 金日成一黨은 崔盛희에게 손을 댔다. 58年9月 中旬에 평양에서 열린 各道黨宣傳部長會議에서 當時 黨宣傳煽動部長이었던 李一卿은 崔盛희의 罪狀을 다음과 같이 告發하였다.

- ① 日帝의 잔재사상 특히 資本主義藝術家로서의 잔재가 있다.
- ② 黨組織原則을 소홀히 하고, 舞踊學校 初級黨을 無視하였다.
- ③ 人民의 支持를 받을 수 없는 舞踊을 하였다.
- ④ 崔盛희가 이와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은 安漢의 영향이었다 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崔盛희 舞踊研究所는 閉鎖되고 “國立舞踊團”도 改稱되었으나 崔盛희는 軟禁狀態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崔盛희의 이름은 널리 世界的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崔盛희를 再次 實權이 없는 舞踏家同盟의 委員長으로 就任시켜 世人의 눈을 피한 것이다.

崔盛희 安漢夫婦의 肅淸後 金日成主席은 58年10月14日에 행한 “作家藝術家中에 남은 思想 잔재에 反對하는 鬭爭을 強力히 展開할데 대하여”라는 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오늘날 絶對多數의 作家, 藝術家들은 우리黨의 思想으로 團結하여 黨과 人民을 위해서 鬪爭하고 있다. 그러나 一部 作家 藝術家中에는 우리黨의 思想, 共產主義思想과는 인연이 없는 낡은 思想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그와같은 實例를 “舞踊의 大家”라고 自稱하고 있는 한 藝術家에서 發見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받고 칭찬받으며 賞을 타게 되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不平을 하여 이것 저것 非難하면서 黨에 대해서 露骨的으로 不滿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指名은 하지 않았지만 “舞踊의 大家”라는 것은 當時 평양에서 “최승희舞踊研究所”를 主宰하고 있던 최승희에 관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최승희는 45年 解放當時 32才의 젊은 무용가였으나, 남편 安漠과 越北하면서부터 金日成의 延安派, 蘇聯派 肅清의 틈에 끼어 “무용의 꽃”을 피울 겨를도 없이 悲慘한 晩年을 보내고 말았다.

### 蔣介石의 間諜으로 된 拉北要人

金日成의 延安派 蘇聯派 肅清運動의 犧牲者中에는 6.25 動亂時 北韓으로 끌려간 韓國의 要인들이 있었다. 動亂中 北韓은 韓國의 政治家 高級官吏 學者 文學家 藝術家 宗教人 등을 체포하여 一部는 총살하고 其他는 北韓으로 납치하였다.

그 가운데는 上海 重慶臨時政府에 參加한 獨立運動家인 金奎植, 金尙德, 金明濬, 趙素昂, 趙琬九, 嚴恒燮, 崙東昨, 尹奇燮과 韓國에서 中間派로 보이고 있던 元老인 吳夏英, 元世勳 그리고, 國會議員 金東元, 金用茂, 白寬洙, 白象圭, 徐廷禧 등이 있다.

그 밖에 49 年の “南勞黨 國會푸락치事件”의 주모자로 投獄되었다가 動亂中 出獄하여 스스로 越北한 金若水, 李文源 盧鎔煥, 崔泰奎 등이 있었다.

납치된 要人들은 北韓에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에 들어갔으나, 이 組織은 勞動黨의 外郭團體로서 韓國에 대한 對南宣傳에 利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要人中の 大部分은 北韓當局에 協力하지 않고, 오히려 抵抗하였다. 「北韓總鑑」에 의하면 “납북요인” 중의 많은 사람은 北韓當局이 要求한 對南虛僞宣傳에 抗議하고, 특히 趙素양은 한때 默秘權으로 趙鎔에 對抗하였다는 것이다. 또 엄항섭도 “南朝鮮義勇軍”으로 入北한 子息의 蘇聯留學을 條件으로 하는 對南宣傳 強要때까지는 勞動黨에 協力할 것을 拒否하였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抵抗에 直面한 金日成은 이들 要人에게 特別政治思想教育을 實施하게 되었다.

當時 평양의 人民經濟大學에 在學하고 있던 蘇貞子가 쓴 「내가 反逆者이나」(67年1月 出版)에 의하면, 人民經濟大學에 “特設班”이 設置되어 엄항섭 등 韓國의 國會議員, 大學教授 등 約 百餘名이 收容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56年 7월에 金若水, 李文源, 노일환 등을 中心으로 “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를 組織시켜 여기에 人民經濟大學의 “特別班”의 卒業生을 配置시켰다는 것이다.

“납북요인”들에게 政治思想教育을 實施하고, 同時에 “平和統一促進協議會”에 參加시켜 對南宣傳에 利用하려고 한 것이 金日成의 目的이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의 協力を 얻을 수가 없었다. 그때문에 金日成은 一變하여 利用價値가 없게 된

“남북요인”들의 肅淸을 斷行하기로 한 것이다.

「北韓總監」에 의하면 “남북요인”의 肅淸이 本格화된 것은 58年中이었다. 肅淸의 手法은 남북요인의 大部分이 上海 重慶에서 民族獨立運動에 從事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장개석의 스파이”라는 罪名을 붙인 것이다.

조소앙에 대해서는 “重慶에 있을 때부터 共產主義者를 殺害하고 장개석에게 忠誠을 다한 食客인 民族反逆者이다. 평양에 와서도 勞動黨을 支持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不平不滿을 하였다”라는 罪狀을 붙였다.

또 엄항섭에 대해서는 “同僚를 糾合하고 宗派(分派)를 노리며, 南北韓의 中立主義者들을 끌어들이어 “反政府陰謀計劃”에 따른 政府樹立을 꿈꾸고 있었다”고 指彈하였다.

“延安派”의 高鳳基는 김두봉과 마찬가지로 過去 中國에 있었기 때문에, “장개석의 스파이”로 되어 “장개석의 特務機關 藍衣社의 特務로 服務한 革命의 敵이다”라고 규탄을 받았다.

또 「北韓總監」에 의하면 엄항섭은 集中的으로 高문을 당하여, 犯罪를 自白하였다고 하는 “自白書”에 署名하였다는 것이다. 윤기섭, 조소앙, 송호성, 元世勳 등은 “反政府陰謀計劃”의 關聯者로 肅淸되었다. “反政府陰謀計劃”이라는 것은 金日成主席이 南勞黨派나 蘇聯派 延安派 幹部들을 肅淸하였을 때 使用했던 常套的인 手段이었던 것이다.

金日成의 肅淸의 마수는 6.25 動亂後 스스로 越北한 “南勞黨國會푸락치事件”의 主謀者 金若水(當時 大韓民國 國會 副議長)과 노일환도 용서없이 處斷하였다.

金若水는 1920年 朝鮮勞農共濟會를 만들고 23年에 北星會, 北風會, 朝鮮青年同盟을 組織한 以來, 共產主義運動에 從事해

왔다. 解放後 李承晩政權時代에 韓國의 國會議員으로서 駐韓美軍의 撤收를 主張하였고, 南勞黨에 속해 있었던 것이 判明되어 逮捕되었다. 이것이 有名한 49年 5月의 “南勞黨國會푸락치事件”이라는 것이다.

投獄되어 있던 南勞黨派 國會議員은 韓國戰爭中 北韓軍에 의해서 釋放되어 自進해서 越北한 자들로서, 59年 3月 이들은 드디어 “反政府陰謀計劃”에 가담한 反黨反革命分子로 平安北道の 僻地로 追放당하지 않으면 안될 運命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 延安·蘇聯派는 美帝間諜

56年 8月의 “8月宗派事件”에서부터 시작된 金日成의 延安·蘇聯派의 肅淸作業은 그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 이미 除去되었던 南勞黨派, 北韓地域國內派, 그리고 民族獨立運動에 從事하다가 北韓으로 들어간 民族主義者들을 包含해서 그의 大部分을 “美帝의 간첩”으로 매장시켜 버렸다.

이 肅淸劇을 總括한 것이 58年 3月 5日의 勞動黨 第1次代表者會議였다. 同會議는 다음과 같이 總括하였다.

“1958年 3月의 黨代表者會議는 우리黨의 強化 發展에 있어서 매우 重要的 意義를 가진다. 代表者會議와 더불어 偉大한 首領 金日成同志의 周圍에 鐵石같이 團結한 우리黨의 戰鬥的 威力을 全世界에 示威하였다. 黨代表者會議는 歷史的으로 흘러 오면서 오랜동안 革命과 建設에 막대한 害毒을 끼친 宗派의 汚物을 씻어버리고 빛나는 勝利를 總括하여 黨의 統一과 團結을 보다 強化하기 위한 產業課業을 規定한 會議였으며, 우리黨發展의 重要的 契機를 열었다.”

同代表者會議에서 “黨의 統一과 團結을 一層 強化하기 위하여” 라는 報告를 하여 “反宗派鬭爭”을 總括한 것은 박금철 副委員長이었다. 박금철 報告는 또 다음과 같다.

“朴憲永, 李承燁 등 美帝國主義者의 고용간첩일당을 비롯하여, 朴一禹, 許哥而 등 宗派分子 個人英雄主義者들은 黨이 發展하는 過程에서 그 以上 黨內에 머무를 자리를 잃고, 드디어 摘發 暴露되고 말았다. 이 심각한 歷史的 教訓에도 不拘하고 最近 우리 黨內에는 崔昌익, 朴昌玉 등의 反黨宗派分子들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崔昌익을 비롯한 宗派分子들은 이미, 1920年代 “M.L派”의 主要人物로서, 所謂 “派閥撲滅”의 看板을 내걸고도 分派活動을 하면서 朝鮮勞動黨에게 莫大한 害毒을 준 것이다.

“元來 골수에 숨어든 宗派思想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崔昌익일당은 解放後 朝鮮에 찾아들어온 그날부터 다시금 分派活動을 계속하였다. 이들은 過去로부터 派閥根性이 농후한 자나 不平分子끼리 서로 野合하여 보다 더욱 自己들의 分派的 地盤을 構築하여 表面으로는 黨을 支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裏面으로는 몰래 黨에 反對하는 등 表裏不同의 二面的 態度를 취해 왔다.” 라는 報告內容이었다.

더우기 朴金喆 報告는 崔昌益 일당이 朴憲永 一黨과의 派閥鬭爭을 助長하여 南韓에서 黨을 分裂 瓦解시켜, 드디어 黨과 革命을 背反하는 反革命的 陰謀까지 劃策하였다고 하여 그의 “罪狀”을 규탄하였다.

崔昌익은 함경북도 出身으로서 1920年代에 서울青年黨에 關係하여 朝鮮共產黨 統合問題로 모스크바에 派遣되었다. 25年

滿州 등에서 獨立運動에 從事하면서 朝鮮共產黨 M.L派의 主要人物로 되었다. 27年 第3次共產黨事件으로 日本官憲에 逮捕되고 崔益翰, 河弼源 등과 服役하였다. 出所後인 36년에 中國으로 건너가 金元鳳, 金料奉, 韓斌 등과 民族解放鬪爭을 展開하였다. 42年 7月 延安에서 組織된 朝鮮獨立同盟 副主席으로 되고, 同時에 朝鮮義勇軍創設을 指導하였다.

45年 解放後에 평양에 들어와 46年 北朝鮮 新民黨 副委員長으로 된 것을 계기로 北朝鮮人民委員會 人民檢閱局長, 勞動黨政治局委員, 財政相, 副首相, 國家檢閱相 등의 要職을 歷任하고 50年 1月에 國旗勳章 第1級을 받은 바 있다.

이와같이 獨立鬪爭의 빛나는 經歷을 갖은 “延安派”의 巨頭 崔昌益은 56年 8月の “8月宗派事件”의 主謀者로서 金日成에 대한 “反政府陰謀”를 計劃한 “反黨反革命宗派分子”로 규탄되어 肅清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革命運動의 實績 모두가 “宗派活動”으로 告發당하고 만 것이다.

그 肅清을 合理化하기 위해서 “美帝間諜”이라는 レッテル을 붙이는 手法은 朴憲永 등 南勞黨派大肅清時와 똑같은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延安派 소련派 肅清時 主要한 役割을 擔當하고, 그 德澤에 黨第1次代表者會議에서 “反宗派鬪爭”의 總括報告를 할 수 있는 “榮光”을 받은 朴金喆도 後年 日帝時代에 “敵의 間諜”이라는 罪目으로 드디어 金日成으로부터 肅清되고 만 것이다.

스탈린批判後 56年부터 57년에 걸쳐 蘇聯, 東歐, 中國에서 “非스탈린化運動”이 進行되고 있는 때에, 꺼꾸로 北韓에서는 金日成이 그의 上典 스탈린에 忠實하여 스탈린과 같은 手法으로 大肅清을 展開하고 있었다.

### 黨內反對派는 右翼投降主義

金日成의 延安派 소련派 肅清作業을 總括한 58年 3月 5日의 第1次黨代表者會議에서의 朴金喆報告는 崔昌益 등 黨內反對派를 “宗派分子” “美帝間諜”으로 斷定하였을 뿐 아니라 政治路線, 政策을 修正主義, 右翼投降主義라고 非難하였다.

이것은 金日成이 黨內民主主義를 둘러싼 “非스탈린化”의 潮流를 어떻게 받아드렸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朴金喆報告는 다음과 같이 總括하였다.

“이들은 黨建設과 黨生活에 대한 레닌의 規範의 礎石으로 되는 黨의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의 原則에 反對하여, 黨內에서 無原則한 “民主主義”와 分派活動의 “自由”를 要求하고, 드디어는 反마르크스主義的인 所謂 “分派有益說”까지 主張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朴金喆報告는 “反黨反革命宗派分子”의 犯罪의 하나로서 黨의 指導的中核을 破壞하고, 黨과 政府의 幹部隊列을 混亂狀態로 몰아넣는데 있었다고 하여 이러한 崔昌益 一派가 다른 나라들의 修正主義者와 마찬가지로 푸를레타리아獨裁에 관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學說을 拒否하고, 부르조아의인 自由에 대한 權利를 主唱하는 등 右翼投降主義로 轉落하게 된 것은 當然하다고 主張하였다.

또한 朴金喆報告는 이와같은 右翼投降主義로 轉落한 典型的인 하나의 例로서 崔昌益 一派가 “日帝”와 “美帝”의 두개의 帝國主義의 間諜으로서 處刑된 朴憲永 등 南勞黨派幹部나 金日成의 肅清의 犧牲者로 된 사람들의 無罪釋放을 要求한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非難하였다.

“그들은 遵法性이라든가 人權옹호 등의 口實下에 우리 人民

民主主義制度의 法秩序를 亂暴하게 違反하고, 人民의 正當한 審判을 받은 朴憲永分子들의 無罪釋放을 劃策하고, 또 우리黨의 基本大衆을 抑壓하여 이미 一掃된 地主 資本家와 信賴할 수 없는 不健全한 階層과 結束하여 참을 수 없는 非階級的 現象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朴金喆報告는 또 最高人民會議 議長(元首)인 金料奉과 職業同盟委員長 徐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非難하였다.

“金料奉은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를 黨의 위에 올리려고 하였다. 徐輝는 職業同盟은 黨보다 더욱 많은 盟員을 갖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權威는 黨보다 크다 라고 하여 제멋대로의 口實을 내 걸고, 푸를레타리아獨裁體制에서 黨을 生産分野의 勤勞大衆을 連結시키는 連結帶로서의 職業同盟이라는 것을 모르고 職業同盟을 黨위에 놓는다고 함으로써 黨의 指導를 拒否하였다”고 하였다.

崔昌益 등이 主張하였다고 非難받은 “修正主義的主張”이란 黨內民主主義를 無視하는 것이며, 그것은 第3次黨大會에서 採擇된 黨規約에 規定되어 있다.

따라서 崔昌益 등 延安派 소련派의 主張이야 말로 正當性이 있었던 것이다. 金日成은 그것을 逆賦으로 몰아 黨內民主主義를 主張하는 崔昌益 등 反對派를 “修正主義者” “右翼投降主義者”로 매장시켰다.

한편 經濟建設面에서는 延安派 소련派 등 黨內反對派는 스탈린主義의인 軍事優先의 重工業 一邊倒政策에 反對하고, 民衆의 生活向上을 優先시키는 柔軟한 政策을 要求하였다. 그러나 金日成은 重工業優先路線에 固執하여 黨內反對派를 “反革命的 理論의 所有者로 非難하였다. 金日成은 58年2月8日 人民軍

第 324 部隊 管下の 장병에 대해서 행한 “朝鮮人民軍은 抗日武裝鬪爭의 계승자다”라는 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黨의 經濟政策이 正確한 것은 議論의 餘地가 없음에도 不拘하고 反黨 宗派分子들은 우리黨의 經濟政策을 非謗하고 反對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經濟를 研究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黨이 하는 일을 非難하고 重工業을 優先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들의 主張은 工業이나 農業을 復舊 또는 發展시키지 않고, 他國으로부터 받는 援助, 換言하면 소련으로부터의 1億루블, 中國의 8萬億元 그리고 其他의 社會主義國家로부터 받는 援助로 쌀이나 淸酒 같은 消費品을 사서 몇年동안 먹어버리려 하고 있다. 反黨派의 本來의 意圖는 우리나라를 困難하게 만들고 革命을 破綻시키는 데 있었다. 그들의 主張은 反革命的 理論이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金日成은 “非스탈린化”의 一環으로서 重工業優先路線의 修正을 主張한 黨內 反對派를 “反革命”이라고 非難하고 肅清의 하나의 口實로 삼았던 것이다.

### 헝가리事件으로 活路

南勞黨派의 肅清에 이어 金日成은 延安派 소련派 肅清에도 成功하였다. 1956年 2月の 소련共産黨 第20次大會에서 후르시 초프의 스탈린批判이 이루어지고 56年에서 57年에 걸쳐 소련 東歐 中國에서 “非스탈린化”의 潮流가 浸透하고 있던 바로 그때 北韓에서는 그와는 反對로 金日成의 個人崇拜 獨裁政治를 批判하는 黨內反對派가 뿌리채 肅清된다는 “逆流”가 支配하였다

當初 金日成은 “非스탈린化”를 反映한 黨內批判派의 壓力

에 늘리어 56年 4월에 열린 勞動黨 第3次大會에서 讓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黨規約에 “黨內民主主義” “集團指導의 原則”을 明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一時的인 “妥協”에 不過하였다.

金日成은 56年 8月 30일에 열린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本色을 드러냈다. 金日成의 個人崇拜 獨裁政治를 批判한 “延安派”의 尹公欽, 崔昌益, 소련派의 朴昌玉 등을 “8月宗派事件”의 陰謀計劃 主謀者로 黨에서 追放했다.

그러나 이 事態를 우려한 中國과 소련은 彭德懷와 미꼬얀을 평양에 파견하여 壓力을 行使하였다. 金日成은 中國 소련의 권고에 의해서 黨內反對派에게 寬大한 處理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8月宗派事件”으로부터 約 1個月後인 9月 23日의 勞動黨 中央委 全員會議에서 崔昌益 朴昌玉 등의 黨으로부터의 追放處分을 撤回한다는 “妥協”을 하였다.

56年 9月 29日의 「로동신문」에 게재된 “公報”는 다음과 같이 黨內批判派의 黨追放處分의 撤回를 報導하였다.

즉 “朝鮮勞動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가 9月 23일에 開催되었다. 全員會議에서 崔昌益, 尹公欽, 徐輝, 李弼圭, 朴昌玉 등의 規律問題에 관한 黨中央委員會 8月全員會議의 決定을 再審議하였다.

以上の 諸氏가 범한 과오는 8月全員會議에서 審査한 것처럼 물론 重大하다. 그러나 9月全員會議는 黨內的 思想意思의 統一을 더욱 強化하고 우리 黨의 團結된 모든 力量을 當面한 革命課題遂行에 發揮해야 할 必要가 있다는 切實한 願望下에, 가령 그들이 범한 과오가 重大하다 해도 그들을 관대하게 포용

하여 그들에게 自己의 과오를 反省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 그들이 과오를 고치고 올바른 길로 들어가도록 계속 끈기있게 教育하기 위해서 崔昌益, 朴昌玉氏를 黨中央委員會에 復歸시키고, 尹公欽, 徐輝, 李弼圭氏를 黨生活에 復歸시키기로 決定하였다.

金日成은 이 정도까지 쫓기고 있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援軍”이 金日成에게 편을 들게 되었다. “8月宗派事件” 主謀者에 대한 處分撤回를 決定한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로부터 約 1個月後인 56年 10月 23日에 헝가리事態가 發生하였다.

金日成은 헝가리事態에 대한 소련軍의 介入과 彈壓을 始終 支持하였다. 소련軍에 의해서 카타르를 首班으로 하는 親蘇政權이 수립된 直後인 11月 12日 金日成은 다음과 같은 祝電을 보냈다.

즉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와 全朝鮮人民은 헝가리 勞農革命政府의 創建을 祝賀하며, 헝가리의 愛國的인 革命勢力이 소련의 援助下에 反動分子의 破壞的 活動을 粉碎하고 過去 11年間に 걸쳐 爭取한 高貴한 社會主義의 成果와 民族的 獨立, 그리고 人民民主主義制度를 守護한 헝가리兄弟人民의 勝利를 크게 환영한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다만 金日成이 소련에 환심을 얻자는 것만은 아니었다. 헝가리에서 “非스탈린化”를 彈壓한 소련의 결단을 金日成은 自己일처럼 환영하였던 것이다.

헝가리에 親蘇政權이 수립되고 3週間後인 56年 11月 25日에 열린 “黨組織員講習會”에서 행한 “現時期에 黨組織員앞에 제기된 몇가지 課題에 대하여”라는 演說에서 金日成은 헝가리事件이 “美帝와 그의 走狗의 策動에 의해서 일어난 反政

府暴動이다”라고 斷定하고 다음과 같이 論하였다.

즉, 最近 어떤 兄弟國에서는 黨과 政府를 전복하려는 反動들의 기도가 있었다. 兄弟黨內에 潛入하고 있던 反動分子, 宗派分子, 機會主義者들도 복잡한 情勢를 利用하여 自己들의 野望을 채우려는 악랄한 策動을 하였다.

특히 反動分子들은 오랫동안 革命을 指導한 老幹部를 排擊하고, 黨을 分裂 破壞하고 反政府暴動을 일으키려고 企圖하고 있으나, 이것은 하나의 國際的인 潮流처럼 되어 있다 라고 하였다.

이 때의 金日成은 희색이 滿面한 것처럼 보였다. 金日成은 自國의 “反革命宗派分子”들에게 대해서 이러한 演說을 하고 滿足하였던 것이다.

### 소련의 “混亂”을 利用하다

헝가리事件에 대한 소련軍의 介入과 彈壓은 金日成을 기쁘게 하였다.

소련은 헝가리 第1次介入後, 미끄얀, 스프로브 등 소련共産黨首腦를 부다페스트에 派遣하여, 헝가리黨 政府首腦와 交渉시켜 10月 30日에 “소련과 社會主義國間的 友好協力關係의 發展의 基礎에 관한 宣言”, 所謂 “10月宣言”을 發表하였다.

이 宣言은 소련의 헝가리事件에 대한 讓步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나 同時에 社會主義國家間的 相互平等, 獨立, 主權의 尊重을 認定한다는 “非스탈린化” 潮流의 하나의 到達點을 表現한 것이기도 하였다.

金日成은 이것을 利用하였다. 헝가리事件은 “內外反動的 反革命的 企圖에 의한 것”이라는 烙印을 찍었으나, 이 “10月宣

言”의 發表에 의해서 金日成이 “非스탈린化”를 要求한 黨內 反對派를 “反黨反革命分子”라고 非難하고 肅清하고 있음을 批判하는 道義的 資格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當時 소련은 北韓에서 일어난 事件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소련이 헝가리의 나지政權의 閣僚全員을 逮捕하고 “反革命分子”로서 摘發 규탄한 것과 마찬가지로, 金日成은 崔昌益 朴昌玉 尹公欽 등을 “反黨宗派分子, 美帝의 앞잡이”로 非難하고 매장하기로 決心하였다.

金日成이 黨內反對派肅清을 決意하였다고 생각되는 날인 56年 12月 1일에 열린 北韓內閣의 第 10次 全員會議에서 행한 “現國際情勢와 1957年 人民經濟計劃을 세우는데 있어서 留意하지 않으면 안될 몇가지 問題에 대하여”라는 演說에서 이렇게 論하였다.

즉, 帝國主義者들의 策動에 의해서 얼마전에 헝가리에서는 反政府暴動이 일어났다. 물론 헝가리에서의 反革命暴動은 그때마다 鎮壓은 되었다. 그러나 헝가리에서는 外部로부터의 帝國主義者의 策動과 內部에 남아있는 反革命分子의 陰謀 策動에 의해서 如前히 복잡하다.

우리나라의 情勢도 복잡하다. 民族保衛省과 內務省의 報告에 의하면 李承晚傀儡徒黨은 共和國北半部에서 政府에 反對하는 暴動이 일어나면 北伐한다고 떠들고 있다.

北半部에서는 崔昌益을 비롯한 反黨宗派分子들의 反政府暴動陰謀事件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金日成은 헝가리事件을 둘러싼 소련의 混迷를 北韓의 國內反對派의 肅清에 잘 利用한 것이다. 가령 나지政權이 “10月宣言”直後 바르샤와 條約機構로부터의 脫退와 中立을

宣言하여 소련軍의 第2次介入(11月4日)을 自招한 것을 模倣한 것이다. 결국 崔昌益 등 黨內反對派가 北韓은 “中立國”으로 하고, “親美的인 부르조아共和國”으로 하려고 企圖하였다는 “罪狀”을 造作해 낸 것이다.

黨內反對派와의 權力鬭爭의 勝利를 總括한 58年3月5日의 第1次代表者會議에서 행한 朴金喆의 “黨의 統一과 團結을 一層 強化하기 위하여”라는 報告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즉 그들은 우리黨과 兄弟黨과의 傳統的인 國際主義的 親善關係를 손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교활한 方法으로 離間과 對立을 造作하려고 하였다. 더우기 우리나라를 소련을 先頭로 하는 社會主義陣營으로부터 斷切하여 所謂 “中立國”으로 宣布하려는 등 극히 反逆的인 段階까지 꾸미고 있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中國 소련의 壓力에 의해서 崔昌益, 朴昌玉, 尹公欽 등의 黨追放處分을 撤回하지 않을 수 없었던 事實을 逆利用하여 그들을 마치 中國이나 소련의 앞잡이인 것처럼 非難하는 手法을 썼다. 66年10月18日에 열린 勞動黨中央委組織指導部 宣傳煽動部 活動家會議에서 행한 演說에서 잘 表現하고 있다.

이 會議에서 金日成은 10年前인 56년에 일어난 “反分派鬭爭”을 回想하여 다음과 같이 論하였다.

즉 나는 창고로 쓰기 위해서 세운 건물안에 노동자를 모아놓고 말하였다. 지금 우리는 매우 곤란한 狀態에 놓여 있다.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分派를 뒤에서 밀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와 한패가 되어 우리들을 밀어낼려고 한다. 國內의 分派 分子들은 각각 자기의 主人을 배경으로하여 黨에 反對하고 있다.

이와같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 주었다. 그랬더니 勞

動者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어떠한 힘든 課題라도 해내겠다고各自가 決意를 하였다.

黨內 반대파의 숙청을 合理化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민감하게 利用하는 金日成의 “투쟁기술”에는 놀랄만큼 巧妙한 점이 있다.

### 司法·檢察 首腦를 一掃

金日成의 “연안·소련파” 肅清事件에서 큰 타격을 받은 것은 司法·檢察機關의 리더들이다. 그것은 最高裁判所 所長인 黃世煥, 司法相의 洪箕疇, 司法省 副相의 朴容淑, 檢事總長의 趙誠模등 司法檢察의 指導的人物들이었다.

그들은 “延安·소련派”는 아니었음에도 不拘하고, 왜 매장되었을까. 金日成은 “연안·소련派” 肅清作業이 一段落된 直後인 1958年 3月 7日의 “道·市·郡黨委員長과 人民委員會委員長會議”에서 행한 “黨事業을 改善할데 대하여”라는 演說에서 司法·檢察 指導者들을 指名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지금까지 黨幹部事業을 어떻게 해 왔는가, 많은 경우 幹部들을 깊이 理解시키지 않고 皮相的으로 取扱하여 왔다. 과거 革命運動을 약간 하였던가 監獄生活을 조금이라도 하였다고 하면 無條件 믿어왔다.”

“前 司法省 副相인 朴容淑이나 前 檢事總長 趙誠模와 같은 자들은 確實히 잘못 登用하였다. 最高裁判所長인 黃世煥과 같은 자도 過去‘日永興農組’(日本統治時代に 組織되었던 農民組合)라는 데서 무언가 약간 하였다고 하기에 登用해 놓았으니 司法部內에서 큰 害毒을 끼쳤다는”는 것이다.

그리고 金日成은 58年 4月 29日에 열린 “全國司法 檢察活

動家會議”에서 “우리 黨의 司法政策을 貫徹하기 위해서”라는 題目의 演說에서 司法 檢察의 리더들을 指名하면서 다음과 같이 非難하였다.

“우리들은 法에만 服從한다고 하면서 黨과 政權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자들과 鬪爭하지 않으면 안된다. 以前에 最高裁判所 所長이었던 黃世煥같은 자는 後에 黨에도 오지 않고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만 訪問하였다. 그는 最高裁判所는 人民會議에서 選舉한 것이기 때문에 人民會議에만 所屬하는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黨性이 要求되는 司法機關에 왜 洪箕疇나 李承燁과 같은 者들을 司法相의 地位에 앉혀 놓았는지를 어떤 동무가 質問하였다. 우리는 李承燁이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고 司法相을 시킨 것은 아니다. 또 洪箕疇가 나쁜 놈인줄 알았다면 우리는 그를 司法相을 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黃世煥이나 洪箕疇는 어떠한 經歷을 갖고 있었는가. 黃世煥은 咸鏡北道出身으로서 日本統治時代に 農民運動에 參加하였다가 投獄된 일도 있다. 45年 解放後 北韓의 司法系統에 근무하다가 50年 5月 司法局長이 되었고, 53年 3月에는 最高裁判所 副所長, 56年 3月에 最高裁判所 所長이 되었다. 따라서 56年 4月の 勞動黨 第3次大會에서 黨中央 檢査委員으로 選出되었다는 經歷을 갖고 있다.

또 洪箕疇는 平安南道出身으로 基督教 牧師로서 45年 解放後 北韓地域出身의 民族主義者의 巨物인 曹晩植 밑에서 “平安南道建國準備委員會”의 創設에 參加하였으며, 45年 11월에 北韓의 民主黨 副委員長, 48年 9月에는 民主黨委員長 金科奉 밑에서 最高人民會議 副委員長을 지냈고, 53年 12月에는 司法相

을 兼任하였다. 따라서 55年 4月 民主黨 委員長 崔庸健이 勞動黨 副委員長으로 就任하였기 때문에 民主黨의 委員長으로 昇進되고, 57年 12月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議長에 就任하였다. 檢事總長이었던 趙誠模는 “南勞黨派” 肅清裁判의 擔當 檢事였다.

이와같이 司法 檢察機關의 指導人物은 各各 金日成의 黨內反對派肅清作業에 重要な 役割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에 相應한 指導的 地位에 就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의 死後, “非스탈린化”의 潮流는 이들 北韓의 司法檢察機關의 指導層에게 충격을 주게 되어 南勞黨派肅清과 같은 스탈린主義的 彈壓政治를 改革하여 司法 檢察의 民主化를 要求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58年 4月 29日 金日成이 “全國司法 檢察活動家會議”에서 行한 演說은 司法檢閱機關內的 反黨宗派分子들이 헝가리事件을 계기로 “法은 萬人앞에 平等하지 않으면 안된다” “人權을 옹호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主張하면서 黨의 司法政策을 攻擊하였다고 非難하고 더우기 “反黨宗派分子”들은 人道主義 民主主義라고 하면서 日本統治時代に 人民을 기만하기 위해서 떠들던 슬로건을 되풀이 하였다고 하였다.

黨內反對派의 肅清에 있어서 金日成이 반드시 使用하는 “日帝의 殘滓思想”이라는 말이 여기서 또 登場한다. 그러나 注目되는 것은 司法 檢察機關의 內部에 “民主化”를 要求하는 氣運이 存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演說에서 認定하고 있다는 것이다.

### 蘇聯과는 反對되는 彈壓部門 強化

金日成은 延安派 소련派의 肅清後, 司法 檢察機關의 民主化와는 反對로 오히려 彈壓裝置를 強化하고 擴大하였다.

소련의 「新法典」에서는 스탈린時代의 “피의 大肅清”의 象徴으로 불리운 베리아直屬의 內務省 特別局이 廢止되었음에도不拘하고 北韓에서는 內務省 社會安全局이 擴大 強化되어 “反黨宗派分子”들을 언제든지 逮捕 수사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하였다.

또한 소련의 「新法典」은 스탈린이 政府肅清을 容易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刑罰法規를 廢止하였다. 이 刑罰法規는 “類推適用” “遡及適用” “連座適用” 등으로서, “類推適用” 制度라는 것은 法을 위반한 行動에 대해서 그에 該當하는 法條文이 없을 경우 그의 重要性和 種類로 보아서 가장 類似한 條項에 근거를 두고 處理할 수 있도록 하는 法律上的 制度로서 刑罰解釋을 제마음대로 伸縮自在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이러한 刑罰法規를 刑事訴訟法으로부터 除去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는 反對로 소련의 「新刑法典」이 “類推適用” 制度를 除去한 것을 修正主義라고 非難까지 하였다. 「統一日報」의 連載 “朝鮮勞動黨略史를 밝히다”의 鄭益友 論說委員에 의하면 北韓의 法律學者 韓洛圭著「共和國의 法은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武器」에서는 다음과 같이 “類推制度”를 否定한 데 대해서 攻擊하였다는 것이다.

즉, 現代修正主義者들은 刑事責任을 免除할 수 있는 경우를 擴張할 뿐만 아니라 犯罪構成要件의 수까지 大幅 縮少해서라도 類推制度를 除去하려 하고 있다. 社會主義刑法에 있어서 類推制度의 拒否가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획기적인 事

件으로 되며, 遵法性を 強化하는 課業과 符合된다고 하는 修正主義者들의 見解를 우리들은 徹底하게 폭로하지 않으면 안된다.

類推의 制度는 푸를레타리아獨裁의 見地에서 社會關係를 規制하고, 또 그 規制를 保障하기 위한 目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類推가 適用되는 것은 社會主義的 遵法性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金日成은 法 위에 政治路線을 둘 것을 主張하였다. 司法 檢察의 民主化를 요구한 黨內反對派들을 肅清한 후 58年 5月 29日에 열린 “全國 司法 檢察活動家會議”에서 “우리 黨의 司法政策을 貫徹하기 위해서”라는 題下의 演說에서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陳述하였다.

즉, 앞에서 나는 法을 政治의 한 表現形式이라고 하였다. 政治를 떠나서는 법을 알 수도 없을 것이며, 法을 執行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法은 우리나라의 政策을 實現하기 위한 重要的 武器이다. 우리나라의 政策은 우리 黨의 政策이다. 우리 黨의 政治路線과 政策을 모르고서는 法을 執行할 수가 없다. 우리들은 다만 이러한 法을 우리 黨이 요구하는 階級的 立場에서 다시 말하면 푸를레타리아獨裁의 立場에서 正確하게 解釋하고 適用할 것을 強調한다.

여기서 말하는 “黨의 政策路線”이라는 것은 金日成의 黨內反對派肅清路線에 司法 檢察機構를 從屬시켜 權力鬭爭의 道具로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와같이 “非스탈린化” 潮流에 逆行해서 金日成이 肅清을 強化 擴大하는 理論的 根據가 된 것은 1930年代의 스탈린의 肅清의 論據로 된 “階級鬭爭激化論”이었다.

즉 階級鬭爭激化論이라는 것은 社會主義가 發展하면 할수록

階級鬭爭이 激化된다는 것이다. 스탈린은 黨內에 “帝國主義의 스파이”가 침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黨內肅清을 擴大하였다.

毛澤東도 이 階級鬭爭激化論에 빠져 文化大革命을 施行하였다. 56年當時, 毛澤東은 社會主義의 成立에 의해서 階級鬭爭은 基本的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共產黨을 批判하는 言論을 自由化하는 “百花齊放, 百家爭鳴運動”을 提唱하였더니 外部로부터의 批判이 激烈하였다. 毛澤東은 이것을 社會主義의 危機로 생각하여 社會主義가 되어도 階級鬭爭이 長期間 계속되어 때로는 격렬하게 되는 일도 있다고 하는 “階級鬭爭激化論”에 빠져 58年以來 후르시초프와의 對立이 深化되었던 것이다.

그 結果 劉少奇를 中心으로 하는 “소련修正主義”의 앞잡이인 스파이가 黨內에서 權力을 잡았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打倒하기 위한 文化大革命을 發動한 것이다. 소련에서도 中國에서도 獨裁者와 그의 肅清의 合理化理論으로 “階級鬭爭激化論”이 利用되었다. 그러나 스탈린이 되었든 毛澤東이 되었든, 그것은 늙은 獨裁者의 “狂氣”라는 側面이 있었다. 그러나 金日成은 아직 40代中盤의 “젊은 獨裁者”였음에도 不拘하고 獨裁와 肅清의 強化를 위해서 역시 “스탈린理論의 亡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 바람직스러운 革命傳統

北韓勞動黨은 1956年 3月 第3次大會에서 採擇된 黨規約에서 民族解放 獨立運動을 自己들의 “革命的 傳統”으로 보고 있었다. 黨規約은 “朝鮮勞動黨은 우리나라의 民族的 獨立과 解放을 위해서 日本 및 其他의 植民地主義者에 反對하여 鬭爭한 朝鮮人民의 革命的 傳統의 계승자이다”라고 規定하였다.

그런데 延安派 소련派의 肅清後 61年 9月 第4次黨大會에서의 黨規約改正에는 “唯一革命傳統”이라는 規定이 登場하였다. 따라서 金日成의 延安派 소련派 등의 黨內反對派肅清의 背景에는 “革命的 傳統”을 어떻게 合理化시키느냐 하는 爭點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革命傳統”이라는 것은 45年 解放까지의 抗日民族鬪爭의 傳統을 北韓이 계승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으나 54~56年의 段階에서 抗日武裝鬪爭全體를 가리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령 南勞黨派肅清後인 54年 3月 8日에 열린 勞動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金日成이 행한 “人民軍隊內的 黨政治事業을 改善 強化하기 위한 課業”이라는 演說에서 그는 이렇게 論하고 있다.

즉, 反黨宗派分子들은 抗日武裝鬪爭의 革命傳統에 反對하였는데, 우리가 抗日武裝鬪爭의 革命傳統을 계승하는 것이 왜 나쁘다는 것인가. 오랫동안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統治를 받아들인 우리 人民의 歷史에 만약 계승할만한 鬪爭傳統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抗日武裝鬪爭의 榮光스러운 傳統이 있다. 萬若 우리가 있지도 않은 鬪爭傳統을 있다고 한다면 옳지 못하겠지만, 있었던 傳統을 내놓는 것은 하나도 나쁠 것이 없다. 抗日武裝鬪爭은 國際的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朝鮮人으로서 왜 이 鬪爭을 榮光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反對하는 것인가. 누구나 다른 野心이 없다며는 抗日武裝鬪爭의 傳統을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보았듯이 “革命傳統”은 끝까지 抗日武裝鬪爭全體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延安派 소련派 肅清後인 61年 9月の

第4次黨大會에서 採擇된 黨規約에서는 “唯一革命傳統”이라는 用語가 登場하였다.

이 “唯一革命傳統”이라는 것은 金日成과 그 系列에 참가한 抗日遊擊隊의 武裝鬪爭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事實에 反하고 있다. 朝鮮에서 共產主義者의 民族解放 獨立鬪爭의 主流는 1945年 解放後에 結成된 朴憲永 등의 朝鮮共產黨이었다. 朝鮮共產黨 創設後 玄俊赫 吳琪燮 등 北韓地域의 國內共產主義者가 “서울黨中央”을 支持하게 된 것은 이 共產主義運動의 흐름을 民族解放 獨立鬪爭의 主流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金日成은 中國共產黨 滿州省委員會산하의 武裝鬪爭組織인 “東北人民革命軍”이며, 후에 “抗日聯軍”으로 改稱되었는데, 이에 所屬하는 “朝鮮人部隊”에 參加한데 不過하다.

더우기 1930年代 中盤頃부터 數年間 “抗日遊擊隊”에 參加하면서, 40年初에는 中國共產黨 滿州省委員會가 指導하는 “東北人民革命軍”이 壞滅하였을 때, 金日成은 소련 極東地區로 逃亡하고 소련領內에서 45년에 解放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結局 金日成은 中國이나 소련의 共產黨에 所屬하고 있었을 뿐으로서 朝鮮共產主義運動의 흐름 속에서 한번도 活動한 일은 없었던 것이다.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朝鮮共產主義運動의 主流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南勞黨派의 肅淸에 이어 延安派 소련派의 肅淸이 金日成으로서는 死活的인 重要性을 갖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결국 金日成의 肅淸이 必然的으로 되는 根源은 “革命傳統”이 없는데 基因한 것이다. 當初 金日成은 勞動黨의 “革命傳統”

을 民族獨立 解放運動을 갖고 樹立하려고 하였으나, 후에 “革命傳統”을 獨占하기 위해서 事實을 歪曲하면서 捏造하는 作業을 展開하게 된 것이다.

金日成이 革命傳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革命傳統을 계승하고 있는 南勞黨派, 延安派, 소련派에 대한 肅清의 根源으로 되었으나, 肅清後의 “革命傳統”은 金日成의 抗日遊擊隊의 神話를 갖고 “唯一革命傳統”으로 꾸며놓게 되었다. 延安派 소련派의 肅清後 56年 4月의 第3次黨大會에서는 一旦 否定되었던 金日成에 대한 禮讚이 다시 復活되고 個人崇拜가 急速히 높아져 간 것으로 보아도 “革命傳統”과 個人崇拜가 密接히 結付되고 있으며, 肅清의 原因과 結果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非스탈린化”를 利用

1956年은 社會主義諸國의 政治史上 하나의 轉換點으로 되었다. 56年 2月 第20次 黨大會에서 후르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批判이 이루어져 “非스탈린化”의 물결이 높아졌다.

소련에서의 스탈린 批判은 스탈린時代에 소련의 抑壓下에 놓여있던 東歐諸國에게 큰 衝擊을 주어 混亂을 불러 일으켰다. 同年 3月 헝가리 社會主義勞動者黨은 處刑된 前 外相 라이꾸라의 名譽回復을 發表하고, 7月에는 스탈린主義者 라꼬시 第1書記의 追放이 決定되었다.

10月 폴란드에서는 “티토主義者”로 投獄되어 있던 고물카가 出獄하여 第一書記로 選出되고, “自主성과 徹底한 民主化”를 위한 “10月革命”에 着手하였다.

10月 22日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는 大學生이 소련軍의

即時撤退, 黨指導部の 一新, 對蘇關係再檢討 등의 要求를 決議하고, 다음날 23日에 부다페스트에서 學生, 勞動者가 前 首相 '나지'의 復歸와 非스탈린化의 徹底한 實施를 要求하면서 데모를 일으켜 保安警察과 衝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黨中央委가 開催되어 '나지'의 復歸와 暴動鎮壓을 위해 소련軍의 出動要請을 決定하였다. 이것이 “헝가리事態”에 대한 소련軍의 第1次介入인 것이다.

10月 24日 부다페스트 全市에서 市街戰이 展開되고 '나지' 首相은 事態收拾을 위해서 스탈린主義者로서 國民의 憎惡의 對象이 되었던 '게레' 第1書記를 辭任시켰다.

10月 29日 미코얀, 스스로브 등 소련共産黨首腦가 부다페스트에 들어와 30日에 “소련과 다른 社會主義國家의 友好協力關係 發展의 基礎에 관한 宣言”, 所謂 “10月宣言”을 發表하고, 相互平等, 獨立, 主權尊重을 強調하였다.

11月 1日 '나지' 首相은 바르샤와條約機構로부터의 脫退와 헝가리의 中立化를 宣言하였다.

이 時點에서 中國은 “大國主義”를 批判하면서도 헝가리事件에 대한 소련의 行動을 支持하였다. 11月 4日 소련軍은 부다페스트에 再侵入(第2次介入)하여 '나지'政權의 全閣僚를 逮捕하고 軟禁하였다. 그러나 同日 '나지'는 釋放되어 유고大使館으로 避身하였으나 後에 소련當局에 의해서 逮捕되었다. 後 58年 6月에 '나지'의 處刑이 發表되었다. 따라서 소련은 '카다르'를 首班으로 하는 “勞動革命政府”를 樹立해 놓았다.

11月 5日 '카다르'政權은 非스탈린化의 徹底化 등을 誓約한 新政綱을 發表하고 自主獨立과 民主化를 強調하였다. 11月 11日에 '티토'大統領이 프라하에서 演說하여 헝가리事件에 대한 소

련軍의 第1次 介入을 批判하고, 第2次介入은 留保條件附로 肯定하였다.

이와같은 소련 東歐의 “非스탈린化”의 衝擊波는 北韓에도 波及되었다. 56年 8月 30日 勞動黨中央委 全員會議(8月全員會議)가 開催되어 延安派의 尹公欽 등이 金日成을 批判하였으나, 逆으로 “反革命暴動陰謀”로 몰려 黨으로부터 追放되었다.

中國과 소련이 이에 介入하여 9月 23日 勞動黨中央委全員會議(9月全員會議)가 開催되고 彰德懷, 미꼬얀의 勸告를 받아들여 崔昌益, 朴昌玉, 尹公欽 등의 追放處分이 撤回되었다.

10月末 헝가리事件이 일어나자 北韓은 沈默을 지키고 “非스탈린化”의 推移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11月 12日 北韓은 沈默을 깨고, 金日成이 헝가리 新政權에게 “反革命分子”와의 鬭爭을 支持하는 祝電을 보냈다.

11月 25日 金日成은 헝가리事件을 “美帝와 그의 주구의 策動”에 의해서 일어난 “反政府暴動”이라고 非難하였다. 12月 20日 金日成主席은 다시금 헝가리事件을 “反革命陰謀事件”이라고 非難하였다.

이것이 金日成의 強硬路線으로의 轉換點이었다. 12月末 金日成은 黨員證交換事業 등을 開始하여 延安派 소련派 등 黨內反對派의 肅清을 斷行하였다.

中國共產黨으로서는 스탈린批判에 대해서 4月 5日의 人民日報에서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歷史的 經驗에 관해서”라는 編輯部 論文이 發表되어, 스탈린의 功績을 認定하면서 個人崇拜를 批判하고 5月에는 中國共產黨과 다른 民主諸黨派間의 “長期共存 相互監督”의 方針을 취하는 등 柔軟한 態度로 나갔다.

그러나 金日成은 헝가리의 바르샤바條約으로부터의 脫退와 中

立化宣言에 激怒하여 소련軍의 介入과 彈壓을 支持하고 헝가리 事件을 “反革命陰謀事件”이라고 非難하였다.

이리하여 金日成은 소련이 北韓에 介入하는 口實을 事前에 封鎖하고, ‘나지’政權에 대한 “反革命陰謀”라는 非難의 화살을 一轉하여 國內로 돌려 延安派, 소련派 一掃의 “武器”로 使用한 다는 巧妙한 手法을 썼다. 非스탈린化에 의한 混亂을 自國의 黨內 反對派肅清에 利用한 共產主義指導者는 當時에 거의 없었다.

## 肅清의 歷史(下)

### 金日成派 人脈에 肅清 第3波

北韓(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의 肅清의 歷史는 韓國 戰爭 終結直後인 1953年 朴憲永(南勞黨派指導者)의 肅清에 의해서 完結되는 南勞黨派의 肅清이 第1의 고비였다.

金日成의 南勞黨派 大肅清에 의해서 朴憲永(副首相 兼 外相) 李承燁(勞動黨秘書), 崔昌益(副首相), 國內共產派의 巨物인 吳琪燮, 松本清張氏의 「北의 詩人」에 그려져 있는 林和 등 南勞黨派의 代表的 人物이 “美帝의 間諜” “宗派(分派)的 異質分子”라는 罪名을 쓰고 去勢되었다.

이제 肅清의 第2의 고비는 1956年의 소련共產黨 第20次 黨大會에서의 후르시초프의 스탈린批判直後, 56年 9月の 勞動黨全員會議의 決定은 中國 소련의 壓力으로 일단 撤回했던 金日成이 “非스탈린化”에 따른 東歐情勢의 混亂을 巧妙하게 利用해서 斷行한 延安派 소련派의 肅清이 바로 그것이다.

이 肅清에 의해서 金科奉(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長, 延安派) 崔昌益(副首相, 延安派), 朴昌玉(副首相, 소련派), 朴義玩(副首相, 소련派), 張平山(四軍團長, 延安派), 尹公欽(商業相, 延安派) 등이 犧牲되었다. 이 때, 지난번의 南勞黨派 肅清時 積極的인 役害을 함으로써 金日成의 忠實한 心腹으로 拔擢된 金昌滿(副首相, 延安派)도 金日成에 의해서 結局은 버림을 받게 되었다.

이 肅清鬭爭은 56년부터 58年의 3年間 계속되었는데, 이에 勝利한 金日成은 61年 9月 勞動黨 第4次大會의 總和報告에서 “우리黨指導部는 不純分子를 完全히 除去하고 지금까

지 볼 수 없었던 鐵桶같은 團結이 이루어 졌다.”고 自畫自讚하였다.

그런데 이 大會에서 黨中央委員으로 選出되고 또 黨中央委員의 副委員長으로 任命된 朴金喆(黨政治委員, 黨組織擔當秘書, 序列4位), 李孝淳(黨政治委員, 對南工作擔當秘書, 序列5位) 등이 다음의 새로운 肅清第3波인 “甲山派”의 犧牲者가 되었다.

“甲山派”라는 것은 金日成一派가 1930年代에 北韓의 咸鏡南道の 山水 甲山地方(現在 北韓行政區域으로는 兩江道)에서 抗日遊擊隊를 組織하여 빨치산鬪爭을 展開하였다는 主張에 따라 불리어지는 것으로서, 當時 金日成으로서는 “盟友”였던 “甲山工作委員會”系의 幹部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더우기 그들은 1945年 解放後, 金日成과 함께 소련軍을 따라 平壤에 들어온 그룹이며, 金日成이 主張하는 “唯一革命傳統”을 構成하는 人脈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甲山派의 肅清은 肅清第1波인 南勞黨派, 第2波인 延安派, 소련派라는 다른 系列의 肅清과는 달라 “金日成派”內部的 肅清이라는 점에 最大의 特徵이 있는 것이다.

61年 9月の 勞動黨 第4次大會에서 “우리 指導部는 不純分子를 完全히 除去하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鐵桶같은 團結이 되었다”고 호언장담한 金日成은 5年後인 66年 가을 다시금 “階級鬪爭의 徹底化”를 외치기 始作했다.

66年 10月 5日에서 12日까지 사이에 열린 第2次 黨代表者會議에서는 第1次 7個年計劃의 3年間 延長이 公式로 決定되었으나, 本來 이 決定은 黨大會에서 해야 할 性質의 것이었다. 이 해인 61年 9月の 第4次黨大會에서 5年만에 第

5次黨大會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各種의 理由에 의해서 黨大會를 열 수가 없어서 黨代表者會議을 召集하였다”라고 崔庸健(黨政治委 常務委員)의 開會辭에서 論한 바와 같이 正式의 黨大會 代身 代表者會議라는 變則的인 會議을 召集하게 된 것이다.

“여러가지 事情”이라는 것은 第1次 7個年計劃이 소련으로부터의 經濟 軍事援助의 中斷이라는 要因도 包含되어 挫折되고, 66년에는 前년에 비해 經濟成長率이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라는 深刻한 事情에 빠져 計劃을 延長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더우기 66年 여름 中國에서 文化大革命이 開始되고, 中國과 對立이 激化되고 있는 소련에 接近하여, 소련의 經濟軍事援助의 再開를 期待하지 않으면 안될만큼의 重大한 岐路에 서게 된 것이다. 當時 筆者는 北京特派員으로서 文革을 取材하고 있었는데, 北京市內의 壁新聞에 “세계의 마르크스·레닌主義黨”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으나, 그 속에 알바니아, 베트남까지 들어 있으면서 北韓勞動黨은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66年 8月 12日의 「로동신문」이 “自主性を 옹호하자”라는 社說을 發表하여 中國에 대한 “自主宣言”을 表明한 것은 그러한 背景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經濟停滯와 對蘇接近에로의 岐路에서 열리게 된 것이 勞動黨 第2次 代表者會議였다.

### 階級鬭爭 繼續論을 들고 나오다

1966年 10월에 變則的으로 열린 勞動黨 第2次 代表者會議에서 金日成은 “階級鬭爭激化論”을 들고 나왔다. 同會議에서 金日成은 “現情勢와 우리黨의 任務”를 다음과 같이 논하

고 있다.

즉, 社會主義下에서도 階級鬭爭은 계속된다. 社會主義下에서의 階級鬭爭은 무엇보다도 우선 外部로부터 潛入한 敵對分子와 沒落된 搾取階級の 殘餘分子의 破壞活動에 反對하여 부르조아의 封建的 反動思想과 그의 浸透에 反對하는 싸움으로 나타난다.

敵은 우리들의 社會主義制度를 破壞하고, 過去의 자기들의 地位를 되찾으려고 갖은 策動을 다하고 있다. 우리들의 內部에 숨어든 敵對的 要素는 극히 少數이지만 우리들은 敵의 破壞策動에 대해서 경계심을 높이고 그것을 분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金日成報告는 “敵의 破壞, 모략活動, 사상침투에 反對하는 싸움”이 主要性を 띠게 되는 最大의 要因으로서는 第1로는 “나라가 分斷되어 있다”는 것을 들고 있으며, 第2로는 世界反動的 元祖인 美帝國主義者和 直接 얼굴을 맞대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였다.

이것은 스탈린이 “帝國主義의 包圍”에 따라 “階級鬭爭의 激化”를 主唱하여 “피의 肅清”을 展開하고, 毛澤東도 또 “소련現代主義”와 그의 “中國에서의 代理人”에 대한 “階級鬭爭”으로서의 文化大革命을 發動시킨 것과 거의 같은 理論이다.

이러한 論理에서 金日成은 “國內의 敵”에 화살을 돌리고, “黨內的 宗派(分派)主義”와의 鬭爭을 불러 일으키고, 이렇게 陣述하였다.

즉, 우리들은 宗派主義에 反對하여, 黨의 統一과 團結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黨은 困難한 鬭爭을 통해서 歷史的

으로 存續해온 宗派를 克服하고, 朝鮮共產主義運動의 統一을 實現하고 全黨으로 黨의 思想體系를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絶對로 自己滿足을 해서는 안된다. 過去-國際, 國內情勢가 複雜하고 우리黨이 試練을 받고 있던 當時, 黨內에 숨어 있던 反黨宗派分子가 國際宗派와 結託하여 黨에게 攻擊을 해온 事實을 우리黨員들은 一時도 잊어서는 안된다. 國際共產主義 運動內에 機會主義的 潮流가 있으며, 大國主義의 傾向이 있는 以上, 이와같은 試練이 다시 되풀이 되지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機會主義, 大國主義란 이 境遇에는中國을 가리키고 있다.

이와같은 國內分派主義에 대한 非難과 鬪爭의 呼訴는 다만 經濟停滯라는 困難한 狀況에 直面하였기 때문 만은 아니었다. 金日成의 獨裁強化, 個人神格化에 挑戰하는 “새로운 敵” 이 金日成그룹의 內部에서 出現하였기 때문이다.

“黨內分派”와의 “繼續鬪爭論”을 들고 나온 66年 10月の 第2次 黨代表者會議에서는 黨中央指導部の 黨機構 人事가 大幅的으로 改編되고 “甲山派” 肅清이 準備되었다. 우선 第一로 從來의 黨委員長, 副委員長制가 廢止되고 總秘書, 秘書로 改編되고, 秘書局이 新設되었다는 것이다.

秘書局은 黨의 路線과 政策 決定을 執行하는 活動과 日常의 黨活動을 組織하는 黨實務執行의 最高執行機關으로 되었다.

이 黨秘書局的 總秘書에 金日成이 就任하고, 새로운 秘書로서 10人이 選出되고, 第4次黨大會에서 選出된 5人의 副委員長中 金昌滿을 除外한 崔庸健, 金一, 朴金喆, 李孝淳도 포함되었다.

新設된 秘書局의 얼굴들은 다음과 같다.

〈 秘書局 〉

- ① 金日成 (總秘書)
- ② 崔庸健 (秘書, 抗日聯軍系)
- ③ 金 一 (秘書, 金日成派)
- ④ 朴金喆 (秘書, 甲山派)
- ⑤ 李孝淳 (秘書, 甲山派)
- ⑥ 金光俠 (秘書, 抗日聯軍系)
- ⑦ 石 山 (秘書, 抗日聯軍系)
- ⑧ 許鳳學 (秘書, 抗日聯軍系)
- ⑨ 金英柱 (秘書, 金日成系)
- ⑩ 朴容國 (秘書, 甲山派)
- ⑪ 金道滿 (秘書, 甲山派)

秘書에는 黨組織部長으로서 實權을 쥐고 있던 金日成의 實弟 金英柱가 登場하고, 石山, 許鳳學, 金英柱, 朴容國, 金道滿 등 5人은 누구도 지금까지는 政治委員會의 委員, 候補委員도 못되었는데 발탁된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黨委員長, 副委員長의 廢止와 秘書局의 設置는 朴金喆 李孝淳 등 “甲山派”의 副委員長의 權限을 弱化시키고, 事實上 格下시키기 위한 措置로 보인다.

人事의 第2는 지금까지의 政治委員會 위에 政治委 常務委員會 (金日成 崔庸健 金一 朴金喆 李孝淳 金光俠 등 6人)를 新設한 것이다. 그러나 常務委員會의 役割은 그 前의 政治委員會의 權限보다 약해 졌으며, 여기에 朴金喆 李孝淳 등 甲山派의 權限縮小를 노린 것을 알 수가 있다.

### 實弟 金英柱를 黨中央指導部에 大拔擢

1966年 10月の 勞動黨 第2次 代表者會議에서 決定된 中央指導部人事에서 金日成의 實弟 金英柱 등 “金日成派”의 昇進과 더불어 注目된 것은 抗日聯軍出身 幹部인 軍人の 大量進出이었다.

새로히 政治委員會委員中 補選된 5人中 金翊善 朴成哲 2人은 金日成直系이며, 그 후의 金昌鳳 崔賢 李永鎬 등 3人은 金日成과는 系統은 다르나 1930年代에 中國共產黨산하의 東北人民革命軍과 抗日聯軍에 所屬하여 抗日빨치산鬭爭을 經驗한 軍인들이었다.

또 政治委員會候補委員으로 補選된 9人도 金英柱와 朴容國(朴金喆 李孝淳 등의 甲山工作委員會의 地下工作에 從事함)을 除外하면 나머지 7人은 어느누구나 모두 抗日聯軍에 關係한 일이 있으며, 특히 崔光 吳振宇 林春秋 鄭景福 등 4人은 金日成直系라고 한다.

이와같이 抗日聯軍出身軍人の 大量進出은 黨第2次 代表者會議에서 再確認된 金日成의 經濟 國防 並進路線下에서의 對南對美強硬政策의 人事的 反映인 同時에 軍에 의한 黨支配의 傾向을 強化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黨第2次 代表者會議의 決定人事는 金日成 金英柱 “兄弟體制”와 “軍에 의한 黨支配”라는 두개를 기둥으로 해서 金日成獨裁의 強化를 노림과 同時에 “甲山派”의 人脈排除를 準備하는 體制로 굳혀갔던 것이다.

그러면 黨第2次 代表者會議後 “甲山派”에 대한 肅淸鬭爭은 어떻게 進行되었던가. 同會議閉幕直後, 金日成은 66年 10月 18日에 열린 黨中央委員會 組織指導部 宣傳煽動部の 活動

家會議에서 “黨活動에 있어서의 形式主義와 官僚主義를 없애고, 活動家들을 革命化할 데 대하여”라는 講演을 하였으며 “革命化되지 않은 幹部”를 다음과 같이 非難하였다.

“지금 우리들 중에서 적지않은 黨活動家가 革命化되어있지 않다. 道黨 및 郡黨責任秘書, 工場黨의 責任秘書나 里黨 秘書들은 黨의 委任과 官職을 잘못알고 있다.

地方의 黨組織의 活動家뿐 아니라 黨中央의 活動家로 地位가 높아지면 기뻐하고, 地位가 낮아지면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것 같다. 革命을 하는데 地位가 무슨 關係가 있는가 가령 지금은 黨中央의 指導員으로 있어도 내일이라도 細胞組織의 밑으로 가라고 한다면 거기 가서 革命을 할 覺悟가 되어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우리同志들에게 그러한 覺悟가 되어있는가 하면 그렇치가 못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金日成演說은 “以前에는 革命을 한 一部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非難하였다.

“一部 同志들은 일을 제멋대로 하여 大衆이 黨과 우리들의 制度에 대해서 많은 不滿을 갖게 하고있다. 이와같은 現象은 同志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最近에 많은 批判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以前에 革命을 하였던 一部 사람들 속에도 있다.

革命鬪爭을 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完全히 革命化된 것은 아니다. 누구든간에 마치 自己는 完全히 革命化된 人間인 것 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며,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以前에 革命을 한 一部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分明히 朴金喆 李孝淳 등 “甲山派” 幹部들을 가리키는 말이

다. 따라서 “最近에 많은 批判을 받고 있는”이라는 말은 이미 “甲山派”幹部摘發의 準備가 進行되고 있었음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이 演說이 第2次 黨代表者會議 閉幕後 一週間도 되지 안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은 金日成이 代表者會議에 提出한 “階級鬭爭繼續論”이 甲山派肅淸의 豫告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第2次 黨代表者會議와 黨中央委員會 組織指導部 宣傳煽動部 活動家會議를 통해서 “甲山派”肅淸의 準備가 進行되고 있었다.

이러한 準備가 必要했던 것은 甲山派의 影響力이 매우 강했기 때문이다. 甲山派는 1950年代末부터 推進되어온 金日成一派의 빨치산出身者의 活動을 中心으로한 “唯一革命傳統”만들기에서 큰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咸鏡南道, 咸鏡北道, 兩江道, 慈江道の 黨組織에 큰 影響力을 갖고 있었다.

특히 甲山派의 最高리더格인 朴金喆은 第2次 黨代表者會議까지 長期에 걸쳐, 組織擔當의 黨副委員長을 歷任하고, 金日成의 國內共產派 南勞黨派 延安派 소련派 肅淸時 “反黨宗派分子 反革命分子”로 肅淸될만한 많은 사람들을 救出한 人物로서 黨內外로부터 人望이 있었다고 한다.

### 朴金喆, 드디어 李孝淳을 攻擊

甲山派肅淸을 決意한 金日成은 1966年 10月 18日의 黨中央委組織指導部 宣傳煽動部 活動家會議에서 행한 演說에서, 다시금 “어떤 個人을 盲目的으로 믿어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어떤 特定の 個人을 攻擊할 態度를 보였다. “黨活動에 있어

서 形式主義와 官僚主義를 없애고 活動家들을 革命化할 데 대하여 ”라는 題目의 演說에서의 그 句節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革命化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첫째로 黨을 信賴하고 革命에 忠實해야 한다는 굳은 意志를 갖는 것이다. 둘째로는 어떠한 風波를 만나도 動搖하지 않고, 우리黨 以外에는 아무 것도 모른다는 그러한 강한 信念을 갖는 것이다. 지금 一部 우리黨員에게는 아직 이러한 精神이 不足한 것이다.

幹部를 信賴하고, 일을 통해서 點檢하는 것은 黨活動의 原則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個人을 盲目的으로 믿어도 안되고, 黨만을 全的으로 信賴하지 않으면 안된다. 黨中央委員會의 決定과 指示를 어기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것이 누구이든간에 모두 警戒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러한 現象은 당장 黨中央委員會에 알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 演說에 있는 “어떤 個人을 盲目的으로 믿어서는 안된다”라든가, “黨中央委의 決定과 指示를 어기는 사람” 등의 表現은 黨中央의 높은 地位에 있는 人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甲山派의 리더 朴金喆 李孝淳을 指名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이든간에 警戒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은 現象을 당장 黨中央委에 알리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말은 金日成 金英柱 “兄弟體制”의 支持와 “甲山派” 幹部에 대한 警戒를 呼訴한 “宣傳布告”를 意味하는 것이었다.

66年 10月の 黨第2次 代表者會議와 黨中央組織委 指導部 宣傳煽動部 活動家會議를 통해서 “甲山派”를 向한 金日成의 攻擊은 7個月後인 67年 5月 4日에서 8日까지 5日間に

걸쳐 열린 黨中央委 第4期 第15次 全員會議에서 決着을 보게 되었다. 75년에 서울의 現代經濟日報社에서 出版된 俞完植·金泰瑞 共著 「北韓 30年史」에 의하면 黨中央委 第15次 全員會議에서 甲山派攻擊에 主導的 役割을 다한 것은 第2次 黨代表者會議(66年 10月)에서 黨政治委 候補委員으로 된 吳振宇(人民軍總政治局長, 大將)였다.

同會議에서 吳振宇는 “黨의 唯一思想體系가 確立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金日成同志의 敎示와 黨政策이 올바르게 執行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朴金喆一派가 責任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여 朴金喆을 指名하면서 攻擊하였다.

「北韓 30年史」에 의하면 이 會議는 甲山派의 朴金喆 李孝淳에 대한 罪狀을 攻擊하는 舞臺로 되었다.

朴金喆에 대해서는 ①日帝時代부터 變節者이다. ②自己의 過去의 鬪爭經歷을 誇示하였으나, 이것은 破廉恥한 行動이며, 金日成同志의 鬪爭을 輕蔑한 것이다. ③黨副委員長으로서 黨의 軍事路線에 不誠實하게 對處하였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李孝淳의 罪狀에 대해서는 ①中央黨連絡 部長으로서 對南工作의 積極化를 拒否함에 의해서 많은 犧牲者를 냈다. ②金日成思想에 背反하는 점이 많고, 黨의 政治路線에 不滿을 품었다. 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리하여 第15次 黨全員會議는 甲山派幹部에게 “부르조아分子” “修正主義分子” “反黨宗派(分派)分子”라는 レッテル을 부쳐서 肅清하기로 決定하였다. 이로부터 下部 各組織內의 甲山派人脈의 追放이 擴散된 것이다.

### 淒慘하게 甲山派 一掃

朴金喆 李孝淳 등 甲山派의 人脈은 北韓의 黨 行政機關의 各分野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우선 第1로 이 두사람 리더의 抗日鬪爭에 있어서의 빛나는 經歷이었다.

朴金喆은 1912年 咸鏡北道(54年의 行政區域改編으로 兩江道에 編入됨) 出生으로서 小學校卒業後, 三水 甲山地方을 中心으로 抗日鬪爭에 參加하였으며, 35년에는 朴達 등과 함께 地下組織의 甲山工作委員會를 만들어 出版. 經濟部門의 責任者로 活動하였다.

有名한 “普天堡事件”(惠山事件)에서 朴金喆은 金日成 部隊의 先導役割을 하였다. 37年 7月 朴達 등과 더불어 日本官憲에 逮捕되어 45年 8月 15日 解放까지 約 8年間 서울 西大門刑務所에 投獄되어 있었다. 解放과 同時에 出獄하여 金日成 主席으로부터 肅淸될 때까지 組織擔當의 黨副委員長으로 活躍하였다.

李孝淳은 咸鏡北道出身으로 抗日運動에 從事하여 41年에 日本官憲에게 逮捕되어 死刑을 받은 李悌淳의 實弟이다. 30年代中盤부터 甲山工作委員會의 工作員으로서 活躍하였으며, 解放後 一貫하여 組織生活을 해오다가 61年의 第4次 黨大會에서 黨副委員長으로 되어 對南工作을 擔當하였다. 肅淸後 朴金喆 등과 마찬가지로 協同農場으로 追放되었다가 그 以後부터는 消息이 끊겼다.

서울에서 出版된 「北韓 30年史」에 의하면 李孝淳에 對해서 金日成은 第15次 黨大會全員會議에서 이렇게 陳述하였다.

“李孝淳과 林春秋는 많은 革命幹部를 南朝鮮에 넘겨주고, 對南事業을 根本적으로 망쳤다. 朴金喆은 日帝時代に 西大門

刑務所에서 걸어나왔다. 그가 眞正으로 變節하지 않고 있었다면 朴達同志와 같이 다리가 붓고 허리가 부러진 것이 當然할 것이다. 따라서 朴金喆은 變節者로 取扱하는 길밖에 없다.”

金日成의 發言은 李孝淳을 1945 年の 解放前으로 거슬러 올라가 變節者로 꾸미려 하였다. 그렇게 되면 왜 第4次 黨大會에서 李孝淳을 黨副委員長이라는 要職에 앉혔는가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억지소리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朴金喆 李孝淳 등 甲山派의 指導的 幹部는 그의 抗日鬪爭의 經歷으로 해서 金日成이 1950 年代 中盤부터 손을 대기 시작한 “唯一革命傳統”을 만들기 전에 “革命傳統”을 構成하는 主要그룹의 하나로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甲山派人脈은 黨 및 行政機關의 各分野에 깊은 뿌리를 내려 큰 影響力을 갖고 있었다. 이것을 根絶한다는 것을 金日成으로서는 大端한 일이었다. 여기 過去의 肅清과 다른 難點이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甲山派人脈의 去勢는 苛酷하였던 것이다. 「北韓 30 年史」에 의하면 68 年 中盤頃부터는 肅清에 의해서 地方의 黨 및 行政機關의 中堅幹部의 3 分の 2 以上이 空席이 될만큼 苛酷한 것이었다.

그 苛酷함은 金日成도 認定하고 있다. 金日成은 66 年 10 月 18 日의 黨中央委 組織指導部 宣傳煽動部 活動家會議에서 “頻繁하게 處罰을 당하는” 黨活動家を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活動을 處罰 등의 方法으로 할려고 해도 안된다. 우리들은 果然 處罰의 方法으로 官僚主義와 形式主義를 없애고 사람들의 思想을 改造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참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얻은 結論은 結局 이러한 處罰의 方法으로는 問題가 解決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組織指導部長에게도 말하고, 宣傳煽動部長에게도 말하였으나, 번번히 處分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겁도 안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며는 結局 上部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아첨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處罰만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革命化하는 問題는 해이하지 않은 思想鬭爭과 教育을 통해서 만이 解決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金日成은 이러한 말을 하고 있으나, 그의 實弟인 金英柱나 吳振宇 등에 의해 甲山派人脈의 大量處罰이 展開된 것이며, 그의 發言은 各級 黨組織內부의 混亂과 動搖를 收拾하기 위한 것이었다.

甲山派人脈의 肅淸에는 金昌滿도 連座되었다. 金昌滿은 金日成의 延安·소련派肅淸時, 延安派로부터 金日成派로 轉向하여 “唯一革命傳統” 만들기에 貢獻한 結果 黨宣傳煽動部長, 副首相, 黨副委員長의 要職을 歷任한 人物이다.

그렇지만 金昌滿도 66年 4월에 黨으로부터 追放되어 協同農場의 農民으로 轉落되고 만 것이다. 金昌滿에 대해서 金日成은 66年 10月 黨中央委 組織指導部 宣傳煽動部 活動家會議에서 “解職된 어떤 사람의 問題를 예들들어 보아도 一部 同志들은 그는 되먹지 못한 놈이기 때문에 점잖은 사람으로는 될 수 없다고, 約 5年前부터 提起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가 敵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方向으로 問題를 보아 그를 救出하기 위해 계속 努力해 왔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나쁜 人間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스스로 自己의 모

든 것을 떨어놓고 말았다.”고 發言하였다.

延安派 소련派肅清에서도 살아남은 金昌滿도 無用之物이 되고 나서, 폐품처럼 버림을 받게 된 것이다.

### 失敗한 特殊게릴라 侵攻

甲山派 人脈肅清의 理由中的 하나로서 對南工作의 失敗를 들고 있다. 對南工作의 最高責任者인 李孝淳은 그의 責任을 다하지 못하여 失敗하였다. 李孝淳에 代身해서 對南工作의 責任者로 任命된 자가 許鳳學(人民軍總政治局長, 大將)이었다.

許鳳學의 經歷은 抗日聯軍의 鬪爭에 參加하고, 解放後 56年 民族保衛省(國防省) 作戰局長, 58年 民族保衛副相, 60年 人民軍總政治局長을 거쳐 61年 9月의 第4次黨大會에서 中央委員으로 選出되었으며, 66年 10月에는 黨中央政治委員會 候補委員으로 되었다.

許鳳學은 對南工作責任者에 就任하자 마자, 韓國에 侵透하여 교란 破壞工作을 擔當하는 特殊게릴라 部隊를 創設하였다. 이것이 “124軍部隊”이다.

約 1年間 準備를 한 후, 北韓의 特殊部隊는 68年初부터 韓國에의 侵透를 開始하였다. 68年 1月 21日, 1個 小隊規模의 31人의 特殊게릴라部隊가 南派되어 서울의 大統領官邸를 襲擊하였다. 그로부터 2日後인 1日 23日에는 “프에블로號事件”이 일어났다. 68年 10月 下旬부터 11月에 거쳐, 120餘名의 武裝게릴라를 韓國東海岸인 慶尙北道 蔚珍 및 江原道 三陟에 上陸시켰다.

그러나 特殊部隊의 南派는 韓國軍警에게 掃蕩되고 매번 失敗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런데 北韓의 宣傳機關은 이러한 게릴라

活動을 “南朝鮮의 愛國의 人民이 벌리고 있는 民族의 鬪爭” 이라느니 “南朝鮮 愛國의 人民의 武裝遊擊鬪爭”이라고 宣傳하여 마치 韓國이 革命前夜에 있는 것처럼 幻想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北韓의 朴成哲首相도 68年 2月 17日 다음과 같이 談話を 發表하였다.

즉, 最近 南朝鮮人民의 武裝鬪爭이 소위 괴뢰大統領의 官邸 附近까지 치고 들어가 銃擊戰을 벌린 事件을 비롯해서 南朝鮮 各地에서 活潑히 벌어지고 있는 武裝遊擊隊의 鬪爭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美帝國主義侵略者와 한층도 안되는 南朝鮮賣國奴에 反對하여 일어난 南朝鮮人民 自身の 愛國的 革命 鬪爭이라고 하였다.

金日成도 68年 4月 13日, 全國青年總動員大會에서 行한 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陳述하였다.

“우리가 프예블로號를 붙들었을 때 南朝鮮武裝遊擊隊도 서울에 들어가 混亂을 일으키고, 또 越南人民解放武裝勢力도 都市를 大대의으로 攻擊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美國놈들은 우리들과 越盟이 짜고 함께 攻擊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事實은 함께 짜고 攻擊한 것이 아니라 革命思想이 같기 때문에 共通性을 띠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筆者는 本著(上券)에서 當時의 北韓 게릴라投降者들과의 인터뷰를 掲載하였는데 그들의 證言에서 武裝게릴라는 韓國의 “人民武裝鬪爭”이나 “武裝遊擊隊”가 아니라 北韓이 南派한 特殊게릴라部隊였음이 立證되었다.

그리고 北韓의 特殊게릴라部隊가 극히 簡單하게 韓國軍警에 의해서 掃蕩된 것은 韓國國民이 北韓의 게릴라를 支持하지 않

고 掃蕩에 協力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면 왜 金日成主席이나 朴成哲首相 및 北韓의 高位機關은 이와같은 幻想을 만들어 宣傳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그것은 金日成의 對南武力統一路線과 武裝게릴라의 南派政策이 옳았고 더우기 成功하고 있음을 強辯하려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武裝게릴라의 南派가 完全히 失敗한 것은 너무나도 明白한 事實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金日成의 對南武力統一路線과 武裝게릴라 南派政策의 責任으로 돌릴 수는 없다. 여기에 許鳳學 등 軍首腦의 肅淸이 아무래도 必要하였던 것이다.

軍首腦의 肅淸은 어떻게 推進되었는가.

서울에서 80年 5월에 出版된 極東問題研究所의 「北韓全書」에 의하면 軍首腦의 肅淸이 斷行된 것은 1969年 1月 6日에서 14日까지 열린 “人民軍黨 第4次 總會”에서 이며, 이 肅淸劇를 演出한 것이 甲山派人脈의 肅淸때와 마찬가지로 人物인 吳振宇였으며, 그는 이 肅淸의 功績으로 總參謀長에 就任되었다.

吳振宇는 人民武力相(國防相)으로서 “金日成·金正日體制”를 支持하는 主要한 人物이기 때문에 그의 經歷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吳振宇는 咸鏡北道 北靑出身으로서 35年경 東滿州로 移住하여 抗日聯軍에 參加하였다. 45年 解放後 9월에 平壤에 들어왔다. 韓國戰爭時에는 76-6軍部隊長(小將)으로 參戰하였고, 54年 人民軍 第3師團長, 57年 人民軍 第3軍團長(中將) 그리고 58年 空軍參謀長이 되었다가 61年 第4次 黨大會에서 中央委員으로 選出되었다.

63년에는 民族保衛 副相이 되었으며, 66년에는 金日成의

實弟 金英柱와 ㅈ고 甲山派와 軍首腦의 肅淸에 主要한 役割을 하였다. 그 후 67年 人民軍總政治局長을 거쳐, 69년에는 總參謀長, 76年 5月以來 人民武力相이 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 金昌鳳 등 軍首腦도 肅淸

甲山派人脈의 肅淸에 이어 軍首腦의 肅淸이 斷行된 것은 1969年 1月 6日에서 14日까지 열린 “人民軍黨 第4期 第4次 總會”에서 이며, 이 會議에서 役割을 한 자가 吳振宇(人民軍總政治局長, 黨中央政治委 候補委員, 大將)이었다.

서울에서 出版된 「北韓全書」에 의하면 人民軍黨總會는 “黨의 唯一思想體系 確立과 朝鮮勞動黨 第4期 第18次 全員會議의 實踐方案을 檢討한다”라는 議題로 열렸다.

會議席上에서 吳振宇는 報告를 통해서 于先 金昌鳳 民族保衛相(國防省) 등의 罪狀으로서 다음 13個項을 들었다.

① 金昌鳳 등은 軍隊內에서 “唯一思想體系”의 確立을 妨害하였다.

② 革命傳統繼承에 反對하고 이것을 沮止하려고 하였다.

③ 軍과 人民, 軍官과 戰士들을 離間시키려고 하였다.

④ 軍隊內에서 家族主義的 宗派(分派)를 形成하려고 劃策하였다.

⑤ 軍人들의 成分(出身階級)評價事業에 회의적인 態度를 취하였다.

⑥ 軍隊의 幹部化에 反對하였다.

⑦ 報復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人民軍을 위축시켰다.

⑧ 戰爭準備의 訓練보다 副業과 築城作業만을 強調 함으로써 人民軍을 “副業部隊”라 불리우게 하였다.

- ⑨ 規定에 의한 各種燃料供給을 獨斷적으로 50%나 삭감시켰다.
- ⑩ 部下의 福祉事業에 無關心하였다.
- ⑪ 軍隊의 諸規定을 어기고, 그 責任을 他人에게 전가하였다.
- ⑫ 경찰국의 效率的 運用에 失敗하였다.
- ⑬ 68년에 軍隊內에서 시멘트 24萬屯을 비롯한 物資를 浪費하였다.

그러나 吳振宇는 黨對南工作責任者인 許鳳學 등에 대해서는 具體的인 罪狀을 들어서 攻擊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理由는 許鳳學이 對南工作의 責任者로 되었을때부터 軍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吳振宇는 許鳳學 一派에 대해서 “所屬機關에서 엄격하게 批判받지 않으면 안되겠다”라고 하는 정도였다.

「北韓全書」에 의하면, 그 후 許鳳學 등은 所屬 黨機關에서 罪狀을 問責받고 非難을 받게 되었다. 許鳳學 등의 肅淸理由는 그들이 그동안 推進해온 對南工作 武裝게릴라의 大量南派의 失敗였다는 것이다. “對南工作을 黨命을 어겨가면서 獨自적으로 推進하여 對南工作事業總局에 派閥主義나 地方主義를 造成하였다”라는 것도 對南工作의 失敗가 理由로 된 것이다.

이리하여 金日成의 對南武力統一路線에 따른 게릴라部隊의 南派政策의 失敗는 對南工作의 責任者인 許鳳學一派의 責任으로 돌린 것이다.

그러나 金昌鳳(民族保衛相), 許鳳學(黨 中央對南工作責任者) 등 軍首腦의 肅淸에 대해서 金日成이 69年 1月 人民軍黨總會로부터 約 2年後인 70年 11月 第5次 黨大會의 報告에서 특히 軍에 대한 黨指導強化를 強調한 것은 軍首腦肅淸의

背景에 큰 問題가 있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때의 金日成報告는 다음과 같다.

즉, 우리는 人民軍隊에 社會安全機關 司法檢察機關과 같은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機能을 많이 갖고 있는 機關 등에 대해서 黨的 指導를 보다 強化하지 않으면 안된다.

軍隊에 대한 黨的 指導를 強化하는 것은 革命武力建設의 基本要素이다. 人民軍隊는 다만 黨的 指導下에서 만이 不敗의 革命武力으로 強化 發展될 수가 있으며, 그의 崇高한 使命을 다할 수가 있다.

總活動期間中 우리들은 軍隊內에서 黨的 指導的 役割을 弱화시켜 政治事業을 소홀히 하여 軍事訓練도 정해진대로 할 수 없게 하여 軍閥官僚主義를 扶植시키려는 경향을 適時에 克服하고, 軍에 대한 黨的 指導와 軍隊內의 黨政治事業을 強化함으로써 人民軍隊의 戰鬥力을 보다 一層 높일 수가 있게 되었다.

우리들은 今後에도 軍隊內에서의 黨委員會의 事業을 決定的으로 強化시켜, 人民軍隊의 모든 事業이 黨委員會의 指導下에서 組織 執行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軍隊內의 黨委員會는 특히 軍事指揮官들이 恒常 黨委員會에 依據하여 活動하고 黨組織生活에 忠實히 參加하도록 黨的 役割을 強化하지 않으면 안된다.

黨委員會를 強化함과 同時에 人民軍隊內에서 黨政治事業을 直接 組織하고 執行하는 政治機關과 政治活動隊는 특히 政治委員의 役割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金日成報告가 특히 強調하고 있는 것은 黨的 軍에 대한 指導強化의 必要性이다. 이것은 軍首腦肅清的 背景으로서 軍內에서 軍事指揮官에 대한 軍內 黨組織의 指導가 弱化되어 있었다고

하는 現象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吳振宇가 人民軍內의 政治 思想의 取締의 首長이 되는 總政治局長으로 就任된 後 軍首 腦肅淸이 斷行된 것으로 보아 當時 軍內에 있어서의 黨의 指導가 크게 後退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 指揮官과 政治部員이 對立

北韓 人民軍에는 社會主義國家인 소련의 赤軍, 中國의 人民解放軍과 마찬가지로 軍內에 黨組織이 있으며, 黨이 派遣하는 政治部가 있다. 그의 首長이 人民軍總政治局이다. 總政治局下에 軍團에는 軍團政治部, 師團에는 師團政治部가 있으며, 그 밑에 聯隊, 大隊, 中隊에 이르는 各部隊에 各級政治部를 두고 있다.

그리고 政治부에 長이되는 軍官(將軍 將校)은 그들이 所屬하는 軍隊組織의 副責任者로 任命된다. 結局 軍團政治部長은 副軍團長으로, 師團政治部長은 副師團長으로, 聯隊政治部長은 副聯隊長이라는 식으로 된다.

따라서 黨優位の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는 軍內에 있어서도 黨組織을 擔當하는 政治部長의 權限이 매우 커서 경우에 따라서는 軍事指揮官의 權限보다 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軍事優先을 主張하는 軍事指揮官과 黨의 優位를 主張하는 政治部長의 對立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다. 그것은 소련이나 中國에도 같은 歷史를 가지고 있다.

金日成이 70年의 第5次 黨大會에서 특히 軍에대한 黨의 優位를 主張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과 軍首腦의 肅淸에서 多數의 作戰系軍官이 희생된 것으로 보아서 當時 政治系軍官과 技術·作戰系軍官과의 사이에 深刻한 對立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肅淸의 對象이 된 것은 于先 첫째로, 副首相 兼 民族保衛相

(國防省에 해당)의 金昌鳳大將이었다. 金昌鳳은 咸慶北道 出身으로 1930年中盤頃에 抗日聯軍에 參加하고, 40年頃에 소련으로 들어가 소련軍偵察部員으로 活動하였다. 45年の 解放으로 歸國하여 50年 人民軍 第12師團長, 51年 第8軍團長, 53年 第3師團長을 거쳐 56年の 第3次黨大會에서 中央候補委員으로 選出하였다.

56年 7月 第5軍團長이 되고, 59年 7月에는 人民軍總參謀長(中將)으로 任命되었다가 60年 大將으로 昇進되었다. 61年の 第4次黨大會에서 黨中央委員이 되고, 62年 民族保衛相, 64年 中央政治委 候補委員으로 昇格되고, 66年 同政治 委員으로 補選되어 副首相을 兼任하였다. 그러나 69年 1月 드디어 黨內의 “維一思想體系” 反對者의 리더로 몰려 “軍閥主義者”로 肅淸되었다.

金昌鳳 民族保衛相에 이어 肅淸犧牲者가 된 사람은 對南工作總責任者 許鳳學과 人民軍總參謀長 崔光, 第1軍團司令官인 崔敏哲上將, 第7軍團司令官 鄭炳甲上將, 咸興 駐屯軍司令官 兼 衛戍司令官 金陽春上將, 海軍司令官 柳昌權中將, 民族保衛省 偵察局長 金正泰, 生産遊擊隊 黨責任秘書 趙東哲少將, 그리고 金昌鳳의 實兄 金昌基와 實弟 金昌植中將 등이었다.

그들의 거의가 톱클래스의 軍指揮官들로서 이들의 肅淸에 의해서 北韓人民軍內의 技術·作戰系 軍官은 송두리째 肅淸된 것이다.

더우기 이들 軍事指揮官은 리더인 金昌鳳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抗日聯軍出身者들이었다. 崔敏哲(第1軍團司令官)은 咸鏡北道出身으로 少年時節에 北滿州로 移住하여 38年頃부터 崔庸健의 部下로 抗日聯軍에서 活動하였다. 解放後 48年 人民軍의

聯隊長, 50年에서 53년까지 第5師團長, 55年에서 57년까지 民族保衛省 隊列局長, 62年 第4軍團長(中將)으로 되고, 그 후 上將으로 昇進하여 69年 肅淸될 때까지 第1軍團司令官을 지냈다.

鄭炳甲(第7軍團司令官)은 南滿州出身으로서 36年頃부터 金日成 밑에서 抗日聯軍의 鬪爭에 從事하였고, 48年 人民軍聯隊長 50年 機甲旅團長, 53年 第13師團長, 同年 第4師團長을 거쳐 59年 第3軍團長으로 昇進하고, 61年 第4次 黨大會에서 黨中央委候補委員으로 되고, 67年 10月 民族保衛省 機械化局長 兼 第7軍團司令官(上將)이었다.

金陽春(咸興駐屯軍司令官 兼 衛戍司令官)도 南滿州出身으로 抗日聯軍의 連絡將校를 하고 있었다고 하며, 48年 人民軍聯隊長, 54年 中央護衛隊政治部長, 58年 第4軍團 副軍團長, 62年 第1軍團長, 63年 上將으로 昇進하고, 咸興駐屯軍司令官 兼 衛戍司令官에 就任하였다가 69年 1月 “唯一思想體系”에 反對하였다고 攻擊을 받은 후 肅淸되었다.

柳昌權(海軍司令官)은 咸鏡北道出身으로 48年 蘇聯에 留學하여 軍官學校를 卒業하였다. 50年 人民軍海軍艦長, 58年 民族保衛省 副相 兼 海軍司令官으로 되고, 61年의 第4次 黨大會에서 黨中央委候補委員으로 選出되고, 67年 12月에 中將으로 昇進되었다.

이와같이 肅淸된 軍首腦는 모두 技術·作戰系統의 指揮官이며 그들은 解放後, 抗日聯軍에 參加한 實戰活動의 經驗에서 軍事指揮官으로 되었다는 特徵을 갖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는 抗日聯軍出身者로서의 連帶 및 金日成主席에 의해서 非難받게 된 “軍閥主義者”의 傾向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肅淸의

最大의 背景은 이들 軍事指揮官系列과 黨組織擔當 政治部長系列과의 對立이었던 것이다.

### 軍事와 政治 어느쪽이 優先인가

北韓人民軍의 金昌鳳(副首相 兼 民族保衛相)등 作戰 및 技術系軍官이 大舉 除去된 1969年初의 軍首腦肅清事件의 背景에는 政治 思想의 優先을 主張하는 金日成首相과 吳振宇(人民軍總政治局長)등 政治部系軍官그룹과 軍事技術을 重視하는 金昌鳳民族保衛相(國防相)등 軍內 技術·作戰系軍官과의 對立이, 있었다. 그의 對立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박금철 이효순 등 甲山派人脈인 金昌鳳 등 軍首腦大量肅清事件을 總括한 70年 11月 第5次 黨大會에서의 金日成의 黨中央委 事業總和報告書에서 그 當時의 對立의 背景을 알아 볼 수가 있다. 金日成報告는 軍隊의 近代化를 내걸고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즉, 人民軍隊의 戰鬥力을 強化하기 위해서 提起되는 重要한 課業은 軍人들을 政治思想的으로 튼튼히 武裝시킨 基礎 위에서 우리나라의 事情에 適合한 戰法을 계속 研究 完成시켜 그에 따라서 軍隊의 現代化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山과 河川이 많고, 海岸線이 긴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地形條件을 잘 利用하여 山岳戰과 夜間戰鬥를 교묘하게 꾸려, 大部隊作戰과 小部隊作戰, 正規戰과 遊擊戰을 잘 配合하면 最新의 軍事技術로 손뚝끝까지 武裝한 敵이라 할 지라도 얼마든지 섬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過去 祖國解放戰爭經驗이 이것을 證明하고 있으며, 오늘날 베트남戰爭이 또한 이것을 立證해 주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은 軍事技術보다도 政治思想의 優先을 強調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帝國主義者들은 가령 軍事技術的으로는 優位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人民軍隊는 그들에 비해 볼 때 政治思想的으로 優越性을 갖고 있다. 우리 軍隊는 바로 이와같은 政治思想의 優越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技術的으로 優勢한 敵과 싸워도 充分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더우기 金日成報告는 軍事技術의 優先을 主張하는 軍幹部를 批判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따라서 우리들은 人民軍을 現代化하고 軍事科學과 軍事技術을 發展시킴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具體的 事情에서 出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人民軍을 現代化한다고 하여 外國의 戰法이나 外國의 兵器와 軍事技術 機材를 機械的으로 모방하려고 한다든지 教條主義的으로 받아들여려고 한다면 國防建設에 큰 損失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金日成報告에서 非難받은 技術作戰系 軍官들의 指導的人物은 金昌鳳(民族保衛相)과 崔光(人民軍總參謀長)이었다. 崔光은 30年代 後半부터 金日成의 直系 部下로 抗日聯軍에 參加하였다. 解放後 48年 人民軍 第1師團長, 52年 姜健 軍官學校 校長을 거쳐 53年 人民軍 第5軍團長이 되었다.

1962年 9月 民族保衛 副相, 63年 2月 人民軍總參謀長(大將)으로 任命되고, 66年의 第2次 黨代表者會議에서 黨政治委 候補委員으로 補選된 軍僱버 2人者였다. 69年 1月의 軍首腦肅清事件에서 黨에서 追放되었으나 金日成의 直系라는 점도 있고 해서 77年 黃海南道 人民委員長으로 復歸한 이래, 80年의 第6次 黨大會에서 黨中央政治局 候補委員, 81年 3月 政務院 副

總理에 任命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結局 金昌鳳 등 軍首腦는 69年 1月の 人民軍黨 第4期 第4次總會에서 다음과 같은 罪狀으로 肅淸되었다는 것이다(74年 서울의 極東問題研究所에서 發行된 北韓全書(中)에 의함).

즉, 6.25 動亂의 經驗을 無視하고 現代裝備의 導入에만 固執하여 韓半島의 地形에 適合한 裝備 즉 山岳戰에 有効한 曲射砲보다도 直射砲를 많이 導入하였다. 한편 超音速飛行機의 導入에 反對하고 全國의 요새화를 잘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勞農赤衛隊의 意義를 過小評價하여 全人民의 武裝化, 政策을 소홀히 할뿐만 아니라 山岳戰과 敵의 深部에서 싸울 輕步兵部隊의 創設과 武裝化에 反對하고, 戰爭勝利의 決定的 保證인 正規戰과 遊擊戰을 配合할 것을 無視하였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人民軍에 있어서의 政治思想優先派와 軍事技術重視派의 對立을 보면 中國에서 1958年 彭德懷 國防相이 毛澤東路線에 反對하여 解任된 事件, 65年末 遊擊戰과 民兵을 重視하여 “人民戰爭論”을 主張한 林彪 國防相과 軍事技術과 對蘇關係改善을 重視한 羅瑞卿 總參謀長의 對立이 66年 부터의 文化大革命으로 發展해간 事情과 매우 類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北韓의 軍首腦肅淸에 使用된 金日成의 “政治思想優先論”은 69年初半이라는 時期로 보아 毛澤東 林彪그룹의 “人民戰爭論”을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黨의 軍指導強化와 게릴라戰 重視

金昌鳳 民族保衛相(國防相) 등 北韓의 軍首腦부의 肅淸을 總括한 1969年 1月の 人民軍黨 第4期 第4次總會後 金日成一派에 의한 北韓의 人民軍은 어떻게 再整備되었는가. 또 서울

의 大統領官邸襲擊事件(68年1月), 울진·삼척계림라事件(68年10月에서 11月) 등의 對南政策의 最高責任者였던 許鳳學, 金正泰(民族保衛省 直屬 偵察局長) 등의 肅清에 의해서 對南政策은 어떻게 變化하였을까.

서울의 極東問題研究所에서 出版한 「北韓全書(中)」은 軍首 腦部肅清後 北韓人民軍은 다음과 같이 再整備되었다고 한다. 그 第1은 人民軍黨委員會를 보다 強化하고 思想教育事業을 強力히 推進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黨秘書가 軍幹部들을 掌握하고, 黨中央組織指導部에서 軍內의 政治系 幹部를 掌握함과 동시에 師團 및 聯隊의 政治委員을 動員하였다.

이 措置는 第2次 黨代表者會議에서 黨組織指導部長을 兼한 채로 黨秘書가 된 金日成의 實弟 金英柱를 中心으로 굳어진 黨中央에게 人民軍에 대한 統制와 支配의 權限을 集中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思想教育事業의 推進은 黨中央에 의한 軍의 支配를 強化하기 위한 手段이었다.

第2의 措置는 6.25 動亂時와 같이 蘇聯의 軍事戰法을 '모방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祖國解放戰爭의 經驗을 살려 北韓의 實情에 맞는 戰鬥訓練을 實施하여 正規軍과 遊擊戰의 配合과 山岳戰을 研究하고 이것을 遂行하는 輕步兵部隊의 訓練을 早速히 행하여 이 部隊를 輕量化된 武器로 裝備시키도록 하였다.

正規戰과 遊擊戰을 配合한 戰法이라는 것은 正規戰에서 게릴라戰法을 重視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때문에 金日成 吳振宇(總參謀長) 등은 北韓人民軍의 各 集團軍에게 82미리 迫擊砲以下의 兵器로 武裝된 輕步兵旅團을 두개씩 설치하였다.

한편, 對南계림라用 特殊部隊를 糾습하여 “第8軍團”의 산하에 編入시키고, 機動과 徒步 特攻을 結合하는 軍編制로 고쳐

山岳戰과 接近戰의 訓練에다 全戰鬪訓練의 40%以上을 할당하는 것으로 되었다.

正規戰과 遊擊戰의 結合에 關係서 北韓의 「今日의 朝鮮」(69年154號)은 “小部隊는 敵統治地域의 各地에 出現하여 地下政治工作과 奇襲作戰을 展開함에 의해서 敵을 威脅하고, 大部隊는 은밀히 行動하면서 敵을 不意에 攻擊하여 大量的 損失을 주고, 大混亂에 빠지게 한다”고 說明하고 있다.

第3의 措置는 이러한 措置에 의해서 北韓人民軍은 “南朝鮮人民이 要求”할 때에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恒時 準備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態勢를 갖추게 되었다.

“南朝鮮人民의 要求”라는 것은 67年12月の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4期 第1次會議에서 金日成이 發表한 所謂 “10大政綱”으로 提出되어, “南朝鮮人民이 우리들의 支援을 要求할 때에는 언제든지 祖國統一의 偉業을 遂行하는 決定的인 싸움에 일어설 수 있도록 準備를 갖추어 두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뒤이어 68年9月8日 평양에서 開催된 北韓創建20周年 慶祝大會에서 행한 金日成의 報告는 “決定的 鬪爭은 오직 暴力的 方法에 의해서만이 勝利할 수가 있다. 暴力鬪爭이 아니고 어떠한 平和的인 方法으로 南朝鮮人民이 主權을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환상에 不過하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69年1월에 決議를 본 金昌鳳 民族保衛相 등 軍首腦의 肅清에 의해서 再整備된 北韓人民軍은 지금까지의 金日成의 對南武力統一路線을 踏襲하여 새로이 正規戰과 遊擊戰을 結合한 戰法에 의해서 訓練된 게릴라部隊의 南派와 人民軍의 南侵을 “南朝鮮人民의 要求”라는 名分下에 언제든지 發動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추게 되었다.

甲山派의 肅清으로 失敗한 李孝淳과 軍首腦部肅清으로 除去된 許鳳學은 모두 對南工作의 總責任者였다. 왜 이렇게 對南工作의 總責任者들이 계속해서 肅清되었을까. 그것은 金日成의 對南武力統一路線 즉, “南朝鮮解放政策”이 失敗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68年 南朝鮮解放이 目標

甲山派의 李孝淳과 軍首腦部肅清의 許鳳學은 모두 北韓의 對南工作總責任者였다. 두 사람의 肅清의 背後에는 金日成의 對南武力統一路線 즉, “南朝鮮解放”의 方針이 黨內에서 강한 批判을 받고, 또 그것이 確實히 失敗하였다는 것이 明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甲山派의 李孝淳의 肅清은 68年의 “武力統一宣言”으로 보아서, 韓國에서의 地下黨만들기와 그것을 據點으로 하여 蜂起를 준비한다는 政策을 固執한 李孝淳一派의 對南工作이 金日成의 武力統一路線에 의해서 否定되었음을 意味한다.

그러기 때문에 67年 7月 3日의 黨中央委 第4期 第16次 全員會議에서, 金日成은 “黨의 思想體系가 確立되어 있지 않는 것도, 革命을 하고 싶지 않은 자들이 戰爭을 두려워하여 大事變을 맞이할 準備에 反對하고, 또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을 並進시키는 黨의 路線에 反對하고, 千里馬運動에도 反對하는 者들이 다.” 라고 甲山派를 非難한 것이다.

甲山派의 肅清과 並行해서 金日成은 1968年을 “南朝鮮解放”의 目標로 設定한 것이다. 66年 10月 18日에 열린 黨中央委 組織指導部 宣傳煽動部 活動 會議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들은 國土의 半을 잃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南半部를 解放한다는 것은 우리黨앞에 提起되어 있는 가장 重要한 革命의 任務이다. 이제 美國人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고 있다. 우리는 美國놈들을 때려눕힌다는 決意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人民軍의 軍團長이나 師團長들에게도 요새 靑年들은 日本帝國主義者나 美國놈들이 어떤 놈들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나이를 먹기 전에 美帝國主義者와 그의 앞잡이들을 打倒하여 祖國을 統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였다.

祖國統一의 機會는 반드시 온다. 來年이 될런지 來後年이 될런지, 그것은 우리들이 革命的 事變을 맞이할 준비가 어느 程度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祖國統一의 機會를 놓치지 말고, 主動的으로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역시 모두가 自己自身을 徹底하게 革命化한다는 것이다.

이 報告는 66年 10월에 행한 것으로서 “南朝鮮解放”에 관해서 “來年이 될런지, 來後年이 될런지”라는 目標를 提示하고 있다. 그의 目標는 67年이 아니면 68年이라는 것으로 되며, 늦어도 68年을 “祖國統一의 機會”로 設定하였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67年 12月 “10大政綱”을 發表하고, “南朝鮮人民이 우리들의 支援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祖國統一의 偉業을 遂行하기 위한 決定的인 싸움에 일어설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武力統一宣言”을 提起한 것이다.

이러한 方針에 따라 許鳳學이 對南工作總責任者로 就任하고, 68年에 大量의 武裝게릴라 南派作戰을 集中的으로 展開한 것이다. 68年 1月 21日 31名의 特殊게릴라部隊를 서울에 潛入市

켜 大統領官邸를 攻擊시킨 것이다.

그로부터 2日後인 1月 23日에는 프에블로號事件이 일어났다. 同年 10月 下旬부터 11月에 걸쳐 120餘名の 武裝게릴라를 蔚珍 三陟에 上陸시켰다.

이러한 大量의 게릴라南派에 의해서 韓國에 “革命的 事變”을 일으키고, 그것을 口實로 人民軍을 南派시켜 武力統一을 達成하려는 計劃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게릴라南派作戰은 모두가 成功하지 못하였다. 69年 1月の 人民軍黨 第4期 第4次總會에서의 金昌鳳 民族保衛相 등 黨首腦의 肅淸은 時期的으로 보아 68年中에 展開된 게릴라南派作戰의 失敗와 密接히 結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릴라南派作戰이 失敗한 것을 金日成은 自己의 武力統一路線의 잘못으로 認定할 수는 없다.

거기서 金昌鳳, 許鳳學 등에게 “軍閥官僚主義者”라고 하는 レッテル을 붙여 肅淸함과 同時에 軍首腦肅淸後의 人民軍 再整備에 있어서 軍에 대한 黨의 指導強化를 내놓은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金日成의 對南武力統一路線의 失敗를 감추고 그의 責任에 대한 批判을 封鎖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 軍肅淸 다음에는 民衆彈壓

金日成의 肅淸의 歷史에 있어서 1953年에서 55年의 “南勞黨”의 肅淸, 56年의 “延安·소련派”의 肅淸, 67年에서 69年의 “甲山派”, 軍首腦肅淸의 세가지가 “3大肅淸事件”으로 되어 있으나, 이밖에도 金日成의 肅淸으로 犧牲된 사람은 無數하다.

69年의 軍肅淸後, 70年 11月에 열린 勞動黨, 第5次大會前

後에 다시금 軍元老들이 肅淸을 당하였다.

이때 肅淸된 者는 金光俠(副首相, 大將), 石山(社會安全相, 大將), 李英鎬(大將) 등이다. 金光俠은 中共軍 部隊長을 지냈고, 歸國後에는 人民軍의 師團長, 軍團長, 總參謀長, 民族保衛相(國防相)을 歷任하고 副首相까지 昇進한 軍元老級 人物이었다.

石山은 金日成의 抗日빨치산에 參加하였다는 것으로 人民軍의 政治安全局長, 民族保衛省 副相, 內務相, 社會安全省 副相을 歷任한 軍의 古參이다. 李英鎬는 소련軍 出身으로 民族保衛省 副相, 海軍司令官, 中國大使 등을 역임한 軍元老中の 한 사람이다.

이러한 元老級들이 肅淸된 理由는 公表되어 있지 않으나 서울의 北韓問題專門家에 의하면, 金日成의 強硬한 軍事路線에 反對하였기 때문에 “反黨宗派分子”의 烙印이 찍힌 것이라고 생각된다.

74年에는 人民軍 第5軍 集團軍司令官인 李乙雪(大將)이 宗派分子로 肅淸되었다. 李乙雪은 滿州에서 金日成의 當番兵으로 근무한 것이 인연이 되어 歸國後 人民軍中에서도 昇進이 빨랐고, 金日成의 가장 信賴를 받는 側近中の 한 사람이었다.

李乙雪의 肅淸도 理由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金日成의 子息 金正日을 후계자로 하는 데 反對하였다는 것과, 軍의 無原則한 指揮官 更迭에 反撥한 것이 그 原因이라고 서울의 專門家들은 보고 있다.

이러한 肅淸事件이 있는 후 1974年 8月부터는 北韓의 全住民을 對象으로 “金日成唯一思想 10大原則再檢討事業”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同時에 住民레벨의 “敵對階層”에 대한 彈壓

과 肅淸이기도 하였다.

1971年 2月 1日附로 勞動黨秘書局이 各級 黨責任秘書 앞으로 送達한 “3階層 51個部類”는 北韓住民을 3階層으로 나누어 “核心階層” “動搖階層” “敵對階層”으로 하고, 全人口中 核心階層은 27%, 動搖階層은 22%, 敵對階層은 51%로 分類된다는 것이다.

서울의 「內外通信」 77年 22號에 의하면 이것이 77年에는 核心 25%, 動搖 35%, 敵對 40%로 變化되고 있다.

“51個部類”는 3階層을 다시 細分하여 北韓住民을 51個部類로 나누는 것인데 金日成이 특히 信賴를 하는 核心指導層은 ① 革命鬪士家族 ② 戰死者家族 ③ 被殺者家族 ④ 殉職者家族 ⑤ 軍幹部의 後方守備家族 등의 5部라는 것이다.

“51個部類”中 全住民의 51% (76年에는 40%)를 차지하는 “敵對階層”은 다음의 “27個部類”로 細分된다.

즉, ① 地方出身과 그의 家族 ② 資本家와 그의 家族 ③ 暴動連累者와 그의 家族 ④ 治安隊 (韓國戰爭當時 UN軍下의 治安隊)와 그의 家族 ⑤ 韓國軍人, 警察官과 그의 家族 ⑥ 自治會 (韓國戰爭當時) 關聯者와 그의 家族 ⑦ 被處斷者와 그의 家族 ⑧ 投獄된 者와 그의 家族 ⑨ 間諜連累者와 그의 家族 ⑩ 宗派連累者 ⑪ 出所者 (思想, 經濟犯) ⑫ 宗教家와 그의 家族 ⑬ 黨籍除名者 ⑭ 越南者의 家族 ⑮ 行方不明者 ⑯ 撤職者 (地位, 職責의 罷免者) ⑰ 降職者 (職位格下者) ⑱ 歸還者 (韓國軍의 捕虜에서 歸還한 者) ⑲ 兵役忌避者 ⑳ 不平·不滿分子 ㉑ 解放戰士 (韓國軍人으로 捕虜가 되었다가 北韓에 殘留하고 있는 者) ㉒ 竊盜常習者와 그의 家族 ㉓ 風紀紊亂者 ㉔ 歸國者 (주로 日本과 中國) ㉕ 越北者 (韓國으로부터) ㉖ 日帝時代의 官

吏와 그의 家族 ㉞ 手工業者, 商工人 등이다.

이들 27 個部類에 대한 第1次 彈壓은 58 年 12 月부터 60 年 12 月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中央黨集中指導事業”과 66 年 4 月부터 67 年 2 月까지 實施한 “住民登錄과 成分再調查事業”의 調查結果에 따라 “人民裁判”의 形式으로 大量處刑되었다.

77 年 11 月 서울의 自由評論社에서 出版된 「北傀의 肅淸과 反抗運動」(著者는 前 南派間諜이었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아니함)에 의하면 이 人民裁判에서 處刑된 者는 平壤市에서 千餘人, 開城市에서 三百餘人, 黃海道 六百餘人, 江原道 六百餘人, 其他地域 千餘人으로 合計 三千五百餘人에 달한다고 한다.

第2次 彈壓은 58 年 內閣決定 149 號에 의해서 送達된 “붉은 都市化計劃”에 따라 斷行된 強制移住로서 1 萬世帶가 넘는 敵對階層이 山間僻地나 炭鑛村으로 追放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 彈壓에 民衆의 不滿噴出

北韓에서 1950 年代, 60 年代의 大規模的인 肅淸과 彈壓에 대해서는 當然히 이에 抵抗하는 民衆의 反抗事件이 수없이 일어났다. 서울의 北韓問題專門家에 의하면 民衆의 反抗은 金日成에 대한 直接的인 反抗, 生産工場에서 發生한 反抗事件, 農村에서 일어난 反抗鬪爭의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金日成에 대한 直接的인 反抗事件으로 表面화된 代表的인 것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事件을 들 수 있다.

1964 年 2 月の “五老驛의 抗議自殺事件”은 咸鏡北道 五老郡의 五老驛에서 한 靑年이 待合室의 群衆을 향해서 “殺人돼지 金日成을 打倒하자” “金日成은 나의 兩親을 죽인 살인마다”

“피는 피로서 갚는다”라고 외치면서 區內로 들어 오고 있는 列車에 뛰어 들어 自殺을 하였다.

65年 12월에 일어난 “金日成狙擊事件”은 平壤의 “共產主義거리”에 있는 新築아파트를 視察하고 돌아오는 途中 金日成의 乘用車가 中區域 萬壽洞의 邸宅으로 향해서 普通江에 이르렀을 때 다리 위에서 人民軍 某上尉에게 狙擊을 당하였다.

防彈裝備의 車였기 때문에 金日成은 無事하였으나 犯人은 卽席에서 逮捕되었다. 事件의 內容은 極秘에 부치고 있으나 犯人은 “宗派分子”로서 肅淸된 某高官의 子息이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이다.

66年 9月 “海州포스타事件”은 北韓의 政權樹立紀念日인 “9.9節”을 앞두고 海州市內의 世개의 洞 一帶에서 포스타의 金日成肖像에 수염을 그려놓고 “살인마 金日成을 打倒하라”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68年 3月の “祖國解放戰爭記念館”의 “手榴彈盜難事件”은 韓國戰爭의 勝利를 記念하기 위해서 建設된 記念館의 陳列品속에서 使用可能한 實物의 手榴彈 6個와 彈倉이 도난당한 것이다. 이러한 陳列品은 金日成을 우러러 모시는 神聖한 記念品이기도 하기 때문에 平壤市의 社會安全部는 總動員하여 記念館 職員들을 調査하고 平壤市內 全域의 家宅搜索을 하였으나 犯人은 잡을 수가 없었다.

또한 68年 3월에 일어난 “綜合印刷工場의 金日成主席冒瀆事件”은 平壤綜合印刷工場에서 같은 날에 印刷한 「로동신문」(勞動黨機關紙)와 「민주조선」(政務院機關紙)의 記事中에 “金日成元帥”라는 자리에 같은 음의 “金日成怨讐”(仇敵)로 印刷되었다는 것이다. 新聞은 當장 配布中止되고 回收되었으

나 飛行便의 一部는 回收不可能하게 되어 外部에 누출되고 말았다. 平壤市 社會安全部가 徹底하게 搜查에 나서 印刷工場의 勞動者, 事務員中에서 成分이 나쁜 順으로 總 30人을 檢擧하여 拷問하면서 調查하였으나 犯人은 發見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生産工場에서의 反抗事件은 60年代에 12件, 70年代에 1件이 發生하였다. 76年 7月の “龍山鑛山食糧暴動事件”은 咸鏡南道 鑛村郡에 있는 龍山마그네사이트鑛山에서 數百名의 勞動者가 食糧을 要求하는 流血暴動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當局은 全員을 逮捕하여 엄중한 彈壓措置를 取하였다고 한다.

68年 12月の “平安南道檜昌鑛山事件”은 同鑛山の 鑛員들이 돌을 먹고는 살 수가 없다. 有害勞動에 相應하는 給食을 하라”라고 쓴 현수막과 鑛山當局을 규탄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데모를 하였다. 이에 社會安全部가 主謀者 20人을 逮捕하였는데, 그 중 4人은 日本에서 온 北送者였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群衆裁判”을 열어 2人은 銃殺刑에 處하고 나머지 全員은 教化所(刑務所)로 보냈다는 것이다.

67年 8月の “咸興鑛山暴動事件”은 武裝게릴라를 養成하는 124軍部隊를 除隊하고 咸興鑛山の 鑛員으로 配置된 除隊軍人 8人이 武裝暴動을 일으킨 事件이다. 그들은 124軍部隊에 服務하고 있을 때 除隊하면 大學이나, 아니면 그에 相當하는 職場을 줄 것을 約束받고 있었으나, 約束을 어기고 鑛山에 配置되어 鑛員으로서의 能力을 發揮하지 못하게 되자 幹部로부터 책망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不滿이 폭발한 8人은 鑛山勞農赤衛隊(民兵)의 武器庫를 襲擊하여 武器를 奪取하고 鑛山事務所에 들어가 黨秘書와 指導員들을 監禁하고 暴行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社會安

全部는 管下의 兵力을 動員하여 3時間以上의 銃擊戰에서 8人 全員을 射殺함으로써 겨우 暴動이 鎮壓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農村에서 일어난 反抗鬭爭으로서는 60年代에 7件, 70年代에 1件이 있었다. 70年2月의 “統一貯蓄糧穀放火事件”이 黃海南道 安岳郡 淵登協同農場에서 가마니가 터져서 쌀이 땅에 쏟아진 것을 農民들 몇 사람이 주워갔다고 해서 社會安全部가 制裁를 가한 데서 發端되었다는 것이다.

社會安全部에 끌려간 農民들은 協同農場的 “統一貯蓄糧穀”의 倉庫에 불을 지르고 逃走하였으나 곧 全員이 逮捕되어 極刑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事件은 62年 12月 北韓에서 “4大軍事路線”이 決定되고, 戰爭準備의 一環으로 郡 또는 里單位로 所謂 “統一貯蓄糧穀”을 備蓄하도록 指示를 받았기 때문에 食糧不足으로 시달리고 있는 農民의 불만이 폭발하였던 것이다.

以上과 같은 金日成의 肅淸과 彈壓은 지금도 계속 進行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民衆의 抵抗도 反抗도 여러가지 形態로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北韓勞動黨肅清史

---

---

1989年 5月 23日 印刷

1989年 5月 26日 發行

發行 調查研究室 第1 研究官室

翻譯 趙 基 洙  
(국토통일원상임연구위원)

印刷 江 聞 印 刷 社

---

---

國統調 89-5-42

(非賣品)

